

국제건축사 인증기반 확립을 위한 인증기준 및
정책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2006. 12.

연구기관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건 설 교 통 부

최 종 보 고 서

- 용 역 명 : 국제건축사 인증기반 확립을 위한 인증기준 및 정책개발 연구
- 용역기간 : 2006. 06. 23 ~ 2006. 12. 22(6개월)
- 내 용 : 과업 최종보고서

목 차

- I. 서론
- II. 연구방법 및 이론
- III. 조사결과
- IV. 국내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보완 및 대응방안 모색
- V.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제도 확립 및 대학교육 특성화 방향제안
- VI.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제도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 VII.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2006. 12. 19

총괄책임연구원 박 용 환

목 차

I. 서론	01
II. 연구방법 및 이론	
2.1 연구의 목적	02
2.2 연구의 주요 내용	03
2.3 세부 연구과제 및 연구수행 방법	04
III. 사례조사 결과	
3.1 국외 인증제도 실사과정 사례 및 인증실사 동향 조사	
3.1.1 국제 인증제도 동향 조사	05
1) 국제 인증제도 동향	05
2) 국제 공학교육인증 협의체의 활동 및 국내 동향	06
3) 국가간 건축학교육인증제도 상호인정	08
4)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Conference	09
5)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Conference의 성과 및 의의	11
3.1.2 국외 인증실사사례 조사	14
1) 오uckland 대학(University of Auckland, New Zealand)	14
2) 바스 대학(University of Bath, UK)	21
3) 포츠머스 대학(University of Portsmouth, UK)	29
3.2 국내 건축학 교육기관의 물적 인적 현황조사	
3.2.1 국내 건축학교육기관의 물리적 현황 조사	41
1) 스튜디오(설계실) 현황	41
2) 스튜디오 외 물리적 시설 현황	42
3.2.2 국내 건축학 교육기관의 인적 현황조사	44
1) 학생현황	44
2) 교수진	47
3) 교수대비 학생 비율 현황	48

IV. 국내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보완 및 대응 방안 모색

4.1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제도 운영 경과 및 현황	51
4.1.1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신청자료 분석	52
4.1.2 국내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 분석	55
4.1.3 국내 최초인증실사 분석	63
1) 국내 최초인증실사의 의미	64
2) 국외 인증실사팀 위원 제언	65
4.2 국내 인증제도 운영 문제점 보완 및 대응방안	
4.2.1 인증기준	71
4.2.2 인증신청	71
4.2.3 인증지침서	74

V.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제도 확립 및 대학교육 특성화 방향 제안

5.1 한국건축학교육 인증모델 확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75
5.1.1 국외 인증제도 전문가 초청 워크숍	75
5.1.2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제도 확립을 위한 공청회	79
1) 공청회 프로그램	79
2) 최초인증실사의 긍정적 면	80
3) 향후 인증실사에서의 개선 점 a	80
4) 향후 인증실사에서의 개선 점 b	82
5) 향후 인증실사팀 교육에서의 유의사항	83
5.2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제도 확립 및 대학교육 특성화 방향 제안	85
5.2.1 인증제도 확립 및 대학교육 연계	85
5.2.2 국외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 사례	86
1) 오uckland 대학 (University of Auckland, New Zealand)	86
2) 포츠머스 대학 (University of Portsmouth, UK)	89
3) 미국 건축학교육의 특성화 사례	92
5.2.3 특성화 방법론	94

VI.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제도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6.1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96
6.1.1 미국 건축사등록원의 교육요구 조건	99

1) 미국 건축사등록원(NCARB)의 이해와 설립목표	99
2) 미국 건축사등록원(NCARB)의 교육기준 3항에 대한 오해	100
6.2 건축실무 수련기간	101
6.3 건축학교육인증원과 건축사등록원의 위상	102
6.4 경과조치	104
6.5 건축사법 개정 제안	105
VII. 결 론	108

■ BIBLIOGRAPHY

■ 부 록

- i. 1st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Conference
- ii. 2nd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Conference
- iii. 국외 인증실사팀 위원 의견서 전문

국제건축사 인증기반 확립을 위한 인증기준 및 정책개발 연구

I. 서 론

최근 국제화의 범세계적 조류 속에서 건축설계 서비스 분야의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건축전문 서비스용역의 기초가 되는 건축전문교육을 위해 건축교육 인증제도를 통하여 능력과 자질 있는 건축사를 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WTO 가입과 건축분야 서비스 시장 개방 등 국제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많은 대학들이 건축학 교육제도 개편을 단행하여, 반세기 이상 지속된 4년제 건축교육 제도를 5년제로 급속히 개편하였다. 그러나 UIA 등 국제사회는 1년간의 수학 연한의 연장뿐만 아니라, 그 교육과정에 질 높은 건축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된 인증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건축교육 국제화와 건축설계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는 독자적 건축학교육 인증시스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4년 12월,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 건축관련 3단체¹⁾와 정부 유관부처의 노력으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설립되었다. 2005년부터 인증사업을 시작, 2006년 11월 국내 건축학 5년제 3개 프로그램의 최초 국제 인증실사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면서 본격적인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각적이며 현실적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내 건축계의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방향 제시 미비로 인하여 건축교육 여건변화의 연착륙이 어려워지며, 향후 건축교육-산업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의 한 축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 및 실사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증을 준비하는 피 인증실사 기관이나 인증기관 나아가 국제적으로 인증시스템 정착 및 국가 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정(MRA)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1)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건축학교육인증 문제는 WTO에 의한 서비스 시장개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인증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할 시 건설교통산업의 한 축인 건축관련분야가 국제적 수준으로의 질적 향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건축교육 분야가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 건축학 인증기준을 국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좀 더 정교화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 경험과 자료축적을 통해 국제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II. 연구방법 및 이론

2.1 연구의 목적

건축학교육에 대한 인증의 필요는 WTO와 FTA에 의한 건축설계서비스 시장개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건축학교육 인증제도의 채택 여부 및 국가간 상호인정은 건축설계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며, 건축학교육의 인증제도 도입 및 정착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설계교육의 실행과 설계중심교육으로의 건축교육 정착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건설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인증제도 도입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이며 이를 국제적 수준으로 격상하고 인정받기 위한 후발주자로서의 끊임없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에 2006년 최초 인증업무가 진행되었고 피인증기관인 대학 그리고 관련산업인 건축설계 각 분야간의 원활한 인증업무 추진을 통해 향후 건축설계산업의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의 모델 정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세부적 인증수행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통한 대학 건축학교육의 특성화 활성화 및 인증제도 정착육유도를 위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는 시점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설계산업의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의 모델 정립 필요성으로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세부적 인증수행 모델을 확립하고 인증을 통한 대학 건축학교육의 특성화 및 정착육 방향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에서 건축교육인증제도의 실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건축전문교육의 전문화와 국제화에 기여하며, 건축전문 학위제를 정착시킬 수 있다. 나아가 건축학계와 산업계의 협동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수준의 우수한 건축인력을 배출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건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축의 사회와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2.2 연구의 주요 내용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건축학교육 인증제도의 동향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국내 인증제도의 현실과 위치를 파악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국외 인증제도 심사과정 참여 및 인증규준 운영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 건축학교육 인증업무인 인증심사수행 모델 자료에 활용하여 인증업무의 국제적 수준으로 격상 가능도록 유도하고, 인증제도가 도입된 후 최초의 인증사업이 진행된 시점에서 국내의 건축학전문학위 교육과정으로의 개편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인증사업을 대비하고, 관련교육기관의 인적 물리적 현황조사를 통해 대학이 처하고 있는 현실 및 실정을 분석하도록 한다.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의 접근을 위해 그간 인증원에 제출된 각 대학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자료를 분석하고 제도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리하며, 특히 최초의 인증심사를 통해 제기된 장·단점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상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외에서 인증전문가를 초청하여 대응방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외 인증심사팀의 심사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서의 토론 과정을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국내·외의 동향 및 사례 조사, 관련 문헌자료 조사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종합 분석하고 국외의 대학교육 특성화 사례 제시를 통해 국내 건축학교육 인증제도 확립을 위한 대학교육 특성화 및 대학교육과의 연계 방향을 제안하도록 한다. 이러한 제안을 통해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률을 유도하도록 하며 인증제도의 정착률을 위해서는 건축사자격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 경향 및 기준에 맞는 인증제도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건축사자격제도와 연계하여 제안하도록 한다.

2.3 세부 연구과제 및 연구수행 방법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외 인증제도 동향을 조사하고 국외의 인증실사과정에 참여하여 조사하며, 설문 및 자료 분석을 통해 국내 건축교육기관의 인적 물리적 현황 조사를 한다. 또한 국내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보완 및 대응 방안 모색하기 위해 기존의 자료를 분석 하고, 인증제도의 확립 및 대학교육 특성화 방향 제안을 위해 조사된 자료를 종합분석하고 국외 전문가 초청 및 공청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인증제도의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을 하도록 한다.

세 부 연 구 항 목	수행 방법
가. 세부 과업 수행 계획서 작성	
나. 국외 인증제도 동향 및 실사과정 사례 조사	
Washington Round Table Conference 참석을 통한 국제 동향 조사 국외 인증실사과정 사례 연구과 해외인증실사 동향 조사	회의 참석,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다. 국내 건축학 교육기관의 물적 인적 현황조사	
국내 건축학 교육기관의 물리적 현황 파악 국내 건축학 교육기관의 인적 현황 파악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라. 국내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보완 및 대응 방안 모색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신청 자료 분석 국내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분석 국내 최초 인증실사 사례 분석	자료검토 및 분석 자료 분석 자료분석 및 자문
마.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제도의 확립 및 대학교육 특성화 방향 제안	
국외 인증제도 전문가 초청 워크숍 한국건축학교육 인증모델 확립 공청회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제도의 확립 및 대학교육 연계 모색 국외 인증사례를 통한 건축학교육 특성화 사례 제시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제도의 확립 및 대학교육 특성화 방향 제안	워크숍 개최 공청회 개최 자료분석 및 자문 자료 분석 자료분석 및 자문
바.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제도의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국외 건축사자격제도 분석 건축사등록원 설립관련 연구자료 분석 건축학교육 인증제도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자료검토 및 분석 자료 분석 자료분석 및 자문
바. 최종 보고서 작성	자료분석 및 자문

III. 사례조사 결과

3.1 국외 인증제도 실사과정 사례 및 인증실사 동향 조사

3.1.1 국제 인증제도 동향 조사

1) 국제 인증제도 동향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하면서 건축분야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었다. 국제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많은 대학들이 2002년부터 건축학 교육으로 본격적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4년제 공학교육위주의 교육체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건축학 5년제 전문학위과정(Professional Degree Course)으로 급속히 개편된 상황에 있다.²⁾ 이것은 UIA 등 국제사회에서 건축사 등록 자격 요건으로 요구된 최소 5년간의 대학교육에 맞추어 국내의 현행 4년제 교육체제에서 5년제 교육체제로 교육의 기간을 최소 1년 연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건축 전문직종으로써 수학 연한에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 이외에도, 교육과정에서 인증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내 전문 건축학위 교육과정의 자체적 인증 심사체제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보다 체계적 상호 인정의 길을 추구하는 것과 건축 직능에서 요구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과 자질을 담보할 수 있는 건축교육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³⁾ 이것은 국제사회에서의 각 인증체제가 주체가 되어 협의해 나아갈 건축교육 상호인정 회원국이 각각 독립된 건축교육 인증시스템을 갖출 것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방 선진국가의 경우, 대학교육 특히 전문직 분야의 직종을 준비하는 전문 학위과정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 직능분야의 이익단체들이 주관인 자체 인증기관에 의해 교육의 질 유지와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 교육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으로 영국 RIBA와 미국 NAAB는 이미 한 세기가 가까이 되는 역사를 바탕으로,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하고 조언해줌으로써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 확보와 변화해가는 전문직종의 실무내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미국의 건축학 또는 공학교육 인증체제에 잘 나타나 있다.⁴⁾

2) 본 보고서 '3.2 국내 건축학 교육기관의 물적 인적 현황조사' 참조.

3) 이준석, 이상현, 건축교육과정(커리큘럼) 수요인식에 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 2004

우리의 경우, 건축학 분야의 전문 학위과정으로써의 개편이 의미하는 취지에 따라 유관단체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인증원에 의한 정기적 인증심사과정을 통해 그 교육의 질과 내용을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고, 이미 2006년 11월 국내 최초로 인증원에 의한 현장실사를 치른 바 있다.

이제는 건축교육의 국제화와 건축설계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독자적 건축교육 인증시스템으로 지속적 발전을 이뤄내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화된 인증기준의 확보와 인증심사 실적을 통해 현재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각 인증단체간의 상호 인정 협의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국제 공학교육인증 협의체의 활동 및 국내 동향

(1) 워싱턴 어코드(Washington Accord)의 성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전문 학위분야의 상호인증 체제를 위해 가시적 성과를 거둔 분야로서 공학교육분야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이것은 미국 공학교육인증원인 ABET(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의 주도하에 성립된 “워싱턴 어코드(Washington Accord)”의 사례로 살펴볼 수 있겠다. 이것은 1989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6개국이 자국에서 인증한 공학 교육과정을 회원국인 다른 나라에서도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해 주기로 한 합의이다. 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약 4~5년에 거친 회원국간의 사전협의를 있었으며, 1989년 합의를 이룬 이후, 타 학문분야에 모범이 되는 학위과정의 국제 상호인증 체제로써 인정받고 있다. 현재 홍콩 등 2개의 추가 회원국이 새로운 회원국으로써 확정된 상태이며,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준회원국으로써의 지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정의 심사과정과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⁵⁾

(2) 국내 공학교육인증의 동향

국내에 국제 시장개방과 더불어 대학교육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시화된 교육인증분야가 바로 공학교육인증의 필요성 대두와 이를 위한 한국공학교육

4) 미국의 건축교육인증원 (NAAB) <http://www.naab.org>, 공학교육인증원 (ABET) <http://www.abet.org> 참조.

5) 공학교육인증원 (ABET) <http://www.abet.org> 참조.

인증원, ABEEK(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의 설립을 들 수 있다. 공학교육인증체제의 필요성에 따른 1999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설립은 90년대 초부터 준비되어 온 국내 건축교육의 전문 건축학위과정으로의 개편과 인증체제의 필요성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설립이후 지금까지 국내 약 10여개 공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심사와 인증자격을 부여한 실적을 갖고 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국제 공학교육인증 협의체인 Washington Accord의 정식회원국이 되기 위한 절차를 수행 중이며, 현재 준회원국의 입지를 확보한 것을 공인원의 국제화를 위한 대표적 성과로 인정하고 있다. 2006년 9월 한국공학교육센터 창립총회에 참석한 한송엽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상임고문은 현재 국내대학을 대상으로 공학교육인증작업을 하고 있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내년 중에 워싱턴 어코드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워싱턴 어코드 관계자들이 내한해 한국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워싱턴어코드 가입이 한국 공대 졸업생들의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한국에서 배출된 엔지니어들이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⁶⁾



그림 1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자협의회 창립총회 모습

결론적으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예를 볼 때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향후 국제 교육인증 상호 협의체(워싱턴 어코드)에 정식 회원국이 되는 것이 국내 공학교육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을 알

6) “국내 공대 졸업생들 국제 인증 받는다”, 사이언스타임즈, 2006.09.18 일자 기사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국제 인증제도의 중요성과 관련 직능분야의 세계화에 따른 기대되는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3) 국가 간 건축학교육인증제도 상호인정

1996년 UIA 바르셀로나 총회에서 건축실무의 전문성에 대한 국제장려기준인 UIA 협정안의 마련을 시작으로 1999년 북경 UIA 총회에서 건축실무의 전문성에 대한 국제적 권고기준에 관한 협정이 채택되어 2002년 7월 베를린 UIA 총회에서 「Architectural Education: Reflections and Recommendation」과 「UNESCO/UIA Validation System for Architectural Education」이라는 두개의 안건이 통과되는 등의 빠른 변화를 보였다.

- ① 1996년 UIA 바르셀로나 총회
 - 건축실무의 전문성에 관한 국제장려기준인 UIA 협정안 마련
- ② 1999년 6월 UIA 북경 총회
 - “건축실무의 전문성에 관한 국제적 권고기준에 관한 협정” 채택
- ③ 2000년 5월 UIA와 UNESCO
 - “UIA/UNESCO 건축교육현장” 공동 채택
- ④ 2002년 7월 UIA 베를린 총회
 - “건축교육 : 이상과 권장”과 “건축학교육을 위한 UNESCO/UIA 인증시스템”도입 의결
- ⑤ 2005년 7월 UIA 이스탄불 총회

지난 2005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2005년 UIA 총회에서는 인증제도의 국제적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UIA의 인증제도가 지난 2003년 베를린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과 제원 조달의 문제점으로 인해 기대했던 것만큼의 활동은 없었다.

그 대신 미국 건축교육인증원(NAAB)를 주축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및 인증단체 간에 인증원 협의회를 구축하여 상호인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며, 이것은 2005년 7월 제 22차 UIA 이스탄불 총회에서 발의되었는데, 총회 7번째 의결 안건인 UNESCO/UIA 건축교육 인증시스템 및 건축교육 상호인증절차에 대한 제안에 수록되었고 총회 투표를 거쳐 통과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 협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초청 대상이 아니었지만 인증 실적은 아직 없어도 이미 인증원이 구성되었다는 주장이 미국 건축교육인증원인 NAAB로부터 적극 받아들여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이어 일곱 번째 초청대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실제로 NAAB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태동 단계에서부터 건축학교육 인증방식의 철학적 배경에 있어서 많은 부분 한국 측의 목표치와 동감하고 있음을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고⁷⁾,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기준 마련에 많은 부분 참고가 되었다.

이 인증단체들은 2006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Conference를 위해 모여 참여 각국 인증원의 상호인정에 대한 원칙과 절차 등에 관하여 협의를 시작하였다.

4)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Conference

한국은 제22차 UIA 이스탄불 총회에서 결정된 대로 국제 건축학 교육상호 인증협의체인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Conference의 초대 공식 회원국으로 초청되었다. 2006년 5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장을 포함한 3명의 대표는 첫 워싱턴회의에 참석하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중국, 멕시코 및 UIA/UNESCO, CAA⁸⁾ 7개국 9개 인증기관의 대표들과 함께 각국 인증원의 상호인정에 대한 원칙과 절차 등에 관하여 협의를 시작하였다. 3일간의 회의 결과 각국이 지니고 있는 건축학교육 인증의 개념적 틀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큰 성과였다. 각 단체의 만장일치 속에 양해 각서에 합의한 바, 이 협의체는 매년 최소 1회씩 지속적 협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추후 협의를 위한 회의가 2007년에는 회원국인 Canada에서 있을 예정이다.(부록참조)

2006년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Conference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정 : 2006년 5월 4일 ~ 6일(2박 3일)

7) Matthews, Executive Director of NAAB, *Legitimacy through Transparency and Outcomes Assessment in Professional Architectural Accreditation*, 국제건축교육심포지엄, 한국건축단체연합/명지대학교건축대학, 2003.11.18, Matthews, *NAAB C&P Updates & The Future of Global Accreditation Agreement*, 국제건축교육심포지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2005.05.31

8) 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

- 장소 : AIA Headquarter, Washington DC, USA
- 회의 목적 : 각국별 또는 기관별 인증 시스템의 상호인정을 위한 각 시스템의 이해, 문제점 파악 및 해결책 모색
- 참가국(기관): 한국, 호주, 캐나다, 중국, 멕시코, 영국, 미국, UIA, UNESCO, CAA
- 회의 안건 - Draft Provisional Agenda(부록 참조)
- 회의 내용 요약



그림 2 회의장 모습



그림 3 한국대표단 모습

<제 1일>

- ①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상호인정을 위한 Washington Accord에 관한 소개 및 질의응답- ABET 담당자 Kate Aberie 발표
- ② 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Professional Accreditors의 "Good Practices" 문건에 대한 검토- NAAB Sharon Matthews 발표
- ③ 각 단체별 인증체제와 건축학교육인증의 개념에 대한 토론 및 질의 및 응답 진행

<제 2일>

- ① 아래 주제를 가지고 발표 및 질의응답, 토론
 - Session 1 - Student Performance
 - Jon Levett, Head of Education, ARB 발표
 - Session 2 - Funding and Governance
 - Sharon Matthews, AIA., Executive Director, NAAB 발표
 - Session 3 - The Quality of Architectural Education within the

Global Context

– George Henderson, CAA Validation Panel Chair 발표

- ② 각 단체별 인증체제와 건축학교육인증의 개념에 대한 토론 및 질의 및 응답 진행



그림 4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Conference

5)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Conference (국제 건축교육인증 협의체 설립회의)의 성과 및 의의

실제적으로는 ARB, NAAB, CAA의 인증제도의 소개가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각 인증제도의 공통점에 대한 이해를 나누었으며, 교육인증의 개념에 있어서 Accreditation 과 Validation의 차이에 대한 여러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 결과 두 개념은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으며, 각국은 서로간의 개념에 대해 대등한 것임에 합의하였다.

또한 각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실질적 인증 효과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토의 결과 모든 회원단체들은 원론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국제 건축교육인증 협의체인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Conference의 최초 워싱턴 회의는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며, 앞으로 지속적 협의를 거쳐 수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회원단체들은 공동으로 희망하였다.

특히,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초대 공식 회원단체로써 향후 협의에서도 협의체 구성원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이것은 공학의 경우,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지난 수년 동안 추구하고 있는 Washington Accord의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한 준회원국의 지위를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이미 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Memorandum of Intent and Understanding(양해 각서)

- 부록 참조

- ① 3개월 이내에 이 양해각서에 대한 동의여부를 보고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였고 관계부수인 건설교통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였다.
- ② Steering Committee(조정위원회) 결성
추후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각 국가별, 기관별로 1인씩 차출하여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대한 위원명단을 6월 초까지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한국(KAAB) 대표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KAAB의 국외담당이사를 선정하여 세부현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2) Memorandum of Intent and Understanding(양해 각서)의 주요내용

-부록 참조

- ① 2006년 5월 4-5일, Washington DC에서 개최된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Conference의 참가자들은 건축학 교육의 인증(Accreditation/Validation)을 책임지거나 관심을 지니고 있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 그리고 세계적인 기구들의 대표자이다.
- ② 참가자들은 여기 참여한 한 시스템에 의해 인증을 받은 건축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이, 해당 지역(국가)의 법에 의해 부가되는 추가 요구사항을 만족할 때,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인증제도 인정에 대한 협정 개발에 대한 목표에 의식을 같이하였다.

- ③ 건축학 교육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국제 의정서가 상기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점에도 합의를 보았다.
- ④ 모든 관계자들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 인증과정들을 포함하여, 여러 시스템들에 실질적인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 ⑤ 따라서 참가자들은 상기 의정서 제정 취지로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 시작된 대화를 계속할 것임을 표명하며 참석자 전원에게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3) 양해각서에 따른 현안

추후 계속 진행될 협의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한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원래 이 협의회 구성 자격인 ‘기설립(established)’된 인증원이라는 조항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인증원이 하루 바빠 인증실적을 내어야 하며 이 인증실적에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외 인증원 관계자들의 인증실사 참관 및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양해 각서의 내용에서 두 번째 문장 중 "subject to additional requirements imposed by local law"(해당 지역(국가)의 법에 의해 부가되는 추가 요구사항을 만족할 때)에서 현재 국내(고등교육법 등)에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증시스템을 갖고 인증원을 운영하는 국가 또는 국제 인증기관 간의 인증시스템의 상호인정을 위한 동향에 따라 최소한 각 프로그램의 인증실사 결과에 대한 영문 요약문을 작성하는 등 대외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증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능동적인 대처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증실사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영문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차기 Round Table Conference 개최일정

- ① 일정 : 2007년 5월 7일 ~ 5월 9일

- ② 장소 : Ottawa, Ontario, Canada
- ③ 대상 : Washington Roundtable Conference 참석 국가 및 기관
 - 7개국 9개 인증기관(Australia, Canada, China, Mexico, Korea,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UIA/UNESCO, 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
- ④ 주관 : CACB: Canadian Architectural Certification Board
- ⑤ 회의 안건 : 양해각서에 따른 세부 사항 협의
- ⑥ 참석자 : 인증원 대표를 포함한 한국 참석대표 3인

3.1.2 국외 인증실사 사례 조사

국외의 인증제도 실사과정 참관을 위하여 대표되는 인증기관인 미국의 NAAB⁹⁾, 영국의 RIBA¹⁰⁾ 그리고 UIA¹¹⁾에 참관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결과로 아래와 같이 인증실사에 참관인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다.

- University of Auckland, New Zealand
- University of Bath, UK
- University of Portsmouth, UK

NAAB의 경우 연구기간 내에 실시되는 인증사례가 없어 차기에 참관기회를 갖기로 하였으며 참관인 자격으로 실사에 참여한 사례의 세부 내용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University of Auckland, New Zealand

- (1) 초청기관 명 : UIA(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 (2) 일 정 : 2006년 9월 19일 ~ 22일
- (3) 참관인 : 이준석, 정진국(세부과제책임연구원)
- (4) 목적 및 개요 :
 - 호주 건축교육인증원(AACA) 주관의 뉴질랜드 NVP (National Visiting Panel) 건축교육인증 현장실사 전 과정 참관.
 - 인증 대상 교육프로그램인 University of Auckland의 건축학교육과정 참관을 통해 해외 우수 건축교육 현장에서 각종 교육관련 정보와 최

9) 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10)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11)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신 건축교육관련 정보를 수집.

- 국제 건축교육인증원 상호인정 협의체인 워싱턴 원탁회의(Washington Round Table Conference)의 정식 회원국인 호주 건축교육인증원(AACA)의 건축교육인증의 방식과 실사 과정의 이해 및 관련자료 취합.
- 2006년 University of Auckland의 인증심사는 뉴질랜드 건축교육 역사상 최초로 기존의 CAA에 의존한 건축교육인증심사에서 벗어나 이웃나라인 호주 건축교육인증원의 심사에 편승한 최초의 건축교육인증심사로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2006년 가을 최초로 실시되는 건축교육인증실사에 즈음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며, 학교 측의 대응과 인증심사단의 활동 내용에 관련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실사 과정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각종 절차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인증원 업무에 활용.
- 국제 건축교육인증원 상호인정 협의체인 워싱턴 원탁회의(Washington Round Table Conference)의 정식 회원국으로써 타 회원국의 건축교육인증 실사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인증원의 국제적 위상 확인.

(5) 실사 일정

■ 실사 1일

- 실사위원 사전 회의
 - 실사 사전회의는 숙박시설 인근 호텔의 회의실을 대여하여 음료와 더불어 이뤄졌음.
 - 인증실사 참여 팀원 각자의 소개와 각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설명.
 - 인증기준으로 사용될 호주 인증원의 인증기준, 전반적인 인증심사과정 소개 및 실사위원의 역할과 주의점, 프로토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각 실사위원의 전공영역 및 희망 분야에 따른 인증 심사항목 역할의 분담
 - 참관인 소개 및 참관인 주의사항 전달
 - 배석한 뉴질랜드 건축사협회의 교육부서담당자에 의해서 본 실사기간 중 참관인은 전혀 발언권이 없음을 주지 받음

■ 실사 2일

- 전시실 참관
 - 전시실참관은 관련 설계 및 이론강좌 교수 대부분의 참여 속에 이뤄

졌으며, 전시실 전시 방법 및 작품들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음.

- 전시실에 전시된 작품들은 모두 최고이수준의 설계 결과물들이었으며, 각 학년별 필수 이론과목들의 강의내용 및 학생 결과물들은 폴더의 형태로 구비되어 있었음.
- 최고이수준이 아닌 각 등급별 이수수준의 작품들의 예는 전시실 벽면 커튼 뒤에 도면함 및 책상 위에 정리되어 구비됨.

- 프로그램 책임자와의 회의

- 건축예술대학의 학장으로부터 대학 내 건축학과교육의 위상과 지원체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향후 지원계획 및 발전목표에 대한 설명을 들음.

- 학과 프로그램 소개

- 학과장으로부터 20분 정도의 분량으로 사전 준비된 학과의 안내 및 홍보성 발표가 파워포인트를 통해 발표됨

- 전시실 안내 및 설명

- 전시실 전시내용은 설계작품 위주였으며, 건축학과의 전반적인 설계교육능력의 시험장과 같은 분위기로, 매우 높은 수준의 전시 효과의 노력을 보이기 위한 노력이 역력히 보임.
- 전시실에 전시된 작품들은 모두 최고이수준의 설계 결과물들이었으며, 각 학년별 필수 이론과목들의 강의내용 및 학생 결과물들은 폴더의 형태로 구비됨.
- 최고이수준이 아닌 각 등급별 이수수준의 작품들의 예는 전시실 벽면 커튼 뒤에 도면함 및 책상 위에 정리되어 구비됨.

- 학과 교수진과의 회의

- 교과구성에 대한 실사팀의 질문 대응 및 교과설명.

- 전시실 실사 업무

- 구비된 자료와 전시물을 자세히 검토하며 심사를 진행함.

- 실사위원 회의

- 하루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심사의 진척과 각자의 확인내용에 대한 토론과 향후 실사일정에 대한 회의 진행.

- 프로그램 책임자 주최 저녁 만찬 참석

- 학교 측의 부담으로 시내 고급 식당에서 저녁 만찬을 대학장의 주최로 진행함.



그림 5 실사위원 사전 회의



그림 6 학과 프로그램 소개



그림 7 실사팀 룸 업무



그림 8 전시실

■ 실사 3일

- 실사위원 회의
 - 당일 실사내용에 대한 회의
- 시설 참관
 - 설계실, 작업실, 목공실, 건축학과 도서관, 각종 실험실 및 이론 강의와 설계 강의 참관
- 부총장 접견 및 회의
 - 학과교수진 배석 없이 부총장과 실사팀 단독 접견 진행
 - 대학교 운영의 책임자인 부총장 접견
 - 건축학과의 발전계획과 운영 현황 점검
 - 건축학과의 장단점 파악, 발전 방향 모색 검토

- 전시실 실사작업 및 강의 참관
 - 학생과의 만남
 - 건축학과 교과과정의 특징과 장단점 질문
 - 재학 중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향후 진로에 대한 경향 질문
 - 교과과정에 대한 제안이나 건축학 교육의 전반적인 이해도 파악
 - 실사위원 보고서 초고작업
 - 각자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맡은 부분에 대한 심의내용을 서술하며 보고서 초고작업 수행
 - 실사위원 회의 및 저녁 식사



그림 9 스튜디오 방문



그림 10 스튜디오 방문



그림 11 강의 참관



그림 12 물리적 시설

■ 실사 4일

- 실사위원 회의
 - 당일 일정 개시에 앞서 실사수행 일정 확인 및 향후 세부계획 수립

- 프로그램 책임자와의 회의
 - 실사결과 정리 및 보고
 - 보고서 초고작업 내용 공개
 - 전반적인 실사결과의 내용에 대한 학과 측과의 합의 형성
 - 보고서 초고를 학과 측에 전달하고, 2-3시간 동안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함
 - 오후 정해진 시간에 학과 측에 의해 확인 및 검토가 마무리된 보고서에 실사위원 전체의 자필 서명이 있을 것임을 설명함.
- 실사결과 전체 설명회
 - 재학생, 교수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사결과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며, 실사팀이 추천하는 인증심사의 최종 결과를 공개함.
- 교직원과의 점심식사
- 실사보고서 완성 및 실사위원 확인 서명
 - 보고서 초고 내용에 심각한 수정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학과 측의 합의 하에 실사위원 전체는 보고서에 자필 서명으로써 실사 과정을 마무리함.
- 학교 주최 리셉션 참석
 - 오후에 재학생, 교수진 모두가 초대된 학과 주최 리셉션(저녁을 대신할 수 있는 간식 수준)에 실사위원 개인자격으로 자발적으로 참석함.



그림 13 실사결과 전체 설명회



그림 14 실사결과 전체 설명회

(6) 실사 참관 총평

- 각 단체를 대표하는 실사위원 총 9인으로 구성된 실사위원들은 인

증기준에 의한 프로그램 실사를 위해 세부적인 역할분담에 의해 정밀하고 구체적인 심의과정을 수행함.

- 미국 건축학교육인증의 경우와 유사한 점으로는 실사의 전반적인 방식이었으며, 실사 일정의 구성 또한 많은 유사점을 보여줌.
- 호주 인증원에 의한 인증기준은 대학측이 준비하는 자체평가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항목을 제시해 줌으로써 대학 측이 간결하면서도 상세한 항목들을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서술하게 유도함.
- 미국이나 한국의 인증기준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 점은 호주의 경우 프로그램 인증기준의 세부 항목들으로써, 건축학 전공 영역별로 구체적인 교육수행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사위원들이 정확히 나뉜 전공영역별로 교육 인증 심의를 수행하도록 유도함.
- 대학 측이 준비한 자체평가 보고서는 실사위원들에게 실사시기의 약 2주 전에 배포되며, 자체평가 보고서에 대한 사전 심의과정이 없음.
- 실사팀의 최종심의 결과의 모든 것들과 실사팀의 인증원과 건축사협회에 대한 인증결과 권고의 내용까지 모두 실사 설명회를 통하여 공개되며, 작성된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검토 후 실사위원들의 확인 서명을 함.
- 뉴질랜드 건축사협회의 교육담당 책임자는 실사의 전 과정에 배석하며, 모든 회의의 내용, 보고서 작성 등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형식의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조함.
- 호주 인증실사의 경우 참관인의 규모는 최소한으로 제한되며, 관행적으로 참관은 일체의 의견노출이나 토론 참여가 금지됨. 심의과정에 있어서도 일체의 역할분담은 허락되지 않으며, 발언권 또한 주어지지 않음.
- 일반적으로 참관절차는 거의 일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호주 인증원의 실사 수행이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와 달리 상당한 폐쇄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련의 실사진행 과정과 내용을 볼 때, 미국의 실사 방식과 전반적인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호주 방식의 경우 세부적인 수행기준, 실사보고서 작성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추후 연구함으로써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규준을 세부화 하는데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전반적인 인증수행 과정의 기준에서 보여 지고 있는 국내 인증과정과의 차이점을 추후 연구함으로써 각 장단점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채택한 미국 인증과정과의 비교 또한 매우 유효한 추후 연구가 될 것으로 보임.

2) University of Bath, UK

- (1) 초청기관 명 :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 (2) 일정 : 2006년 10월 18일 ~ 20일
- (3) 참관인 : 류전희(세부과제책임연구원)
- (4) 목적 및 개요 :

2006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영국의 로마시대부터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인 Bath의 바스대학교(University of Bath)의 공학디자인학부(Faculty of Engineering and Design)에 소속된 건축토목학과(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Civil Engineering) 건축학과정 실사를 참관인으로 참석하였다.

영국의 건축학과정은 형식과 기간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것과 차이가 많은데 실사도 우리의 사례보다 일정이 짧지만 집중적으로 효율성있게 진행되었다.(2박 3일, 10/18일~ 10/20일)

영국 건축학제는 크게 Part I(4년 Bsc.in Architecture), Part II(M. Arch), Part III(Examination in Professional Practice & Management)로 나뉜다. 바스대학교는 Part I~III 모든 프로그램을 이번에 인증실사 받았으며 그 학위명은 아래와 같다.

- a. BSc in General Architecture Studies (Part One)
- b. M.Arch Master of Architecture (Part Two)
- c. Examination in Professional Practice & Management (Part Three).

통상적으로 Part I 의 경우는 영국내의 다양한 건축학 관련 프로그램을 실사하여 인증되면 그 프로그램을 졸업한 학생들은 최소 1년의 실무수련을 거친 뒤 Part II로 입학하게 된다. 따라서 이 때 학생들의 이동이 자유롭게 일어나며 모든 건축학교들이 Part I, II, III를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별 특징점에 따라서 특화될 수 있다. 학생들은 Part II를 졸업하면서 최소 1년의 실무를 거친 뒤 Part III로 진학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건축사면허시험 과정이며 이를 실무분야가 아닌 학교가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영국 교육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이다.

반면 미국식으로 학교는 집중적으로 교육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이수하게 한 뒤 이를 졸업한 학생들의 수행능력을 교과과정의 결과물들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인증을 진행한다. 그리고 실무훈련은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졸업한 학생들이 실무분야로 나가 인턴쉽을 2년간 거치게 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Validation System은 학교교육과 실무가 병행하여 진행되며 학교가 건축사자격시험을 대행할 수 있도록 실무분야와 학계, 전문가 집단이 같이 관여해서 공익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를 위해 비건축분야의 전문가와 학생대표가 심사단에 포함되어 객관적 관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5) 실사 과정

■ 사전 점검 회의 Preliminary Planning Meeting

- RIBA 실사팀의 실사일정 10월 19/20
- 실사대상은 아래 프로그램들의 재실사
 - a. BSc in General Architecture Studies (Part One)
 - b. M.Arch Master of Architecture (Part Two)
 - c. Examination in Professional Practice & Management (Part Three).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Critical Self-Appraisal)

- CSA는 실사위원회에 2006,09,13일 까지 제출할 것
- RIBA는 CSA 작성과정에 학생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권고하되 정해진 방법은 없다.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초고를 읽고 의견을 듣거나, 혹은 학생들이 일정부분을 기술하게 하거나, 일부는 별도 문서를 기술하게도 한다. 반드시 학생들의 기여정도를 명시하도록 한다.

- 학생들의 관여가 학기별 실사일정에 따라 용이하지 않을 경우, 특히 가을 실사는 학기가 시작된 후 바로 진행되므로 학생들이 CSA 제출시까지 CSA를 자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 실사직전까지라도 학생들의 의견서가 제출될 것을 권장한다.

■ 주요문서 제출(Submission of the main documentation)

- 학교 측은 이 문서들을 실사 3주전에는 실사단원들에게 발송할 것이다.(2006년 9월 25일 주간). RIBA는 주소록을 제공한다.
- 교과과정 관련문서는 교과과정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평가된 성과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변경될 교과과정은 자체평가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 미리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목록
 - 자체평가보고서
 - Parts 1, 2 and 3 학생편람
 - 프로그램의 구조와 내용.
 - Parts 1, 2 and 3 교과과정 서류
 - 학교 안내 책자
 - 외부감독관 보고서
 - Cohort analysis
 - 내부평가문서
 - 교수진의 간략한 이력서 Staff CVs (short CVs: 자세한 이력서는 팀룸에 비치할 것)
- 대학 측의 문서는 팀룸에 비치한다. 프로그램 측은 인터넷 연결주소를 비치하여 실사단이 원할 경우 사이트들을 통해 더 접근이 가능토록 한다.

■ 실사 팀 룸(Base Room)

- 프로그램측은 Seminar Room 2.7을 팀룸으로 제공한다. 그 방은 안전하고 잠글 수 있으며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컴퓨터와 대학의 정책자료가 구비되도록 하며 쉬는 시간에 차, 음료, 간식 등이 구비되면 좋다.

■ 대학 총장과의 면담(Meeting with the Head of Institution)

- 이것은 부총장이 참석하며 대학의 구조에 따라 학장이 참석할 수 있다.
- 대학 총장과의 면담은 부 총장실에서 열릴 것이다. 건축학과와 근거리이므로 스케줄 상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림 15 바스대학교 부총장과의 회의



그림 16 프로그램대표들과의 회의

■ 프로그램 대표와의 면담(Meeting with the Head of School)

- 건축학과가 건축학과 토목의 조인트 학과이므로 건축학 프로그램 대표 Vaughan Hart 교수와 건축 및 토목공학 학과의 대표인 Timothy Ibell 교수와 같이 15분간 면담한다.

■ Institutional Head of Quality Assurance 와의 면담

- 대학이 위임된 QA(Quality Assurance) 체제를 갖추어 운영하는 것은 학부 또는 단과대학이 QA가 추구하는 목적에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전시(Exhibition)

- 전시는 실사단이 교과과정의 구조를 이해하고 단계별로 학생들의 발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개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Part 3의 경우는 전시를 통하여 학생들의 작품수준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 이 부분은 과다하게 전시되는 경향이 있다. RIBA는 일정을 준수

하고 모든 설명과 안내가 조리정연하고 간명할 것을 요구한다. 각 학년별 튜터와 과목별 코디네이터가 각 학년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한다.



그림 17 건축학과 로비를 사용한 전시 그림 18 Part I의 2학년 2학기 설계모형

■ 행정담당자와의 면담(Institutional Facilitator)

- 행정담당자의 임무에 대한 추가적 정보는 RIBA 인증절차 문서 부록 10에 있다. 이 임무는 종종 학과 또는 학부 행정담당자 또는 QA 사무실의 담당자에 의해 부여된다.

■ 시설 견학(Tour of the facilities)

- 실사팀은 그룹으로 나뉘어 스튜디오, 작업장, 도서관, 연구실 등 다양한 시설들을 탐방한다. 담당직원들이 안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도서관의 경우 해당분야 사서를 만날 것이 권장된다. 프로그램 측은 시설별로 적정한 담당 직원들은 교육, 연구활동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림 19 전시중인 건축학과 로비

그림 20 4학년 설계실

그림 21 구조실험실

■ 외부 감독관들과의 면담(Meeting with External Examiners and Professional Examiners)

- 실사팀은 50%의 외부감독관들과 만나야 한다. 바스의 경우 4명의 평가위원들이 모든 과정을 평가한다. 또한 가능한 Part 3의 전문 감독관은 책임자가 참석하는 것이 권고된다.

■ 학생들과의 면담(Meeting with students)

- 실사팀은 모든 학년의 대표와 1년간 인턴나간 학생까지 포함하여 참석하도록 한다. 최소한 공식적인 학생대표는 참석할 것이며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도록 한다. 교수진은 배제된다.



그림 22 학생들과의 대화



그림 23 학생들과의 대화

- 프로그램측은 이 면담이 전시가 되고 있는 평가실에서 열릴 수 있도록 주선하며 회의 후 전시를 원상 복구한다.

■ 교수진과의 면담(Meeting with staff)

- 실사팀은 첨부된 교과목의 교수진을 가능한 많이 만나도록 한다. RIBA는 강사나 시간제 직원이라도 가능한 참석을 권장한다. 인사 담당자도 참석할 것이다.
-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의 대표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그녀가 교육에 비중있게 관여할 경우 동료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점에 참석가능하다. 이 회의는 평가실에서 열릴 것이다.



그림 24 교수진과의 면담



그림 25 교수진과의 면담

■ 포트폴리오 심사(Inspection of portfolios)

- 실사팀은 2005/2006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실사한다.



그림 26 포트폴리오 심사하는 방



그림 27 Part I 2학년 학생의 포트폴리오

- 프로그램은 매년 모든 과정의 3개 최저성적, 2개 중간성적, 2개 최상위 성적의 포트폴리오를 구비하여야 한다. 학생수가 매해 70명을 초과할 경우 10%의 포트폴리오를 구비하여야 한다. 바스의 경우 어떤 해에 70명을 약간 상회하는 경우가 있으나 RIBA는 통상적인 3+2+2 샘플로도 충분하다고 동의하였다.

-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비하여야 한다.

a. BSc in General Architecture Studies (Part One)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3개의 최저평균 학생, 학교가 선택한 2개의 평균성적 및 2개의 최고 성적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이 중 4학년 학생들의 3개 최저성적 사례는 2-4학년의 전체 작품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합의 됨)

b. M.Arch Master of Architecture (Part Two)

5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3개의 최저평균 학생, 학교가 선택한 2개의 평균성적 및 2개의 최고 성적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이 중 6학년 학생들의 3개 최저성적 사례는 5-6학년의 전체 작품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함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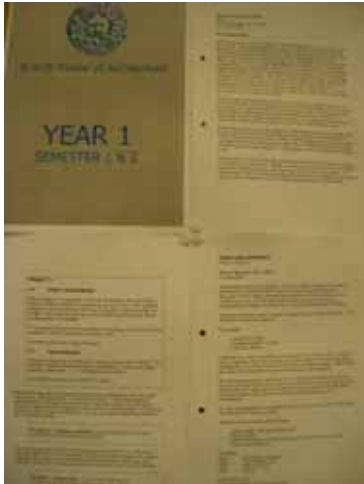


그림 28 Part II의 전시



그림 29 Part II의 전시



그림 30 Part II의 논문들

c. Examination in Professional Practice & Management (Part Three).

3개의 최저평균 학생, 2개의 평균성적 및 2개의 최고 성적 학생 평균 성적이 없다면 프로그램 측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한다. Part 3의 제출물들은 총체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모든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PEDR 회신물, 사례조사, 자기소개서, 시험지, 구술시험 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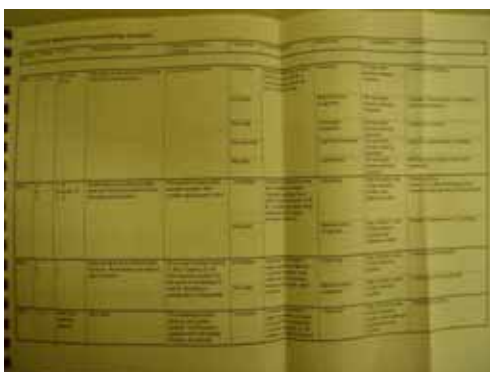


그림 31 Part III의 건축사시험 결과물



그림 32 PartIII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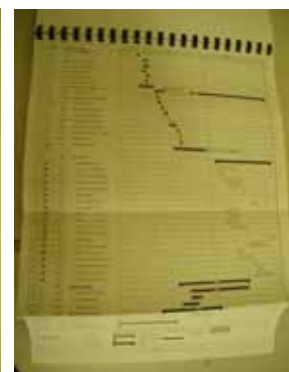


그림 33 PartIII의 전시

- 포트폴리오는 Seminar Rooms 2.5 and 2.6.에 비치될 것이며 이 방들은 안전하고 잠글 수 있으며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점심식사 10월 19일

- 점심식사는 일반적으로 샌드위치나 간단한 뷔페로 준비된다. 이날 점심을 통해 실사팀은 오전에 만났던 교수진들과 대화할 수 있다. 프로그램 측은 참석자를 결정할 수 있다. 장소는 전시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 점심식사 10월 20일

- 프로그램 측은 초청인사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다양한 인사들-실무가, 학생, 교수진 및 관련 행정직원 등을 포함한다. 장소는 전시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 숙소 및 편익

- 숙소의 결정 및 지불은 RIBA가 담당한다. 호텔 및 레스토랑에 대한 학교 측의 추천을 권장한다.

■ 비용

- 실사팀의 여행, 호텔, 아침, 저녁식사비용은 RIBA가 부담한다. 2004년 9월 이후 모든 실사팀원이 재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재실사 비용은 학교 측이 부담한다.

■ 실사팀 보고서 공개

- 2004년 9월 이후 발생한 모든 실사관련 보고서들은 RIBA website에 올라져 있으니 참고할 것.

3) University of Portsmouth, UK

- (1) 초청기관 명 : RIBA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 (2) 일정 : 2006년 11월 22일 ~ 24일
- (3) 참관인 : 최재필(세부과제책임연구원)
- (4) 목적 및 개요 :

2006년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영국 남부 항구도시인 포츠머스의 University of Portsmouth를 방문하여 Faculty of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에 소속된 School of Architecture의 건축학과정 실사를 참관인으로 참석하였다.

영국의 건축학교육 학제는 앞서 University of Bath 보고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단, University of Portsmouth의 경우는 제공되는 학위명이 University of Bath의 학위명과 다르다:

- BA(Honours) Architecture (Part One)
- Diploma in Architecture (Part Two)
- The Final Examination in Professional Practice (Part Three)

(5) 실사 과정 상세보고

- 2006년 11월 22일
- 18:15-20:30 실사팀 자체회의 (호텔 회의실)
- 실사팀 구성원의 소개
 - Martin Symes, Professor, University of the West of England 교수 (실사팀장)
 - Angie Pascoe, Lecture,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 Mark Way, Architect, Construction Industry Council, London
 - Scot Masker, Local Architect Member, Pro Vision Ltd, Hants
 - Hillary Lade, Non-Architect, Youth Hostels Association
 - Alice Fong, Student Member, University of Bath
 - Stephanie Beasley-Suffolk, Secretary, RIBA
 - Jaepil Choi, Observer,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여기서 KAAB이나 NAAB의 실사팀 구성과 다른 것은 인증기관인 RIBA에서 파견된 비서가 있다는 것인데, 비서는 인증실사 전체과정에서 서기의 역할을 하며 또한 인증과정에서의 규정 등의 적용을 위한 조연자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 실사팀원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and Practice) 확인
- 실사 중 실사팀원의 책무와 적절한 행동에 관한 규정을 읽어왔는지

확인하였다. 그 중 특별히 강조된 것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질문은 실사팀장과 상의한 후 할 것
 - 예단적인 코멘트는 삼갈 것
 - 실사팀원의 모든 토론내용은 confidential 함.
- 6인의 정식 실사팀에게만 투표권을 인정하기로 함. 즉, 참관인과 비서에게는 투표권이 없음을 확인.
- 이번 실사부터 ARB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함. 그러나 실사보고서는 ARB에도 제출될 것임.
- University of Portsmouth의 특징에 대해 언급
- 학부 1학년은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그램과 공동운영함
 - Part Three와 MA 과정도 공동운영함 (물론 구별이 됨)
- External Examiner와의 회의가 중요시됨. External Examiner 제도는 영국 대학교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년 대학교 밖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학교육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는 제도임.
- 프로그램측에서 제공한 문헌을 검토한 결과, 교원들의 이력서가 추가로 요청할 것을 결정함. 모든 필요문서는 Base Room에 있거나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Web으로 볼 수 있음.
- 다음날 대학교 부총장, 학부장 및 프로그램 대표와의 면담에서 할 질문을 마련함. 부총장과 학부장에게는 작년에 신설된 Faculty of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 내에 School of Architecture가 속해있는 것에 대해 질문하기로 하고 이 질문은 누가 할 것인지 등을 정함.

이 첫 번째 실사팀 회의는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환담을 나누는 회의가 아니고, 매우 진지하게 진행되었으며, 추후 프로그램측과의 회의시의 아젠다를 설정하는 등 매우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인 토론이 진행됨.

■ 20:30-22:30 실사팀 저녁 식사 (호텔식당)

실사팀만의 저녁 식사. 여기에서는 개인적인 환담이나 RIBA의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교환 등이 이루어짐.

■ 2006년 11월 23일

■ 08:45-09:00 실사팀 Pre-Meeting (Base Room)

지난밤의 논의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 - 질문의 내용, 순서, 누가 질문할 것인지 등



그림 34 실사팀 Pre-Meeting

■ 09:00-09:30 부총장 및 학부장과의 면담 (Base Room)

School of Architecture에 대한 대학교 차원에서의 비전과 목표, 연구 활동, 등록금의 배분 등에 대해 진지하고 사업적인 분위기에서 토론함. 질문은 공손했지만 내용 자체는 straightforward했고 학교대표들은 약간은 방어적으로 대답함.

■ 09:30-10:15 프로그램 대표(Head of School of Architecture)와의 면담 (Base Room)

면담에 앞서 실사팀장은 인증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 언급하고, 이어 실사팀 보고서에 대해서도 그 내용과 작성절차 등에 대해 대표에게 설명함. 프로그램 대표에게는 School of Architecture의 비전, 졸업생 취업능력을 위한 교육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인가 아니면 창의적 능력의 배양인가), 학생들의 분위기, 연구활동, 대학교 차원의 지원 (특히 공간문제에 있어서), 학생 수 (특히 해외학생의 수가 중요하다고 인지함) 등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짐.

실사팀의 면담 준비는 매우 철저했으며, 이를 위해서 실사팀만의 짧은 회의가 여러번 필요하며, 이것이 실사일정에 적절히 삽입되어 있긴 하지만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

■ 10:25-10:45 교육의 질 확보 (Quality Assurance) 담당 부학부장과의 면담 (Base Room)

건축설계교육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논의 (특히 Part Three 과정에 대해서). External Examiners의 활용에 대해 토론함.

■ 10:45-12:30 학생설계작품전시 (3층 회랑)

1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설계수업 내용과 학생작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각 학년 담당교수가 나와서 설명함. 패널과 모델 전시는 우수작품에 한정됨. 매년 설계스튜디오와 강의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진행되며, 이러한 사실이 전시패널에 잘 보여지고 있다.

■ 12:30-13:00 수업참관, 시설견학 등

시간의 제약으로 스튜디오, 강의, 도서실, 모형제작실, 전산시설, 연구활동으로 실사팀이 나누어져서 각각을 참관함.



그림 35 학생설계작품 전시 및 설명



그림 36 학생설계작품 전시 및 설명

■ 13:00-14:00 점심식사 (3층 회랑 브릿지)

교수들과 실사팀이 샌드위치와 음료로 된 점심식사를 함께함 (cocktail party 형식). 여기서 실사팀원은 각자의 관심사를 책임자와 함께 자연스럽게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됨.



그림 37 Lunch with Staff Membes

■ 14:00-14:20 실사팀 자체회의 (342호실)

점심식사 시간에 교수들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공유. 곧 이어질 학생설계작업 검토 방법에 대한 의견교환.

■ 14:20-16:50 학생설계 portfolio 검토 (342호실)

미리 제공된 checklist를 사용하여 학생설계작품들 수행평가기준 만족 여부를 검토.

학생설계작품은 각 학생별로 portfolio를 준비하여 놓았음. 이 portfolio에는 설계 프로젝트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모든 sketch, schematic drawings, final drawings 등이 설계담당교수의 지적사항과 함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잘 정리되어 있음. 강의과목의 보고서, 시험문제 답안지도 함께 들어있음.



그림 38 학생 별 portfolio



그림 39 Meeting with External Examiners

Portfolio는 High Pass, Middel, Low Pass의 세 종류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따로 테이블 밑에는 Fail을 받은 portfolio도 있었음. Portfolio 내용을 살펴 본 결과, 디자인 스튜디오의 내용과 강의과목의 내용이 매우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짐. 예를 들어 학생들은 자기 디자인을 가지고 환경분석, 구조설계를 수행함. 디테일과 construction drawing skill을 강조함. 2학년에서부터 시공도면, 상세도면을 그리게 함.

총 6개 학년의 portfolio 분량이 너무 많아 팀을 3 그룹으로 나누어 Part One, Two, Three를 각각 검토한 후 서로 바꾸어서 다른 part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략을 짬. 학생평가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평가하는 것 같지 않고, 주로 Low Pass를 받은 portfolio 위주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짐.

■ 17:20-18:20 External Examiners와의 회의 (220호실)

External Examiners와 진지한 토론. 예를 들어, 평가기준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건축가 양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표명하거나, 취업에 적절한 교육 문제 등으로 고민하기도 함.

■ 18:20-18:50 학생 portfolio 검토 (342호실)

학생 portfolio 검토를 재개함. 이때는 Low Pass portfolio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초기에 F 받은 학생을 추가 과제 등을 통해서 Lowest Pass로 구제해 주는 프로그램의 방안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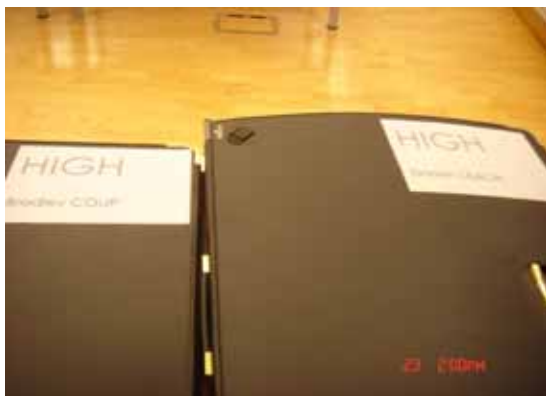


그림 40 학생 성과물 전시



그림 41 학생 성과물 전시



그림 42 학생 성과물 전시



그림 43 학생 성과물 전시

그림 44 학생별 평가표

- 18:50-20:50 실사팀 저녁식사 (시내 식당)
역시 실사팀만의 저녁식사가 이루어짐.
- 2006년 11월 24일
- 08:50-09:40 실사팀 자체회의 (Base room)
 - 학생과의 대화에서 제기할 질문 선정 및 누가 질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
 - 주요 이슈로 도서관, 스튜디오 공간문제, 교수와의 시간 등을 선정.
 - 대화진행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 예를 들어, 학생들 고유의 아젠다가 있다면 그것을 허용하는 것과 자기주장이 매우 큰 학생을 통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
 - 또한 학생들과의 대화 내용은 철저히 대외비로 지켜질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동의.

- 학생 실사팀원인 Alice Fong이 주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
- 09:45-10:45 학생들과의 대화 (126호실)
 - 강의실 형태로 배치된 책상, 의자를 원형으로 재배치함.
 - 교직원이 참여하였는지 확인 (없었음).
 - 각 학년별로 최소한 한명씩은 참여하였는지 확인. 약 30명의 학생 참여.
 - 학생들 자신의 아젠다가 있는지 확인.
 - Alice Fong이 의장을 맡음.
 - 미리 선정된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 진행됨.
 - 아주 informal한 분위기 조성.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함.



그림 45 Meeting with Students



그림 46 Meeting with Staff

- 11:00-12:30 교수와의 대화 (142호실)
 - School of Architecture 소속 전 교수가 참석. 명예교수 2인도 참여
 - 명예교수를 포함한 몇몇의 prominent한 교수들만 발언함.
 - 전반적으로 실사팀이 미리 마련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교수들의 답변을 들음. 예를 들어, 건축학교의 목적과 목표, 교과과정 내에 창의적 혹은 도발적 아이디어를 북돋우기 위한 여유가 있는지? 물리적 자원의 여유?
- 12:30-13:30 점심식사 (3층 회랑 브릿지)
 - 전날과 마찬가지로 형식으로 진행됨.
 - 교수, 학생들과 자유롭게 서서 점심식사.

■ 13:30-14:40 학생 portfolio 검토 계속 (342호실)

문제가 되었던 portfolio에 대한 교수의 설명을 청취 (문제학생의 배경 청취 및 F에서 Low pass로 수정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 - 낙제점을 받은 학생은 “referral”를 이용해서 summer vacation에 다시 작업을 한 후 그것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것은 대학교 전체의 policy이다.



그림 47 학생 portfolio 검토

이 문제학생 작품을 아주 세밀히 보면서 지도교수와 실사팀원들이 서로 토론함. 지도교수가 이 학생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음. 그러나 토론이 마치 재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만큼, 진지하였음.

■ 14:40-17:15 실사팀 최종 회의 (Base room)

- 이제까지의 실사를 근간으로 인증의 최종결정을 내리고, 실사보고서를 작성함.
- 우선 Part One에 대해서 각 실사팀이 돌아가면서 자기의 결정을 발표함. 이어서 Part Two, Part Three에 대해서도 그렇게 함.
- RIBA Documentation 중 Appendix 13(실사보고서 형식)을 펼쳐놓고 한줄씩 읽어 가면서 결정해야 할 것은 결정하고 넘어가는 형식 유지.
- 이어서 각 레벨별로 Recommendation과 Advice 할 것들에 대해서 토의함. Recommendation은 다음번 실사까지 프로그램측에서 실제로 고쳐야 할 사항이며, Advice는 말 그대로 충고 사항일 뿐, 이 말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임.
-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recommendation and advice를 작성함. 거의 한 문장씩 만들어 나감.
- 실사보고서 최종본은 RIBA에서 파견된 비서가 작성하여 서로 돌려보기로 함. 이 비서의 존재는 매우 유용함. 바쁜 일정 속에서 실사팀원이 회의록, 메모 등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됨.

- 이 회의 종료 시점이 실사팀의 해산 시간이 됨. 실사팀장 및 비서, 참관인을 제외한 다른 팀원들은 바로 기차역으로 출발함. 당일로 귀가하는 것임.
- 17:15-17:45 실사팀 대표 및 프로그램 대표 회의 (프로그램대표 사무실)
- 실사팀 대표는 실사팀의 결정을 프로그램 대표에게 통보함. 이때 recommendation and advice도 언급함. 또한 그간의 준비에 대해서도 치하함.
- 이것으로 공식적인 인증실사가 종료됨.

3.2 국내 건축학 교육기관의 물적 인적 현황조사

개설년도	개 설 대 학	대학 수	전문대학원*
2002년	강원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계명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선문대학교, 세종대학교, 순천대학교, 여수대학교,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양대학교(서울), 한양대학교(안산),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서울)	42	경기대 (1995년) 건축전문대학원 건국대 (1996년) 건축전문대학원 국민대 (199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2003년	경남대학교, 경원대학교, 경일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전대학교, 동신대학교, 밀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서울), 중앙대학교(안성), 창원대학교, 충주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22	한양대 (2000년) 건축전문대학원 영남대 (2001년) 건축디자인대학원
2004년	경주대학교, 관동대학교, 동서대학교, 삼척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	경희대 (2002년) 조경전문대학원
2005년	광주대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 서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홍익대학교(조치원)	5	
2006년	진주산업대학교	1	
2007년	경희대학교	1	
예 정	남서울대학교, 대진대학교, 동해대학교,	(3)	
합 계		75(3)	6

표 1 건축학과(5년제)및 전문대학원 개설(예정) 대학

- 2006년 말 현재 -

* 건축전문대학원 중 일부는 일반, 특수대학원으로 전환하였지만 M.arch 학위 수여

상기의 표와 같이 국내에서는 WTO 가입과 건축분야 서비스 시장의 개방 등 국제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많은 대학들이 건축학 교육제도 개편을 단행하여, 과거의 4년제 건축교육 제도를 5년제로 급속히 개편하였다. 2002년 42개 대학에서 5년 전일제 건축학 전문학위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였고 2003년에 22개 프로그램, 그리고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각

각 5개 프로그램,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각 각 1개 프로그램이 개편을 하여 건축학 전문 석사과정 6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2006년 말 현재 총 81개 건축학 전문교육과정이 운영 중에 있다.

3.2.1 국내 건축학 교육기관의 물리적 현황 조사

국내 건축학교육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인증원 자체에서 조사한 내용과 각 종 신청서류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였다. 하지만 국내 여건상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자료 공개에 따른 불이익, 즉 수험생이 학교를 선택 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등에 대한 우려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 시설 현황 자료와 학생 현황 자료에 대한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학생 현황에 있어 건축학 외에 건축공학 학생들이 학과 구분 없이 혼재 되어 있어 명확한 현황조사가 이루어 질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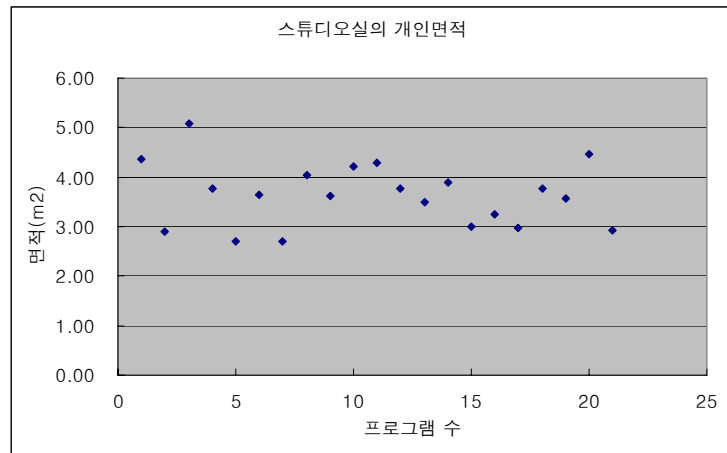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는 21개 프로그램의 조사 자료를 근거로 통계치를 작성하였고 무기명 처리 하였다. 비록 대상 프로그램 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조사 연구를 통해 국내 건축학 교육기관의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체계적이고 명확한 조사를 위한 별도의 조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물리적 자원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항목으로 크게 각 학년 별 스튜디오(설계실)의 면적 및 자리수에 따른 개인면적 산정과, 컴퓨터실, 모형제작실, 학과도서관, 사진스튜디오, 세미나 및 회의실로 세분화 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스튜디오(설계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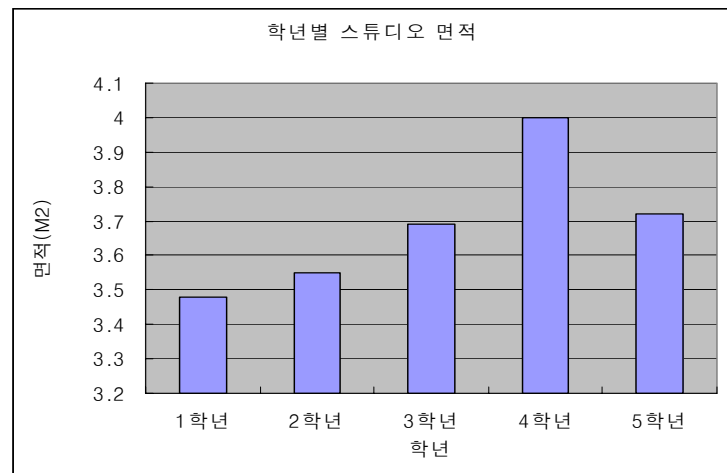
통계처리 한 21개 프로그램의 전체 면적 대비 자리수에 의한 학생 개인당 면적은 $3.0\text{m}^2 \sim 4.3\text{m}^2$ 규모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학생 개인 당 스튜디오 면적 평균은 약 3.64m^2 로 나타났다.

그림 48 스튜디오실의 개인면적 분포



이를 학년 별로 구분하여 보면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면적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졸업작품 등 설계비중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4학년의 경우에서 가장 높은 면적을 갖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그림 49 학년별 스튜디오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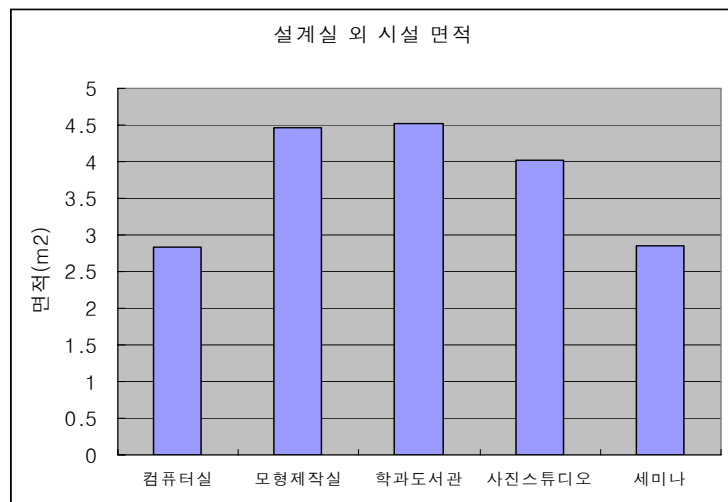


2) 스튜디오 외 물리적 시설 현황

스튜디오 외에 컴퓨터실, 모형제작실, 학과도서관, 사진스튜디오실, 회의실 및 세미나실 면적 분포는 아래와 같다. 컴퓨터실의 경우 모든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학생 1인당 약 2.84㎡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모형제작실의 경우 평균적으로 학생 1인당 약 4.46㎡의 면적을 갖추고

있는데 이 중 3개 대학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설계실과 혼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 개인당 약 4.46㎡의 면적은 스튜디오 개인 면적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 모형제작실의 평균 자리수가 약 16명 정도 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 면적 비율이 크게 보이는 현상이다.

그림 50 설계실 외 시설 면적



학과도서관 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학생 1인당 약 4.51㎡의 면적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사 대상 프로그램 중 4개 프로그램에서는 학과도서관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별도의 도서관을 구비하여 운영 및 유지하는데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결과로 보이며 이 경우 중앙도서관으로의 접근성에 대한 배려와 이용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아직 전문학위 프로그램이 정착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사진스튜디오의 경우 9개 프로그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디지털 매체 이용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매체의 이용에 따른 시설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세미나 및 회의실의 경우 학생 개인 당 면적 평균은 2.86㎡ 규모를 갖고 있으며 조사대상 중 5개 프로그램에서 별도의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물리적인 현황에서 볼 때, 물리적인 면적이 프로그램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면적의 협소 등으로 인한 문제보다는 시설 제공의 유무에서 문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증제도의 시작 시점에서 나오는 경과적인 문제들로 인증제도 정착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각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환경적인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별 프로그램만의 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체제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증원 차원에서 대학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협조를 위한 요청과 인증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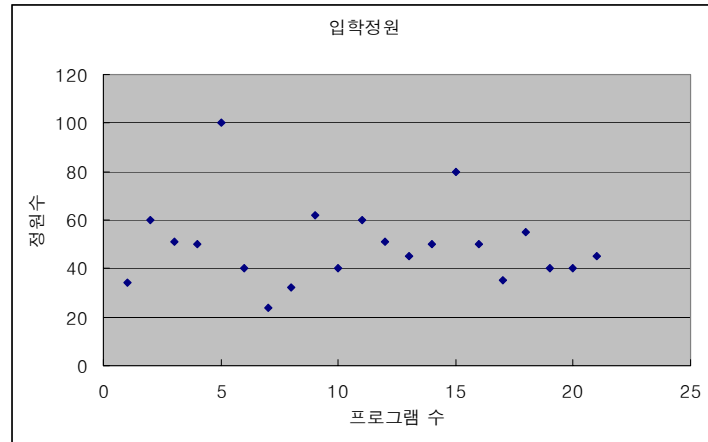
3.2.2 국내 건축학 교육기관의 인적 현황 조사

국내 건축학 교육기관의 인적현황 파악은 크게 현 재학생수와 교수 수 그리고 교수 대 학생비율을 조사하여 현황 파악을 해보았다. 하지만 조사 과정 또는 기존의 참고 자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으로 5년제 프로그램 개편으로 인한 과도기적 산출의 어려움과 국내의 여건상 저학년에서의 학부제 운영으로 정확한 산출을 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학생수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정보제공을 꺼리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1) 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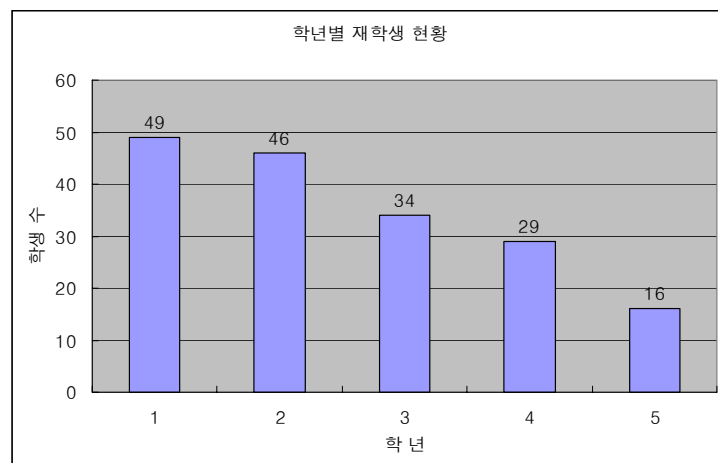
학생 현황은 크게 입학정원과 각 학년별 재학생 수 및 학년별 재학생과 휴학생의 비율 그리고 구제도학생 수로 나눌 수 있다. 특히 5년 전일제 건축학 전문학위 프로그램으로 개편하면서 과도기 현상으로 나타나는 구 제도학생의 경우 대부분이 복학생으로서 4년제로 입학하여 5년제 프로그램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의 경우 건축공학과 건축학으로 분리 운영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5년 교과과정 내에서 4년 교과과정만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학생과 5년 교과과정으로 편입하여 부족 교과과정을 별도로 이수해야 하는 학생 등이 혼재되어 있어 학생 개인 교과과정의 관리가 별도로 필요하다. 우선 조사대상의 5년제 프로그램으로의 개시 연도는 2002년도 개설 프로그램이 18개, 그리고 3개의 프로그램이 2003년에 개설하였다. 입학 정원을 살펴보면(그림 51) 평균적으로 약 50명 정도의 정원규모를 갖고 있었다.

그림 51 입학 정원 규모



학년별 재학생 현황을 보면 현재 국내에서 최고 학년인 5학년의 경우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약 16명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학년별로 1학년에서 정원 규모인 49명, 2학년에서 46명, 3학년에서 34명, 4학년에서 29명으로 그림 52에서 알 수 있듯이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어 휴학생의 비중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며 여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군 입대 휴학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52 학년별 재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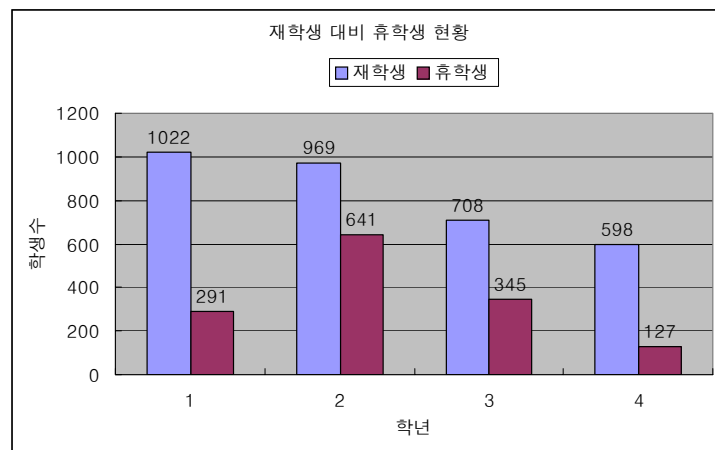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의 주요원인으로 판단되는 휴학생의 현황을 보면(그림 53) 1학년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14명 정도의 휴학생이 발생하다가 2학년에서 급증하여 평균 약 30명 정도로 그 규모가 커진다. 또한 3학년 4학년에서 각 각

16명, 6명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림 53에서 보듯이 재학생 대비 휴학생의 경우 평균적으로 70:3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례 중 S 대학의 경우 재학생 대비 휴학생의 비율이 44:54로 나타나 휴학생의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많은 대학에서 1학년 또는 2학년 까지 학부제로 통합 운영되고 이후 건축학전공으로 분리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도 볼 수 있으며 또한 2학년 또는 3학년까지의 과정을 이수하고 군 입대, 전공분리에 부담감 또는 기타 사유로 휴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5년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하지만 건축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도출되지 못한 시점이라는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하루 빨리 제도적인 정착과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는 최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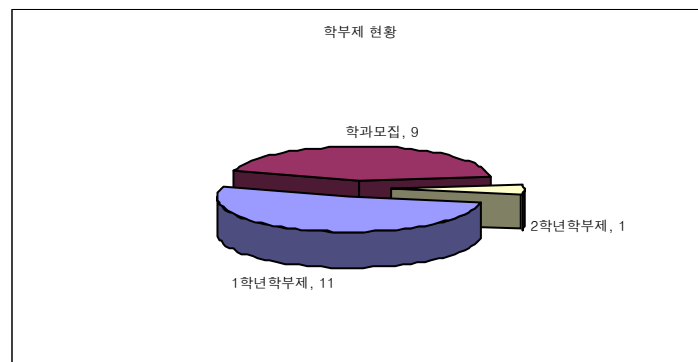
그림 53 재학생 대비 휴학생 현황



상기에서 열거 하였듯이 현재 국내의 여건상 저학년에서 전공분리 없이 동일계열 학과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2학년 또는 3학년에 이르러 전공으로 분리되는 학부제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당수 있다. 그림 8의 사례에서 보듯이 1학년에서 학부제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조사 대상의 절반을 넘고 있으며 3학년에서 전공 분리가 일어나는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다. 1학년부터 건축학전공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9개로 나타났다. 이

는 전공분리의 시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학부제를 운영하면서 충분한 전공과목 이수를 하지 못하는 문제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학부제의 운영을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상급과정으로 가면서 학생과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부담으로 돌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부제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인증원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54 학부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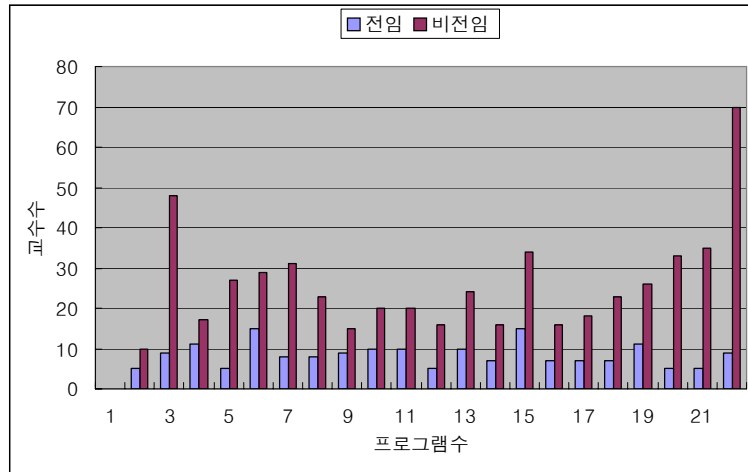


2) 교수진

프로그램의 교수 현황을 보면 각 프로그램의 운영 규모에 따라 상이한 규모를 가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전임 교수의 경우 약 8~9명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비전임 교수의 경우 평균 약 26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비전임 교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전임 대 비전임의 비율이 약 25 : 75로 나타나 절대적으로 비전임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비전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우수한 인력을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비전임 교수의 비율이 높으면 교육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특히 사례 대상 중 H 대학의 경우 전임 대 비전임 교수의 비율이 11 : 89로 나타나고 있어 상기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물론 이 비율이 모든 것을 말해 줄 수는 없고 대학 프로그램의 특성과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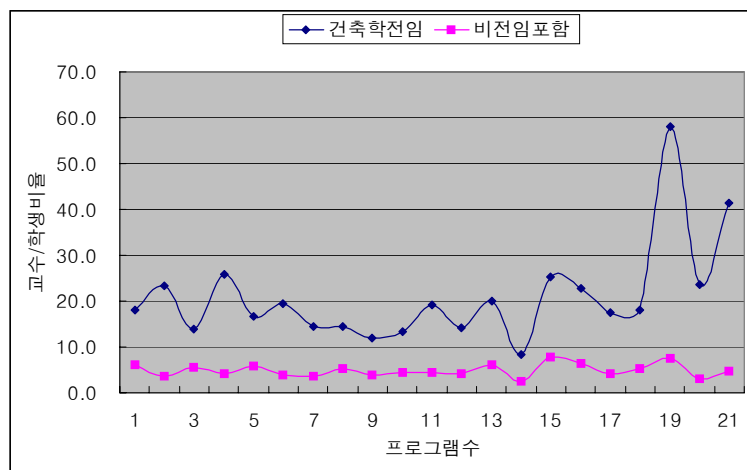
그림 55 전임 대비 비전임 교수



3) 교수 대비 학생 비율 현황

학생현황과 교수 현황만큼 중요한 것이 교수 대비 학생비율 현황일 것이다. 이는 교수개인과 학생 개개인의 자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증 기준에 1주일에 학생 1인당 개인지도 시간을 40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 56 신제도 학생의 교수/학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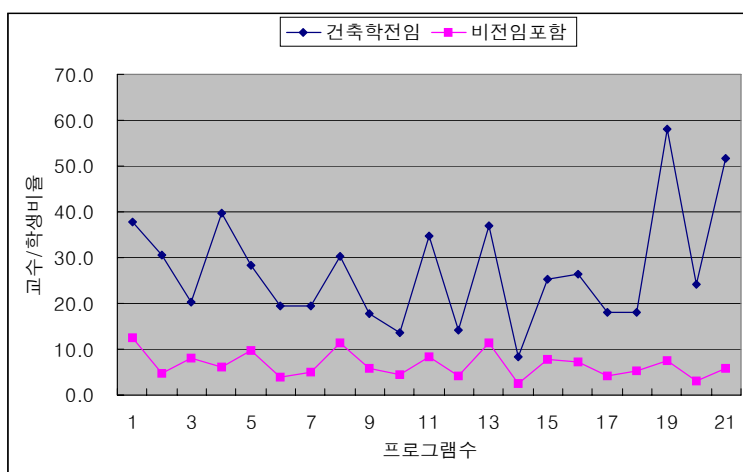


교수 대비 학생 비율 현황을 보면 우선 신제도 학생과 구제도 학생으로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제도학생(5년제 제도 학생)과 구제도 학생(4년제 제도학생)이 혼합되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1주일에 학생 1인당 개인지도 시간을 산정할

때 구제도 학생의 수치 또한 포함되어 계산이 되어야 정확한 개인지도 시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 역시 전임과 비전임 비율을 분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림57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임과 비전임 교수를 포함한 비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교수 1인당 4.7명의 비율이 나타나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임비율 만을 볼 때 평균적으로 약 교수1인 당 학생 19~20 명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비전임 교수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7 구제도 학생 포함 교수/학생 비율



특히 구제도 학생을 포함하게 되면 그림 57에서 보듯이 그 수치가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전임과 비전임 교수를 포함한 비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교수 1인당 약 6.1 명으로 1.4명이 늘어 난 것을 볼 수 있으며 전임교수 비율의 경우 약 25.1 명으로 교수당 학생의 비율이 5명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국내 건축학 교육기관의 물적 인적 현황을 조사하면서 나타난 어려움으로 대학들이 대외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한 자료제공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그 동안 프로그램을 평가함에 있어 정량적 부분의 비중이 높았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조사연구를 통해 나타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건축학교육협의회의 자료 협조 요청을 통한 2005년도 건축학교육현황 자료에서도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인증제도의 초기 시점에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당면 과제들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인증제도의 정착단계로 가면서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일례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에서의 자구적 노력을 통해 개선하고 있고 개선의 의지를 갖고 인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비단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 당국의 재정 상태 및 이해부족에 따른 지원 부족, 인증제도의 초기 시점에서 오는 혼선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미비 및 제도적 보완의 미비 등에서 오는 포괄적 문제로 인식하여야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인증기준에서는 제한된 물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교협이 분야별 평가처럼 프로그램의 평가가 정량적 기준에 좌우될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교육내용이 아닌 외적 조건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는 획일적 평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환경이 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지만 그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의 독창성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물리적 현황에서는 전반적으로 인증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02년 프로그램 개편이후 자구적 노력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인적 현황에서는 교육제도의 개편과 국제 건축사 자격제도의 변화에 따른 불안감으로 휴학생의 비율이 높으며,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구제도 학생과 신제도 학생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따른 학생들 개개인의 관리 체계와 교과과정 운영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수 현황의 경우 대다수의 학교에서 전임교수 대비 학생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비 전임교수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대상 프로그램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조사 연구를 통해 국내 건축학 교육기관의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체계적이고 명확한 조사를 위한 별도의 조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국내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보완 및 대응 방안 모색

4.1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제도 운영 경과 및 현황

2004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설립된 이후 시행된 인증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인증사업의 절차는 인증후보자격 신청을 통해 후보자격을 취득하고 후보자격을 취득한 프로그램에 한해 인증신청이 가능하며 인증신청 결과에 따라 인증실사를 받게 된다.

2006년 말 현재 인증후보자격신청심사의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 2005. 09월 12개 제출/ 10개 프로그램 승인
- 2006. 03월 1개 제출/ 1개 프로그램 승인
- 2006. 09월 10개 제출/ 6개 프로그램 승인

그 결과 현재 까지 23개 프로그램이 후보자격을 신청하였으며 그 중 17개 프로그램이 후보자격을 승인받았다. 후보자격취득의 유무는 인증이 갖는 효과와는 무관하며 취득 후 3년 이내에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2006년 말 현재 인증 신청심사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 2005. 10 4개 제출/ 3개 프로그램 승인
- 2006. 04 2개 제출/ 1개 프로그램 승인
- 2006. 10 7개 제출/ 6개 프로그램 승인

현재 까지 후보자격을 획득한 17개 중 10개 프로그램이 인증 신청을 한 상태로 후속 인증사업 진행현황은 아래와 같다.

2006. 11월/ 3개 프로그램(명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이 최초 인증대상이 되면서 국내 최초 인증실사가 2006년 11월 12일 오후부터 11월 15일 오전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각 해당 학교에서 각 프로그램의 요청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2007. 상반기/ 에는 1개 프로그램(홍익대)만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심사팀이 구성중이며 프로그램측은 2007년 3월까지 자체평가보고서를 인증원에 제출하게 될 것이다.

2007. 하반기/에는 6개 프로그램(강원대, 부경대, 서울산업대, 영남대, 충남대, 한양대(서울))의 실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규모의 두 배가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만전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4.1.1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신청 자료 분석

1) 5년제 프로그램으로 전환

5년 전일제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서 건축학 4년 또는 건축공학 4년제 프로그램 학생들과 5년제 프로그램 학생을 혼용이 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교육 프로그램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5년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나타난 유형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학부제로의 통합 운영체제에서 전공분리 없이 1학년 또는 2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이 후 건축학전공으로 분리되면서 1학년 또는 2학년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학과목 또는 이수 필수 학점을 나머지 학년에서 보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운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돌아온다. 특히 건축학 전공으로 선택할 학생들의 경우 비중이 큰 설계 과목에서 시수의 부족이 나타나 이를 건축학 전공으로 분리되면서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4년제 프로그램 제도 학생과 휴학생, 복학생, 편입생 등 그 과도기에 위치한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4년제와 5년제 학생이 혼합되어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학생정보 및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 등의 정보작성에 적지 않은 혼선을 야기하고 있고 이를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4년제 프로그램에서 5년제 프로그램으로 개편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로 이를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하고 있지만 다양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독립된 5년 전일제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의 정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정착단계에 이르면 해소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에서 현재 저학년의 통합운영 학부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2) 학생정보

학생정보는 일반적 현황뿐만 아니라 학생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대한 정책 그리고 각 단계별 입학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 현황에서는 특히 일부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제도적 전환기에 따르는 불안감과 5년제 학부로의 부담감 등으로 휴학생 수가 증가하여 최고학년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 대학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질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간의 상호관계가 중요하고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총학생수(student body) 형성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학생수의 현저한 감소는 큰 문제점으로 파악되며 상대적으로 정원수가 적은 전문대학원의 경우 더욱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건인원의 인증평가는 건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단순평가라기 보다는 학생수행능력평가에 따른 결과물에 의한 종합적 평가로, 다양한 교과과정을 제시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극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과과정이 개설될 수 있는지와 그 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3) 인적자원

건축학프로그램을 위한 효과적 인적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설계의 경우 스튜디오 교수진은 학생에 대해 충분한 개인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생 1인 당 1주일에 40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사례에서 나타난 유형은 건축학 전임교수 대비 비전임 교수의 비중이 높아 교육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설계과목 학생 1인당 1주일 개인지도 시간인 40분을 채우지 못해 충분한 개인지도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설계수업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점 대 시수의 비율이 국제적으로 1:2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을 1:2 이하로 책정하여 학생개인지도 시간을 1주일에 40분 이상 확보한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생지도시간을 40분 이상 확보하더라도 시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이를 위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학년의 경우 특히 기초설계수업의 경우 충분한 설계실무경험을 갖춘

교육자 또는 충분한 교육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가르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독립된 프로그램을 가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학부와 대학원의 소속 교수를 구분하지 않고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를 소속교수로 기재하여 교수 수를 많이 기재하는 등 기존 일반대학원의 틀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물리적 자원

물리적 자원은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물리적 자원에 의해 우수한 학생이 배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양질의 프로그램에 의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리적 자원의 기준 제시는 정량적 평가에 의해 획일적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리적 환경도 중요한 교육환경의 한 요소 이므로 물리적 자원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학년별 학생수 대비 설계실 학생개인자리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지 않거나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휴학생의 수가 많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학생현황 대비 학생개인자리 수는 확보 하고 있지만 휴학생을 포함한 등록된 학생수에는 현저하게 미달하고 있다.

시설면적에는 향후 확장될 시설을 염두에 두어 면적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5) 정보자원

권장도서 수에서는 순수 건축학 분야 도서목록의 권수 및 종수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순수 건축학 분야 이외 관련 가능한 도사목록을 산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세분화하고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상기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의 유형 중 대표되는 것은 우선 최근 4~5년 사이에 5년 전일제 건축학 전공 프로그램으로 개편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로 기존의 4년제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서 보다 지방소재 대학에서의 어려움으로 과도기 적 상황에서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및 인식, 홍보의 부족 등으로 인한 휴학생의 수가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고 학년으로 갈수록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인증제도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조기정착이 시급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으며 국내의 여건상 아직 성공 사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또는 사례를 제시하여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1.2 국내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 분석

인증원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인증기준(2005.09)을 개정할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국제실사를 거치면서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해외 실사참여 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 맥락은 현재 인증기준이 국제적 경쟁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으며 수정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부분적 수정을 가하다가 본래 취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5-6년간 인증 대상프로그램들이 인증 절차를 한 번씩 거친 뒤 누적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기준에 따라 이미 세 학교의 인증실사가 진행되었으며 2007년에 7개 프로그램이 인증실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과 향후 인증실사대상이 되는 프로그램들도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의견으로 수렴되어 전면적 수정은 향후 일정시점까지 유보하고 시스템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문제점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운영상에서 제기된 몇가지 문제들은 보완이 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인증신청자격요건의 2006년 인증사업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p 9, 단 건인원이 설립된 이후 처음 시행되는 2006년의 인증사업 (2005년 신청/2006년 실사, 2006년 신청/2007년 실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인증절차

(1) 인증신청 - 인증후보자격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학부의 경우 5년제의 독립된 건축학 프로그램, 대학원의 경우 2년 이상의 독립된 건축학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전체를 이수한 졸업생이 1회 이상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5년제 학부 또는 2년제 이상의 건축학 프로그램의 완성된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증후보자격 신청 시기를 프로그램 개시 후 학부의 경우 최소 3년, 대학원의 경우 최소 2년을 경과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부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신청할 경우 완성된 프로그램을 판단할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심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인증 후보자격은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1회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에서 인증신청을 하려면 후보자격 유효기간 만기 시점에서 인증신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하기도 어렵고 심사하기도 어려운 조건으로 판단되며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인증신청 - 인증후보신청

인증후보자격은 단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의미할 뿐이며 인증이 갖는 효과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인증후보자격은 건축학 프로그램 개설 후 최초의 신청 프로그램에 한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3) 인증신청 - 후보자격 심사 후속조치

인증후보자격 취득 실패 시 재신청은 그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격 취득 반려에 따르는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함에 있어 대학 프로그램 운영 특성상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보완수정된 내용의 결과치를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고려한 조치이다. 하지만 제시하고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가능하도록” 조항에서 그 시점에 대한 불분명성으로 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 신청 시점으로부터, 혹은 차기 신청기간에는 신청할 수 없다 등)

이 과정에서 후보자격 반려 시 재신청 시점이 1년 뒤로 설정된 것이 반려된 프로그램들의 서류미비 등의 경미한 사유인 경우 재신청 시점이 1년 뒤인 점은 프로그램 측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러나 검토결과 현재 인증기준 상 이러한 사유를 판단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지금까지 후보자격이 반려된 경우가 교과과정 운영상의

인증기준 미충족 등이 주된 사유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재신청기간을 1년 뒤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보자격 취득 시 재신청은 그 신청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가능하다'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조항은 최초실사의 경우 예외조항을 인정해 준 2002년 시작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볼 때 2003년에 시작한 프로그램은 2008년 2월이 지나야 인증신청이 가능하고 2009년이 되어야 실사가 진행되므로 2006년 후반 기부터 실사가 시작된 2002년 시작 프로그램들에 비해 1-2년이 늦추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전체를 이수한 졸업생이 1회 이상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인증규준집 p9 3.1 인증신청요건)를 -'첫 졸업생이 배출되기 직전 학기에 신청할 수 있다' 또는 '프로그램 개설 후 5학년 2학기 시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4) 인증신청 - 인증신청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간의 건축학교육 인증제도의 상호 인정을 위해 인증신청 프로그램 자격을 프로그램 전체를 이수한 졸업생이 1회 이상 있어야 신청할 수 있지만 국내 여건상 규정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없어 부득이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이 예외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증실사는 인증신청부터 약 1년여의 준비 기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 규정에 의해 인증신청 프로그램 자격을 프로그램 전체를 이수한 졸업생이 1회 이상 생기는 시점에서 신청을 하면 인증실사 시점에서는 2회의 졸업생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인증신청 프로그램 자격 시점을 현실화 하여 프로그램 개설 후 5학년 2학기 시점에서 인증신청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5년 전일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이 처음 개설된 2002년도 대학이 현행 예외규정에 의해 1년 먼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2002년도 개설 프로그램과 2003년도 개설 대학의 인증신청 자격에 대한 차이가 2년이 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2) 인증신청서

인증후보자격 신청 및 인증신청 시 제출하는 신청서 항목은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다. 단지 인증후보자격 심사는 인증심사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지만

보다 간략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인증후보자격을 갖춘 프로그램만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절차(단계)별 심사에 따른 지적 또는 권고사항이 제시되기 때문에 인증후보자격 심사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이 인증심사 신청서에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대한 기술항목이 필요하며 이는 다시 자체평가보고서에서도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적 또는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을 방대한 내용에서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자체평가 보고서에서는 “지난 실사에 대한 대응”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신청서류에는 상기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 지난 심사에 대한 대응 등)

3) 인증기준

(1) 건축학교육 인증의 주요관점

건축학교육 인증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5가지의 주요 관점은 1,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소속대학교의 상호관계 및 행정 참여 그리고 지원체계, 2, 건축학교육이 학생들을 지원하고 독려하여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3, 건축학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인턴쉽 및 건축사자격취득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 제공 4, 건축학교육으로 급변하는 전문분야에 대한 역할 및 적응력 환경 제공, 5, 건축학교육으로 사회 및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환경 제공이다. 이러한 5개의 관점에 잘 부합하였는지를 평가하고 프로그램이 당면 과제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2) 학생수행평가기준

또한 학생들이 건축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획득하여야 하는 성취기준으로 학생수행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학교육 인증을 위한 교육내용의 기본 틀이 된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문화적 맥락, 설계, 기술, 실무에 관한 5개 영역 41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의 수행능력정도에 따라 인지한다, 이해한다, 할 수 있다, 의 세 분류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학생의 작품을 평가하고 매우 만족스럽거나 불만족스러운 각 기준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상기의 5개 건축학교육 인증의 주요관점과 학생수행평가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41개 세부 항목 외에 즉, 자체평가보고서 작성항목으로 학생정보, 인적자원, 물리적자원, 정보자원, 재정자원 등 프로그램의 질적, 물리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각 항목에 대한 작성기준은 제시하고 있지만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평가항목으로 제시할 근거가 미흡하다. 따라서 상기에 열거한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항목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자체평가보고서

(1) 인적자원

설계 스튜디오의 교수진은 학생에 대해 충분한 개인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생 일인당 1주일에 40분 이상의 지도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적절한 교수 수 확보와 충분한 개인지도를 유도하여 질적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설계수업학점: 시간의 비율이 1:2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많은 학교들이 아직 1:1.5의 비율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개선될 여지가 많다. 일례로 한 프로그램 측에서 '6학점 9시간으로 운영하면 한 스튜디오당 학생수를 12~3명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6학점당 12시간이 될 경우 그 숫자가 18명이 되므로 18명으로 유지해도 되는가'라는 질의를 한다면 18명으로 유지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것은 프로그램과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야 할 부분이지만 1:2의 시간비율과 스튜디오 당 15명 내외의 학생 비율 정도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하나의 변수가 국내 여건상 많은 프로그램에서 학부제를 운영하여 1학년 또는 2학년과정을 이수하고 건축학 전공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부제에서의 개인지도 시간이 충족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5년 전체과정에의 평균치는 상기의 기준을 충족하지만 학년별로 특히 학부제 운영 프로그램에서의 전공분리 전 학생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에 따른 기준의 보완 또는 세부 기준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물리적 자원

현재 5년 전일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유형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다가 증축 또는 개축을 통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인증제도의 긍정적 효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확정 또는 확보되지 않은 정보 등 불확실한 정보 제공에 대한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정보 자원

건축분야에 있어 전문학위 프로그램에 적절하고 균형 잡힌 건축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서적과 기타 지원 서적들과 함께 KDC 610-619 혹은 DDC 720-729에 해당하는 주요한 기본서적들이 마련되고 최소 5,000권의 개별적 도서 분류기호를 갖는 서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류 방식에 의하면 예술, 문화, 오락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이 해당될 수 있고 이를 “주요한 기본서적” 또는 “기타 지원서적”으로 전공서적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준에 적합한 도서수로 제시할 수 있고 또한 방대한 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세분화되고 학과목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서적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재정자원

프로그램은 소속 대학 내 다른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기관 차원의 지원과 재정자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한다. 이는 프로그램의 예산 그리고 타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한 프로그램 재정 및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재정자원 정보는 제출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없어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5) 실사팀

(1) 실사팀 구성

실사팀을 구성하기 위해 실사팀 위원 후보군(pool)을 운영하며 이를 매년 건축관련 단체인 건축사 단체, 건축학 교육단체, 건축가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 충분히 실사팀 위원 본연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구성에 어려움이 많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증원에서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실사팀을 구성함에 있어 소정의 실사훈련을 이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세분화하여 오리엔테이션 및 실사실무 교육 등의 실사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구분하여야 한다. 특히 실사팀의 구성은 철저히 능력위주의 구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실사팀 위원 개개인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참관인

인증원 및 해당 프로그램은 인증실사에 참관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참관인의 규모 및 참관인의 비용 처리 등 세부조항이 필요하며 특히 앞으로 인증실사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인증신청 준비 대학에서의 인증참관신청 및 참관할 수 있는 절차 및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06년 가을 최초 실사를 진행하면서 실사팀 구성 중 참관인 선정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현행 규정상 ‘해당 프로그램에서 참관인을 추천할 계획이 있다면, 실사에 앞서 ----- 실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인증지침서 p 8) 이 경우 프로그램 측의 참관인은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있는 우호적 인사를 추천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참관인의 추천 및 선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6) 후속조치

(1) 인증심사 - 인증의 종류

- 5년 인증 기간 유효 : 향후 5년간 인증 유효
- 조건부 2년 인증 : 어느 정도의 부족사항이 있는 경우 실사팀이 2년 뒤 방문 전까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표시하고 2년간 인증 부여
- 인증의 일시적 정지 : 중대한 부족사항이 있는 경우 실사팀이 1년 후 방문할 때까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표시하고 1년간 인증 부여
- 인증거부 : 심각한 부족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을 거부

위와 같이 인증의 종류를 구분하여 부족사항에 따라 인증기간을 달리 하고 있는데 5년 인증 혹은 조건부 인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어느 조건부 2년 인증에서 “어느 정도의 부족사항”, 인증의 일시적 정

지에서 “중대한 부족사항”, 인증거부에서 “심각한 부족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납득할 수 있는 세부 결정 근거를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5년 인증의 경우에서도 조건부 인증과의 차이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조건부 인증의 경우 절차적 문제 즉, 인증신청 절차를 거친 인증심사인지 또는 단독의 인증심사 인지를 구분하여 제시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심사 비용, 인증심사팀의 재구성 여부 및 규모, 인증심사 내용 등 구체적 경우를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증정지나 거부시에 졸업생에 대한 구제 방안이나 인증적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실사팀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교육의 질에 대해 평가하는 실사팀 보고서는 간결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한다. 이는 인증위원회의 인증여부 결정을 위한 필수적 자료로 사용되며 해당 프로그램의 약점 또는 미흡한 점을 보완하거나 그 대학 내에서 프로그램의 위상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실사팀 보고서는 크게 프로그램 개요, 지난 실사에 대한 대응, 건축학교육의 5가지 주요 관점에 대한 대응 및 학생 수행평가기준 등의 주요사안으로 구분되어 평가를 하게 된다. 하지만 각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투명성 및 연속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항목의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예; 실사팀 위원의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 도출 등)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사팀의 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실사팀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정립하여야 한다.

(3) 이의 제기와 중재

인증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프로그램은 이사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인증의 일시적 정지 또는 인증거부인 경우에 한한다. 이때 이사회는 건축관련 단체와 공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사회와 해당 프로그램은 각각 2명의 대표를 청문회에 보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 및 절차는 구성원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 등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이사회 및 기타 부서의 구성은 건축관련 3단체인 건축사 협회, 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가 주축이 되며 이는 건축 실무계와 건축교육계로부터 각 기관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의 경우 각 기관을 대표하는 자 외에 주무부서인 건축설교통부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이사회가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는 인증의 연속성 및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등의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7) 기타

(1) 실사팀 작업실에 포함되어야 하는 증빙자료 유형

실사팀 작업실에 포함되어야 하는 증빙자료 유형의 성취수준 구분 중 각종 시험지 및 답안지, 학생작성 보고서 등은 능력에도 해당되는 부분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실사 안건

제시된 전형적 실사 안건 중 프로그램 책임자, 프로그램 학사 행정 담당자, 프로그램 최고 책임자, 프로그램 학사행정 책임자, 프로그램 행정 책임자, 프로그램 학사 책임자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며 특히,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의 다른 조직 구성에 따른 명칭 및 호칭 구분 통일이 필요하다.

4.1.3 국내 최초 인증실사 분석

2005년 터키 이스탄불의 UIA 총회에서 제안된 국가간 건축학교육 상호 인증 협의가 2006년 5월에 시작됨에 따라 협의체인 Washington Round Table Conference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공식 구성원으로 참여한 뒤 실현된 국내 최초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실사가 협의체 해당 인증기관들 및 국내 건축계의 관심 속에 이루어 졌다. 실사 기간 및 해당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최초 인증실사 : 실사기간 (2006년 11월 12일 ~ 15일)

- 사례 1 : 명지대학교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 사례 2 : 서울대학교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 사례 3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본 항에서는 최초 인증실사가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 국외에서 초청되어 인증실사에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통해 국내 건축학교육과 인증시스템의 현시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리고 인증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피 인증실사 프로그램과 국내 인증실사팀의 의견 수렴 및 문제 파악은 5장. 공청회에서 다루기로 한다.

1) 국내 최초인증실사의 의미

상기와 같이 국내에서의 최초 인증실사가 2006년 11월 12일~15일 까지 3박4일 동안 각 프로그램의 요청에 의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특히 금번 최초인증실사에 한해 각 국의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팀 위원 자격의 대표를 공식 초청하여 인증실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국내 위원 및 국외 초청 위원은 다음과 같다.

<국내 위원>

- ① 박연심 (장원 건축사사무소)
- ② 심재현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 ③ 이상준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 ④ 이영수 (건축환경그룹 건축사사무소)
- ⑤ 이충기 (한메 건축사사무소)
- ⑥ 이필훈 (태두 종합건축사사무소)
- ⑦ 조성중 (일건 건축사사무소)
- ⑧ 조재원 (태제 건축사사무소)
- ⑨ 황희준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국외 위원>

- ① C. William Bevins (NAAB Former President)
- ② George Henderson (RIBA, CAA Past President)
- ③ James A. Scheeler (Member of the UIA Council)
- ④ Joseph P. Giattina, Jr (NAAB Past president)
- ⑤ Louise Cox AM (UIA First Vice President)
- ⑥ R. Wayne Drummond (NAAB President)

상기와 같이 국내에서는 유관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사협회에서 9명의 위원이 추천되어 선정되었으며 국외에서는 미국의 NAAB, 영국의 RIBA 그리고 UIA에서 추천된 대표 중 6명의 추천인이 선정되어 금번 인증심사에 심사팀 위원으로 초청 되어 참여를 하였다. 이는 초청위원 개개인의 풍부하고 전문적인 인증심사업무의 경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증심사업무 수행능력을 습득하고, 동시에 국내 인증제도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인정받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기존의 교육분야 심사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던 정량적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방식과는 달리 정성적 평가기준을 위주로 한 국내 최초의 건축교육인증 심사과정이었다는 점과 건축학 교육이라는 포괄적인 학문 분야에 대한 교육의 질을 자체적인 인증기준에 의한 심사과정을 통해 평가받았다는 점 그리고 평가의 주체가 관 주도가 아닌 건축계 유관단체들의 연합에 의해 설립된, 독립된 사단법인 주도하의 평가과정이었다는 점 등이 금번 인증심사의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2) 국외 인증심사팀 위원 제언

국내 최초인증심사를 성공적으로 마감한 후 마감 당일 국·내외 인증심사팀 전원과 인증원 관계자와의 마감 회의가 진행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최초 인증심사를 위해 기꺼이 심사에 참여해준 감사 표시와 후속 사업을 위한 각 위원들의 개인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발표된 의견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줄 것을 국외 위원들에게 요청을 하였다. 그 결과 3명의 국외 위원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나머지 위원들의 의견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추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서는 각 기관 대표 자격으로의 의견보다는 풍부한 경험에서의 개인적인 의견 차원에서 요청되었으며 이러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국내 인증제도의 개선을 도모하여 후속 인증사업이 한 층 국제적인 수준으로 격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제출된 의견서에서 제기된 내용을 후속 인증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며, 해당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의견과 사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인증심사와 관련된 의견만 번역하여 정리하고 전문을 첨부하도록 한다. 또한 추후 나머지 의견서는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며 현재까

지 제출된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견서 전문 - 부록 참조)

• Joseph P. Giattina, Jr., AIA ((NAAB Past President)

KAAB의 요청에 의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남기며, 이 내용은 본인의 의견에 국한된 것이고, NCARB, NAAB 등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밝혀둔다.

1. 이번 명지대학교 실사팀의 작업은 본인이 갖고 있는 건축학교육실사의 여러 현장경험과 비교해 볼 때 그 어느 실사보다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작업이었다. 모든 실사팀원들은 신중하고 섬세했으며 예의바르고 성실했다. 모두에게 첫 경험이었으나 팀원들의 부지런함을 볼 때 다음 KAAB 실사 때에 경험자로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 명지대학교가 준비한 APR(자체평가보고서)과 팀실의 준비, 전시작업, 그리고 교수진의 대응 등 또한 신중했으며 모두 훌륭했다. 인증기준을 만족시킨 항목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명지대의 담당 교수진들은 KAAB 인증기준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고, 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3. 실사 후 회의에서도 밝혔듯이 인증심사는 몇 개의 인증기준을 만족시켰느냐 아니냐의 숫자놀이가 아님을 다시 밝혀둔다.
4. 이번 최초 인증심사를 준비한 대학들은 모두 높은 성취 수준을 갖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대학들이 심사를 받게 되더라도 각 대학의 인증심사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각 학교가 학생들에게 전문교육을 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취하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이다.
5.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융통될 수 있는 한국의 건축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증심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프로그램들이 그렇지 못한 다른 프로그램들을 위해 끊임없이 베풀고 선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이번에 인증심사를 치른 세 개 대학만큼 풍족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타 대학들을 위한 배려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인증심사를 받은 프로그램들은 필수적으로 각자가 갖은 강점들에 대해서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인증심사과정에 의해 모두가 비슷해지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써 의도되지 않은 교육내용의 정체를 초래할 것이다.
7. 더욱 많은 학교들이 인증심사를 받게 되는 가운데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KAAB의 인증 시스템은 앞으로도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계속 성숙되어야 하는 점이며, 그 과정에서 인내를 갖고 모든 절차를 진지하게 다뤄야 하고 동시에 처음 시작되는 제도에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처리 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

8. 한국 KAAB의 인증 시스템은 60여 년 동안 발전시켜온 미국 NAAB의 인증 시스템을 원용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 후에도 NAAB의 원리는 계속 적용되더라도 한국 나름대로의 요구에 의해 변화,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9. KAAB의 인증기준과 절차(인증기준)은 앞으로 인증주기를 한 번 거친 5년 동안은 변동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십 여 년 동안의 경험을 볼 때 인증기준의 내용은 매 3년 마다 변동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그 주기를 5년 주기로 늦춘 상태이다. NAAB 인증기준 내용의 변동은 매 5년마다 열리는 인증심사 평가 컨퍼런스에서 실무와 교육 측 대표자들이 중지를 모아 결정한다.

10. KAAB의 인증기준을 바꾸지 않고 당분간 앞으로 유지하는 경우 경중의 차이는 있겠으나 분명히 수정이 요구되는 내용이 생길 것이며, 따라서 KAAB에는 이러한 요구들을 기록하고 대응을 준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11. 마지막으로, 실사팀 위원으로 일을 수행한다는 것은 분명 명예로운 직분이지만 명예로운 지위일 수는 없다. 실사팀 전원에게 기대되는 작업의 내용은 어려우면서도 매우 많은 양의 일이며, 그 심사결과는 학생들과 대학교, 그리고 나아가서 건축과 관련된 모든 영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첫 인증심사과정에 본인이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 C. William Bevins, FAIA (NAAB Former President)

서울대학교에서 실시된 인증실사를 마치고 동시에 타 대학에서 인증실사를 참여했던 동료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본인이 갖고 있는 의견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음을 전제하고자 한다. 또한 본인은 올해 임기를 마치는 지난 3년 동안 미국 NAAB의 원장으로써, 또한 전 NCARB 원장으로써의 경험에서 얻은 시각에서 다음 의견서를 쓰고자 한다. 그러나 이 의견서는 공식적인 NAAB 또는 NCARB의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 서울대학교의 교수진과 직원: 모든 구성원들은 본인이 방문해본 많은 대학들 중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실사를 준비하였다. 서울대학교 인증 실사팀실을 준비한 모든 인원들의 노고를 높게 평가하는 바이며, 인증 기준에서 요구하는 실사팀실의 원리와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 서울대학교의 실사팀실: 실사팀실의 구성은 미국에서 경험해 본 실사팀실들 중 가장 훌륭한 경험에 견줄 만 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실사팀원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모든 준비의 수준이 향후 한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쫓아질 수 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판단해본다.
- 서울대학교의 실사팀원: 실사 전에 느낄 수 있었던 실사팀원들의 역할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사시작 직후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해하고 대응하였다. 실사팀원들은 짧은 시간 내에 인증 실사 평가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임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 KAAB는 실사팀 구성에 있어서 실무와 교육영역 전문가들을 매우 적절한 비율로 구성했다고 판단한다. 모든 실사팀원들은 다른 평가위원회에 대한 배려와 의견의 존중을 유지해갔다.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실사작업 중에는 평가위원의 본업과 관련된 전화를 질서 없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실사작업 중에 핸드폰에 의해 한 평가위원이 방해받을 경우 주의가 흐트러지고, 분명 놓치는 내용도 발생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실사작업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시간의 집중을 요구하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작업들을 소화해 내야하기 때문이다. 실사팀장의 경험으로 볼 때 매일 15-20분 동안 실사위원들이 개별적인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허락한 경우가 있다. 하루에 두 번 정도 이러한 휴식기를 갖게 하는 것이 실사팀원의 작업의 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다음은 실사를 경험 한 후의 본인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 김진균 원장에게도 언급했듯이 KAAB의 지금의 인증과정을 KAAB만의 것이라고 보기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미국 NAAB의 경험으로 필요한 조언을 제공할 수는 있더라도 분명 한국만의 특성을 한국 인증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 KAAB는 지금까지 공평한 기준으로 모든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바탕 위에 진행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온 것에 대하여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또한 KAAB는 인증 시스템을 통해 각 학교들의 개성을 발전 시켜야 함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며 인증과정을 통해 모든 학교들이 비슷해 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KAAB는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들이 창의적으로 개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인증기준’ 수립에 끈임 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KAAB 위원회에서 최종 인증심사결과를 심사팀보고서를 토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1) 몇 개의 충족항목과 몇 개의 불충족 항목들에 결정된다는 수 적 기준을 구축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또한 2) 학생수행능력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서열화하여 평가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항목들을 중요하 게 고려해야 한다. 3) 프로그램들 간에 인증결과를 서로 비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오직 프로그램들은 인증기준에 의해서만 평가된다. 4) 최종 인증 심사결과를 최대한 공정하게 내려야 한다.

위 4)번은 그 전 항목들과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년 인증결과 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절대 공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가 8개의 불충분 항목을 갖고 있는데 5년 인증결과를 받을 경우 6개의 항목을 갖고 있는 학교가 2년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평가항목에 경중을 자연스럽게 두게 되는 경우를 보는데, 그 도를 넘지 않 도록 공평성에 대해서 항상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NAAB 이사회에서 진 행하는 방식이 참조될 것으로 보인다. NAAB에서는 각 프로그램의 인증결과 를 철저히 개별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결과가 나오면 프로그램명에 따른 최 종 인증결과, 그리고 “불충분” 항목들을 적고, 벽면에 심사를 마친 모든 결 과들을 한 눈에 보이도록 게시하여 살펴본다. NAAB 이사회는 개별 인증결 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불공평해 보이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을 한다. 불공평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에 들어간다.

- 실사 후 회의에서도 밝혔듯이 인증기준을 앞으로 최소 5년간은 바꾸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잘못된 기준을 고치려는 의욕이 있더라도 정착되는 시 간이 필요하므로 고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다음 인증 실사 때에는 다른 문 제들이 발견될 수 있으며 KAAB는 조심스럽게 이 모든 것들을 관찰, 기록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학교들이 같은 기준으로 첫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공평성을 위해서라도 기준 수정을 금해야 한다.

- KAAB의 첫 실사를 마친 세 개 대학교들은 짐작하건데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일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은 이와 같은 여건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이번 경험을 통해 다른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이번 기회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KAAB 관계자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한국의 KAAB 지금까지 성취한 인증시스템에 대해서 스스로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 A. James Scheeler, FAIA(Member of the UIA Council)

(다음은 명지대 건축학과를 방문하여 인증심사에 참여한 성과에 대해 C. James Scheeler 씨가 기록한 미국 건축가협회(AIA)의 공식 보고서의 내용 요약임)

한국 KAAB에 의한 최초 인증심사를 위해 명지대학교를 평가위원으로써 방문했으며, 모든 실사과정은 성공적이었고, 준비한 학교의 교육프로그램과 학생성과물들은 매우 훌륭하였다.

실사팀은 미국의 NAAB와 UIA, RIBA 등의 해외 실사위원들과 한국의 실사위원으로 함께 구성되었다.

한국의 KAAB 인증 시스템은 미국 NAAB의 시스템을 본받아 설립되었다. 해외 인증평가위원들은 서울의 한 호텔에 투숙되었고 인증 첫날 학교에 도착하여 팀작업실, 학교시설 등을 둘러보고 4일간 계속될 평가를 준비하였다.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전시실의 내용은 5년제 교육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맞춰 학생성과물 중심으로 훌륭히 전시되어 있었다.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내용은 이미 실사 전에 학교 측의 준비로 배포된 자체평가보고서에 잘 기록되어 있었으며, 대학의 총장과 학장은 학과 프로그램 특유의 교육목표에 대한 뚜렷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 마지막 심사일 저녁 팀원은 KAAB에 권고할 인증심사결과를 심의, 결정하였다.

이번 한국에서 진행된 3개 대학의 인증심사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에 대한 우수성을 확인하였고 각 학교의 교수진들이 갖고 있는 건축학교육인증에 대

한 취지와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가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사 후 3개 대학에 참여했던 실사위원들의 KAAB 회의에서 UIA 측 대표는 KAAB 인증시스템이 UNESCO-UIA 교육인증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므로, KAAB는 UNESCO-UIA의 인준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4.2 국내 인증제도 운영 문제점 보완 및 대응 방안

4.2.1 인증기준

인증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인증기준(2005.09)을 개정할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국내 최초 인증실사에 참여한 국외 인증기관의 전문가들을 통해 제기된 일관되고 공통된 의견은 현재 제시된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맥락은 현재 인증기준이 국제적 경쟁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으며 수정할 사유가 생길 때마다 부분적 수정을 가하다가 본래 취지가 왜곡될 수 있고, 타 프로그램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 5-6년간 인증대상프로그램들이 인증절차를 한 번씩 거친 뒤 누적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제기된 인증기준상의 문제점을 현 시점에서 개정하기 보다는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정립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4.2.2 인증신청

위와 같이 인증기준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몇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1) 인증 신청 요건

최초실사의 경우 예외조항을 인정해 준 2002년 시작된 프로그램을 기준으

로 볼 때 2003년에 시작한 프로그램은 2008년 2월이 지나야 인증신청이 가능하고 2009년이 되어야 실사가 진행되므로 2006년 후반기부터 실사가 시작된 2002년 시작 프로그램들에 비해 1-2년이 늦추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전체를 이수한 졸업생이 1회 이상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인증규준집 p9 3.1 인증신청요건)를 -“첫 졸업생이 배출되기 직전 학기에 신청할 수 있다” 또는 “프로그램 개설 후 5학년 2학기 시점에서”로 수정하여 인증신청시점과 인증실사시점의 현실화를 통해 불이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후보자격 심사 신청 접수 후속 조치

현행 인증후조자격 심사에서 반려 되었을 경우 차기 후보자격 신청 시점을 “그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가능하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를 “그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가능하다”라고 수정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인증신청 접수 후속 조치

인증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인증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프로그램은 5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보고서를 건인원에 제출하고 건인원은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실사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증신청 접수 불이행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증신청 심사가 통과된 경우 기간 내에 신청비를 납입하고 5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건인원은 인증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실사팀을 구성한다.” 에서 신청비 미납의 경우 인증신청 접수는 취소여부 명시와 재 인증신청 여부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연장 및 제출 불이행은 “인증지침서” 현장실사절차(p.10) 내용에 따라 처리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4) 정보자원

정보자원에 대한 조항으로 “... 균형 잡힌 건축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서적과 기타 지원 서적들과 함께 KDC 610-619 혹은 DDC 720-729에 해당하는 주요한 기본서적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은 해당 전공 특유의 설립목표와 실행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다른 청구기호의 서적들을 보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소 5,000권의 개별적 도

서 분류번호를 가지는 서적이 요구되며 적절한 시각자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청서류 검토에서 정확한 정보자원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보다 명확한 정보를 위해 “... 균형 잡힌 건축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서적 및 기타 지원 서적들과 함께 KDC 610-619 혹은 DDC 720-729에 해당하는 주요한 기본서적 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은 해당 전공 특유의 설립목표와 실행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다른 청구기호의 서적들을 보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KDC(분류번호 540, 610) 또는 DDC(분류번호 690, 710, 720)로 분류되고 개별적 도서 분류번호를 가지는 건축전문 서적이 최소 5,000권 이상 요구되며 적절한 시각자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수정하여 명확한 건축전공도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시 방법이 필요하다.

5) 실사팀 책무

실사팀의 책무 중 현장실사 일정에서 “실사 마지막 날 오후 10시 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 실사팀 보고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실사 마지막 전날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로 수정한다.

6) 이의 제기와 중재

이미 이사회에서 심의 된 안건으로 현재 “이의제기는 이사회에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여 중재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기된 중재위원회의 구성에서 자칫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 재심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이사회에서 제기 되었다. 인증원의 이사회는 건축 3단체로부터 이사회가 구성되었으며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의제기와 중재”를 “재심”으로 수정하며 내용적으로는 인증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해당 프로그램은 인증 결정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30일 내에 이사회에 서류를 내고 이의제기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이의제기는 인증의 일시적 정지나 인증거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해당 프로그램이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건인원 또는 실사팀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이의제기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사회 의장은 이의제기 신청을 받은 뒤, 해당 프로그램이 제출하는 이의신청 신청서를 토대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심을 한다. 이사회는 이를 해당 프로그램과 인증위원회에 통고한다. 재심이 열리면 해당 프로그램과 인증위원회는 각각 2명의 대표를 보내 재심에 참석한다. 이사회는 재심이 끝난 3일 이내에 결론을 내린다. 서면으로 재심 결과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당 프로그램과 인증위원회에 전달한다. 이사회의 재심결론은 최종 결론이고 해당 프로그램과 인증위원회에 동등한 결속력이 있다. 이의제기와 재심 업무는 반드시 이의제기 신청이 제출된 이후 100일 이내에 끝내야 하며 재심과 관련된 합당한 직접 경비, 즉 예를 들어 회의실을 위한 비용, 여행경비, 식사비, 그리고 숙박비 등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4.2.3 인증지침서

인증지침서는 실사팀에게 인증을 위한 현장실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몇 가지 개선점이 제기 되었다.

우선 실사팀장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한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실사팀장의 역할 및 권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 참관인의 경우 참관인에 대한 추천자격 및 참관인 배정에 대한 의미를 명시하여 참관인의 역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의미 전달이 필요하다.

또한 실사팀장의 역할에서 “실사팀장은 자체평가보고서 평가서식을 자체평가보고서 수령 후 업무일 10일 이내에 건인원에 송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표기 오류로 보이며 이를 검토 기간인 “2개월 이내”로 수정한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 부록3의 “실사팀 작업실에 포함되어야 하는 증빙자료 유형” 중 각종 시험지 및 답안지, 학생작성보고서가 인지과 이해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를 인지, 이해, 능력으로 구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록 4의 “전형적 실사일정 및 안건”에서 프로그램 책임자, 행정책임자, 행정 담당자 등 용어가 혼동되어 이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는 용어적 정리가 필요하다.

V.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제도의 확립 및 대학교육 특성화 방향 제언

5.1 한국건축학교육 인증모델 확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5.1.1 국외 인증제도 전문가 초청 워크숍(Workshop)

인증원은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인증제도로 인해 각 대학 건축학 관련 프로그램의 인증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증주체인 인증원의 원활한 업무진행 및 공정하고 전문적 인증실사를 위한 자문을 얻고 인증실사 대상 프로그램 및 인증신청을 준비하는 전국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증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국외에서 인증실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인증실사 전반에 대한 심층적 교육 및 토론의 시간을 준비하였다. 이 워크숍을 통해 인증원은 국내 최초 인증실사 준비에 부족한 점 및 개선해야 할 점 등을 파악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한 실질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의 일환으로 국외의 인증제도 및 인증실사 전문가인 미국 인증기관 NAAB의 Sharon Matthews, Executive Director를 초청하였으며 공정하고 전문적 인증실사를 위해 인증실사팀을 대상으로 인증실사 실무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자체평가보고서와 인증실사 준비를 위해 전국 각 대학의 건축학관련 프로그램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반적 교육 및 질의에 의한 답변 시간을 마련하였다.

교육 안건으로는 대학 프로그램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요령, 그리고 실사팀 보고서의 작성요령을 통해 인증실사준비를 함에 있어 주요한 점들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의 사례 발표 그리고 인증실사를 준비하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하였다. 또한 인증실사팀을 대상으로 실사현장에서의 주의할 점과 유념해야 할 점 그리고 실사팀 보고서 작성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이 진행 되었다.

일정 및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KAAB 국외 전문가 초청 Workshop 프로그램

- 발표자 : Sharon Matthews(NAAB Executive Director)
- 대 상 : 인증실사팀 및 전국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 일 시 : 2006년 8월 17일(목) ~ 18일(금)
- 장 소 : 동부금융센터(강남구 대치동)
- 협 찬 : 동부건설

<1> 1일 : 2006 KAAB TEAM MEMBERS TRAINING WORKSHOP

PROGRAM

Morning Session: Team Members Candidature		사회: 이준석(국내담당이사보)
10:00 ~ 10:10	Welcome & Workshop Objectives - 이근창(인증사업단장)	
10:10 ~ 10:40	Session 1: The Conditions and Procedures - 류전희(인증위원회) - Overview of the Accreditation Process - Architecture Program Report (APR) - Visiting Team & Site Visit	
10:40 ~ 11:00	Session 2: Overview of the Accreditation - Sharon Matthews - APR, Site Visit, VTR : Intents & Goals (순차통역 : 이준석)	
11:00 ~ 12:20	Questions and Answers	
12:20 ~ 12:25	Concluding remarks by KAAB and adjourn of the morning session - 최재필(사무총장)	
Afternoon Session: 2006 Team Chairs & Team Members		사회: 이준석
13:30 ~ 13:40	Welcome & Workshop Objectives - KAAB	
13:40 ~ 15:45	Session 2: By Sharon Matthews - Review of the APR & Writing of the Review Form - Managing the Visit ※ Questions and Answers during the session	
15:45 ~ 16:00	Break	
16:00 ~ 17:50	Session 2: By Sharon Matthews - Writing the Visiting Team Report (VTR) (Including Confidential Recommendations) - Examples of Accreditation Term Results in the U.S. (Less than full term) ※ Questions and Answers during the session	
18:00	Adjourn for the day	

<2> 2일 : 2006 KAAB 자체평가보고서(APR) 작성 및 인증실사 준비 WORKSHOP

PROGRAM

사회: 이준석(국내담당이사보)

13:00 ~ 13:10	Welcome & Workshop Objectives - 김진균(인증원장)
13:10 ~ 13:40	Session 1: The Conditions and Procedures ■ 류전희(인증위원회) - Overview of the Accreditation Process ■ 이준석(국내담당이사보) - 사례발표 : NAAB 건축학교육인증 실사과정
13:50 ~ 14:20	Session 2: Writing the Architecture Program Report (APR) ■ Sharon Matthews (순차통역)
14:20 ~ 14:50	Questions and Answers
14:50 ~ 15:10	Break
15:10 ~ 16:10	Session 3: Site Visit & Visiting Team Report (VTR) ■ Sharon Matthews(순차통역, 통역전문가) - Managing the Site Visit - Writing Visiting Team Report (VTR) - Examples of Accreditation Term Results in the U.S. (Less than full term)
16:10 ~ 17:30	Questions and Answers
17:30 ~ 17:35	Concluding remarks by KAAB and adjourn of the day ■ 최재필(사무총장)



그림 58 프로그램 관계자 workshop



그림 59 인증실사팀 위원후보 교육

2) KAAB 국외 전문가 초청 Workshop 결과 요약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인증실사 준비에 대한 활발한 질문 및 답변이 진행 되었으며 몇 가지 주요한 사항이 도출되었다.

우선 인증원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수행평가기준 41개 항목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몇 항목을 임의로 제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고, 인증실사팀이 각 프로그램별로 다른 구성원으로 구성되는데 대한 형평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별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이나 성과물의 차이에 대한 인증실사팀의 공정한 대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제 프로그램에서 4+2 또는 기타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다.

상기의 문의 중 실사팀에 대한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소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인증원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 교육으로 전문적 인력을 양성해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또한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의구심을 불식하고 나아가 적극적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이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질문들의 내용 중 5년제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 대한 혜택 문제와 맞물려 건축사 자격 취득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로서 인증원에서 결정하거나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건축사등록원(가칭)과 맞물려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적인 정착이 필요하므로 이를 본 보고서 VI 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그림 60 인증실사팀 인증실사 실무교육



그림 61 인증실사팀 인증실사 실무교육

5.1.2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제도 확립을 위한 공청회

국내 최초인증실사를 통해 나타난 의견들을 인증 받는 피 인증프로그램 관점에서, 그리고 인증주체인 인증실사팀 관점으로 구분하여 수렴하도록 한다. 이러한 상반된 관점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통해 제기되는 장·단점들을 적극 수용하고 국외 사례 및 자료조사 분석을 통해 보완하여 제시하여 향후 인증사업에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1) 공청회 프로그램

- 발표자 : 1. 국내 최초 인증실사팀
2. 피 인증실사 프로그램
3.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 대 상 : 전국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책임자
- 일 시 : 2006년 12월 14일(목)
- 장 소 : 한양대학교 한양기술연구원
- 협 찬 : 건설교통부, 한양대학교

PROGRAM

사 회 : 정 진 국 (KAAB 인증사업단)

15:00 ~ 15:15	축 사 : 이 의 구 (KAAB 이사장) 개회사 : 김 진 균 (KAAB 원 장)
Session 1	주제발표
15:15 ~ 16:00	■ 2006년 가을학기 인증실사 참관 후기 - 명지대학교 : 조성중 (인증실사팀장) - 서울대학교 : 이영수 (인증실사팀 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 이상준 (인증실사팀장)
16:00 ~ 16:30	■ 국내 인증실사 준비경험 및 제언 - 명지대학교 : 김혜정 교수 - 서울대학교 : 김광현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 박철수 교수
16:30 ~ 17:00	■ 국내 인증제도 운영 문제점 보완 및 대응방안 : KAAB - 인증규준
17:00 ~ 17:20	Break
Session 2	토론 및 Q & A
17:20 ~ 17:50	토론 및 Q & A
17:50 ~	정리 및 폐회

사회 : 최 재 필(KAAB 사무총장)

2) 최초 인증실사에서의 긍정적 면

(1) 실사팀 구성 및 업무

최초의 인증실사를 통해 제기된 긍정적 면으로는 우선 실사팀의 구성에 있어 국외 인증위원을 비롯하여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APR과 학생수행평가기준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의 총괄적 분야 및 세부적 분야에 대한 세심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실사 과정에서 프로그램측과 다양한 형태의 의견교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동시에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방향에 상당한 함의를 부여하는 다채로운 논평과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대학본부와 프로그램, 교수진, 재학생과 동문들 모두에게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동기부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건축학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수진에게 향후 어떠한 교육방향과 태도를 견지할 것인가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2) 프로그램의 자체 평가 기회 부여

일련의 인증준비과정을 통해 학과 프로그램을 여러 단계에 거쳐 자체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고, 프로그램의 한계,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그것들에 대한 해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또한 운영 실적 등의 총체적 파악 및 점검을 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프로그램의 향후 발전 및 교육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대학 측에 요구해야 하는 지원 및 협조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되었다.

건축학교육인증 실사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다양한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으며, 실사 준비과정에서 프로그램 측 개별 교수들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의견교환 기회가 자연스럽게 제공되었다는 점 그리고 실사 준비과정이나 현장실사 과정에서 재학생과 교수진, 대학본부측이 모두 건축학 교육인증의 필요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스스로 정립한 교육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공개적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3) 향후 인증실사에서의 개선 점 - a. 피 인증실사 프로그램 관점

(1) 인증원과의 의사소통

실사과정 전반에 대한 인증원과 실사팀의 권한과 책임 배분, 실사대상 프로

그럼 대표들 간의 의견교환 기회 마련, 옵서버의 역할과 책임, 예우 등에 대한 인증원의 사전교육 미흡, 실사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측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 부족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증실사 대상대학 프로그램 대표자들과 인증원의 적절한 토론회기 부여와 실사대상 프로그램과 실사단의 사전 조율회의 등은 실사준비에 앞서 필수적 항목이라 할 수 있으며, 실사가 이루어지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사단과 옵서버들의 자체적 모임을 통해 실사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등에 대한 사전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실사단과 옵서버의 개별적이고 개인적 문의나 요청사항들이 인증원을 통해 취합되어 프로그램 측에 전달되는 등의 철저한 의견교환 통로나 방법의 일원화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사준비 초기과정에서 인증원이 수행한 프로그램 대표자에 대한 공문행위가 대학 본부 측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진행됨으로써, 대학 본부에서 건축학과의 인증준비 과정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역시 필요하다.

(2) 과도한 소요경비 지출

전반적으로 소요된 경비지출이 과다하였다고 판단되며, 실사준비 및 전시에 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인증대상 프로그램들이 상호 경쟁하는 모습으로 인증과정이나 절차가 잘못 이해된다면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성이나 독자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대학규모와 예산의 범위 등에 따라 인증의 결과가 결정되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실사팀 및 참관인 구성

실사 전 실사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며 개인적 의견 보다는 건축학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실사를 임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실사팀의 해당 프로그램 및 대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학생수행평가기준에 대해 주관적 해석이 가능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속적 교육과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실사팀 위원 개개인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최초의 인증실사에는 국외에서 초청된 전문가가 포함되어 공정하고 객관적 실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후속 인증실사 부터 국내 위원으로 구성된 실사팀에 의해 실사가 이루어지므로 최초인증실사에서 수행된 인증실사 수준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외 인증실사 사례에의 지속적 참여 그리고 국외의 인

증실사 전문가 초청 및 교육을 통한 인증실사 전문가 양성에 많은 노력과 투자 그리고 자구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증원 자체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관련기관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후속 조치

2007년 봄에는 국내 약 40여개 대학에서 5년 전일제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사회로 배출된다. 이는 이 졸업생들에 대한 실무수습과 실무경력 관리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인증받은 프로그램 졸업생과 받지 못한 졸업생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추후 경력을 관리하는 건축사등록원(가칭)이 아직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받은 프로그램 졸업생들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증원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외 홍보와 관계기관과의 협의체제를 구성해야 한다.

4) 향후 인증실사에서 개선 점 - b. 실사팀 관점

금번 국내 최초의 인증실사팀을 통해 제기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1) 실사팀 사전 교육

각 학교가 갖고 있는 특성을 존중하고 그 특성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실사의 중점이 되어야 하며 인증실사팀으로의 활동은 명예로운 것이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성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실사전 실사팀 교육에서 우선시 되어야 한다.

(2) 인증평가 기준

인증결과에서의 Met 와 Not Met의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따라서 인증은 인증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포괄적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하지만 국내 실정상 어느 정도 Not Met 숫자에 따른 인증결과 반영 기준도 제시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3) 실사팀장의 권한

인증결과에 따라 프로그램간의 비교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건인원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결정하는 권한이 실사팀장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실사팀장의 권한이 막중한 만큼 인증

실사 준비 단계부터 실사현장에서 판단해야 할 일들을 위한 충분한 사전 교육의 준비가 필요하다.

(5) 정책의 일관성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현재의 기준 및 절차를 향후 최소 5년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기되는 문제는 향후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취합하고 연구되어야 한다.

(6) 자료 전시

프로그램이 전시하는 작품들은 실사위원이 평가하기 쉽도록 전시물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목간의 연계과정 명시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에 참관 기회가 보다 많이 필요하다.

(7) 기타

기타로, 참관인에 대한 추천 및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학생 수행평가기준의 해석 상 문제가 있는 부분의 보완, 그리고 실사 중 핸드폰의 잦은 사용에 의한 실사의 진행 어려움 등이 제기 되었다.

상기의 내용으로 볼 때, 실사팀 위원의 교육이 보다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전문적인 실사팀 위원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증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국외의 인증실사(제도) 전문가 초청 또는 국외 인증실사 사례에 참관을 통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고 인증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에게 보다 구체적인 준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향후 인증실사팀 교육에서의 유의사항 - 인증위원회와 실사팀의 의견교환

(1) 실사팀 실사 후 평가작업

최초 실사의 경우, 실사팀이 구성된 뒤 사전 교육만 6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국제실사라는 특수상황에 따라 실사직전, 실사직후, 공청회, 세 학교의 실사기준을 팀과 인증위원회간의 최종 회의를 통하여 끊임없이 교육, 토의를 거쳐 진행하였다.

그 중에서 인증위원회의 최종실사조건 판정을 위한 실사팀과의 회의에서 실사에 참여했던 실사팀장, 국내 실사팀들과 참관인 및 인증위원회 위원들

이 모두 모여 처음으로 해당 실사팀의 설명과 함께 세 프로그램별로 실사당시 사진을 보고 실사진행 당시의 입장과 관점, 평가기준들을 토의 하였다. 그 결과 세 프로그램의 전시방식과 그 내재된 상이함 등을 통해 향후 실사를 준비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쟁점이 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5개 건축학교육 인증의 주요관점과 학생수행평가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41개 세부 항목의 Met/ Not Met의 기준이 무엇이었나? 그것을 결정하는 원칙이 있었는가?
- Not Met을 판정하는 절차는 무엇이었나?
- 평가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 인증조건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 학생들의 성과물전시가 적절하게 선택되고 충분히 보여졌는가, 상중하 수준별 전시가 모두 되는 것이 타당한가? 상위그룹만 전시하고 나머지는 전시 대신 보관만 하는 것이 타당한가?
- 동일한 강좌가 여러 개로 분반된 경우 모든 수업의 사례를 통합하여 한 강좌별로 전시를 해야 하는가, 분반별로 전수전시를 해야 하는가?
- 참관인은 실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가?

위와 같은 쟁점들은 실사팀별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이며 실사팀별로 상이한 평가기준과 태도가 적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향후 여러 프로그램들의 인증실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할 때 반복적으로 제기될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결과 세 팀의 경우 인증실사를 진행한 방식과 기준, 실사의 태도 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세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실사경험이 풍부한 국제 실사위원들로부터 실사 초반부부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다음 실사 단계에서 전시된 자료들뿐만 아니라 교수 면담, 추가 자료요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한 팀이 있었던 반면 전시된 내용만으로 평가를 끝낸 팀도 있었다. 또한 Met/Not Met을 정할 때 Not Met의 수를 줄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상호점검과 토의를 거친 팀과 거치지 않고 결정한 팀이 있었다. 전시방식과 내용에서 전수 전시를 한 경우와 상중하를 골고루 전시한 경우, 상위 그룹만 전시한 경우 등으로 나뉘었다. 또한 참관인의 경우 실사과정에 참여하여 역할을 적극적으로 분담한 경우와 참여를 배

제시된 경우 등으로 나뉘었다.

그 결과 실사팀에 의해 최종적으로 제시된 실사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볼 때 Met/Not Met의 개수로는 비교할 수 없는 구체적 지적들이 결국 실사보고서에 다 정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팀은 부족한 것을 Not Met으로 지적하고 끝낸 반면, 어떤 팀은 Met으로 표기하되 권고사항(concerns)으로 조목조목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실사팀간의 편차는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겠으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및 지침 마련과 실사팀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보완해 나갈 부분이라 할 것이다.

5.2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제도의 확립 및 대학교육 특성화 방향 제안

국내 최초로 시행된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제도의 운영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외의 사례를 통해 획일화된 국내의 교육환경에서 특성화를 위한 다각적 분석 및 사례 제시로 인증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한다. 또한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인증실사의 결과물을 반영하며, 국외에서 초청되는 인증실사팀 위원 및 국내 인증실사팀의 실사 결과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전국 대학 대상으로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반적 문제점 및 장점을 적극 수용할 것이다.

또한 전국 대학관계자 및 건축 실무계 등 건축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간의 연구 성과와 보완될 부분을 도출하고 반영하여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제도의 확립 및 대학교육 특성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건축학교육 대학의 특성화 및 연착륙을 통한 건축교육 선진화 자료로 제공되어 향후 건축설계산업의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의 모델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2.1 인증제도 확립을 위한 대학교육 연계

건축학 인증제도 확립을 위해서 각각의 프로그램은 연계되는 몇 가지 제도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국가의 고등교육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향후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할 국외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 문제의 해결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이것은 전문 인증기관에 관한 국가적 관리 체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건축사과 같이 세계적으로 실무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은 별도의 인증원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질적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러므로 주로 정량적 방법으로 사용해 온 기존의 대학교육협의회의 평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노출되었고, 최근 논의에서 보듯이 별도의 운영과 관리 주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 ‘한국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평가 심포지엄’, 2006.11.22)

둘째, 건축학교육 인증의 효용성을 뒷받침할 사회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건축학교육 인증은 건축사자격 취득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확한 후속 조치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2.2 국외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 사례

본 연구 수행 과정으로서 방문한 다음 대학들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 방향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오uckland 대학(University of Auckland, New Zealand) 건축학 프로그램

오uckland 대학은 1883년 설립된 대표적 뉴질랜드의 종합대학으로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현재 재학생수는 30,000명에 이르고 약 2,000명의 교수진과 2,500명의 일반직원의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의 인문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아시아 및 호주권의 문화와 경제권역 속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 국가적 장래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학문분야연구는 물론, 지속가능한 미래 개척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축학과는 건축 및 도시계획 프로그램에 속해 있으며, 이것은 또한 창작 예술 및 산업 학부(Faculty of Creative Arts and Industries)라는 독특한 명

칭의 학부에 속해 있으며, 건축학 분야를 창작이라는 큰 틀로 간주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지향하고 있다. 창작 예술 및 산업 학부에는 아래와 같이 건축학, 도시설계 및 계획, 순수 및 시각예술, 음악, 무용 등의 창작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 School of Architecture and Planning
- Elam School of Fine Arts
- Manukau School of Visual Arts
- School of Music
- Dance Studies

건축학과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과거에는 건축학과(School of Architecture)와 도시계획학과 (Department of Planning)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2006년도부터 건축 및 도시계획 프로그램(School of Architecture and Planning)으로 통합되었는데, 이것은 두 밀접한 학과간의 학문적 융합을 기반으로 창작 예술 및 산업 학부의 틀 아래의 나열된 위 프로그램들 중 하나로서 동일 학부 내에서 더욱 효과적 시너지 효과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프로그램 아래에서 제공되는 학위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며, 대학 전체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각 분야들의 교육이 한 지붕 아래에서 제공되며, 상호작용에 의한 분야별 응용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Bachelor of Architectural Studies (BAS) and Bachelor of Architecture (BArch)
- Doctor of Philosophy
- Master of Architecture
- Master of Architecture Sustainable Design
- Master of Urban Design
- Postgraduate Diploma in Architecture
- Bachelor of Planning
- Doctor of Philosophy
- Master of Planning
- Master of Urban Design

- Master of Planning Practice
- Master of Urban Design (MUrbDes)

- Bachelor of Fine Arts (BFA)
- Master of Fine Arts
- Postgraduate Diploma in Fine Arts
- Doctor of Fine Arts
- Doctorate of Philosophy in Fine Arts
- Taught at the Manukau School of Visual Arts
- Graduate Diploma in Fine Arts
- Bachelor of Visual Arts (BVA)
- Bachelor of Performing Arts (BPerfArts) Maaori Studies
- Bachelor of Performing Arts (BPerfArts) Pacific Studies

- Bachelor of Music (BMus)
- Bachelor of Performing Arts (BPerfArts) in Jazz or Popular Music
- Doctor of Philosophy
- Doctor of Musical Arts
- Doctor of Music
- Master of Music
- Master of Creative and Performing Arts (Sound Recording and Design)
- Postgraduate Diploma in Music
- Postgraduate Diploma in Creative and Performing Arts (Sound Recording and Design)
- Bachelor of Music(Hons)

- Bachelor of Performing Arts (BPerfArts) in Dance
- Bachelor of Performing Arts (BPerfArts) Maaori Studies
- Bachelor of Performing Arts (BPerfArts) Pacific Studies
- Master in Creative and Performing Arts
- Postgraduate Diploma in Creative and Performing Arts

또한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Aotearoa)의 지역 특성 속에 발견될 수 있는

환경 및 건축적 문제들을 다루며 프로그램의 내용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 여건에 기반을 둔 건축학프로그램의 특성화 예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일명 ‘오션스튜디오(Ocean Studio)’는 교수진의 연구와 교육을 접합시킨 특유의 작업형태로써, 건축학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풍요로운 창의력과 지역적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써 멀티미디어 분야와 순수예술, 그리고 외국어문학, 아시아문화, 그리고 퍼시픽스터디(Pacific Studies) 분야를 혼합시켜 지향하는 건축교육을 건축학전공 1학년 교과과정에 배정하고 있다. 오션스튜디오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의 차원을 넘어 대학 교수진의 연구와 문헌출판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성화된 건축학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포츠머스 대학(University of Portsmouth, UK) 건축학 프로그램

영국의 포츠머스 대학의 건축학 프로그램은 기존의 독립적 교육단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설계와 관련된 유사분야 및 이들의 시너지효과를 지향하는 독특한 학부에 소속되어 있다. 이 학부의 정식명칭은 “Faculty of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이며 “창조·문화산업 학부”로 번역될 수 있다. 이 학부는 다음과 같은 6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의 하나가 바로 건축학 프로그램이 된다.

- Portsmouth School of Architecture
- Portsmouth School of Art, Design and Media
- School of Creative Arts, Film and Media
- Department of Creative Technologies
- Portsmouth Centre for Enterprise
- Institute of Industrial Research

위의 프로그램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한 예술 매체 및 기술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사업체(enterprise)나 전체적인 산업체(industry)를 겨냥한 부속기구를 가지고 있다. 이 학부에서 제공되는 학위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 UNDERGRADUATE (학사학위):

- ABC Diploma Foundation Studies (Art And Design) –
- Animation – BA (Hons)
- Architecture – BA (Hons)
- Art, Design And Photography – Access To He
- Communication Design – BA (Hons)
- Computer Animation – BSc (Hons)
- Computer Games Technology – BSc (Hons)
- Creative Computing Technologies – BSc (Hons)
- Creative Technologies And Enterprise – FdSc
- Design For Interactive Media – BA (Hons)
- Digital Media – BSc (Hons)
- Digital Video Technologies – BSc (Hons)
- English And Creative Writing – BA (Hons)
- English And Drama – BA (Hons)
- English And Film Studies – BA (Hons)
- Enterprise In Computer Games Technology – BSc (Hons)
- Enterprise In Entertainment Technology – BSc (Hons)
- Entertainment Technology – BSc (Hons)
- Fashion Textiles Enterprise – BA (Hons)
- Film And Video – Access To He
- Film Studies – BA (Hons)
- Film Studies And Creative Writing – BA (Hons)
- Film Studies And Drama – BA (Hons)
- Film Studies And Entertainment Technology – BA (Hons)
- Fine Art – BA (Hons)
- Illustration – BA (Hons)
- Interior Design – BA (Hons)
- Media Studies – BA (Hons)
- Media Studies And Creative Writing – BA (Hons)
- Media Studies And Drama – BA (Hons)
- Media Studies And Entertainment Technology – BA (Hons)
- Multimedia Programming – BSc (Hons)

- Music And Sound Technology – BSc (Hons)
- Photography – BA (Hons)
- Three Dimensional Design – BA (Hons)
- Video Production – BA (Hons)

■ POSTGRADUATE (석사학위):

- Architecture & Environment – MSc
- Art Design & Media – MA
- Computer Animation – MSc
- Computer Games Technology – MSc
- Creative And Computational Sound – MSc
- Creative Technologies And Enterprise – MSc
- Creative Writing – MA
- Design For Digital Media – MA
- Digital Media – MSc
- In Architecture – Diploma
- Master Of Architecture – MArch
- Professional Practice: Architecture – MA
- Real-Time Media Communications – MA
- Scientific And Technical Communication – MSc

수여되는 학위명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창조”와 관련 “기술”에 관련된 거의 모든 장르에 대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학점교류나 학생이나 교수집단 간의 인포멀한 상호교류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이 학부에서 교육받는 건축학 프로그램 학생들은 기존의 독립된 분야로서의 건축설계 교육은 물론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지니게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3) 미국 건축학교육의 특성화 사례

다음 사례들은 오랜 역사를 거쳐 다양하게 발전된 미국 건축학교육의 특성화 사례들로서, 미국 건축학교육의 전반적 내용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건축학 교육의 사회적, 지역적, 대학 특성적, 학문적 주제 등의 여러 여건 속에서 각자에게 적합한 건축학교육의 특성화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사례들이라고 판단된다.

(1) 펜실베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

펜실베니아 대학은 오랜 전통을 대표하는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대학들인 아이비 리그(Ivy League) 대학 중 하나로서, 현대 건축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 루이스 칸(Louis Kahn)이 수 십 년간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펜실베니아 대학은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추구하는 건축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대학원 중심의 건축학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진에 의한 새로운 건축이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전문 건축학위 교육을 대학원과정에서 실기 중심으로 제공하며, 건축과 예술이론, 역사분야와 접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원의 구성원들은 학부교육을 타 전공분야로 수료한 학생들과 건축 관련 분야의 학부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건축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전형적 건축학석사(M. Arch.)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학부에서는 건축교육의 기초과정이 되는 환경디자인(Design of Environment) 전공을 4년제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고, 본격적 전문 건축학위과정은 디자인 대학원(School of Design)에서 3년제 과정으로 제공한다.

(2) 렌셀러 공과대학(RPI,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렌셀러 공과대학은 1824년 과학적 지식을 연구하여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설립목표아래 혁신적이며 실질적 공학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진 종합대학이다. 건축대학(School of Architecture)은 학부과정으로서 5년제 건축학학사(B.Arch) 전문 건축학위과정과 석사학위로서 건축학석사(M. Arch)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학석사학위를 제공하는데, 대학의 설립목표와 오랜 공학기술교육의 전통아래 건축의 음향, 조명, 보존, 친환경건축기술 등과 건축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화된 건축기술 분야의 연구와 교육과정은 전 미국에서 최고의

교육여건과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성화된 일반 건축학 교육의 토양을 마련해주고 있다.

(3) 남가주 건축대학(SCI-Arc)

남가주 건축대학은 1972년에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건축대학으로서, 기존의 전통적 방식의 건축개념과 교육의 방식을 거부하고, 실험적이고 혁신적 건축 미래를 지향한다는 교육 및 연구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설립 4년 후 미국 건축인증원인 미국건축학교육인증원(NAAB)으로부터 전문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았으며,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 건축이론가들과 실무자들에 의한 건축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교육의 성과물들을 보면 미국 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실험적이고 미래지향적 건축의 개념과 실습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 서부의 자유분방하고 진보주의적 지역 문화적 성향과 맞물려서 건축학교육의 내용을 특성화시키고 있다. 제공되고 있는 학위는 5년제 건축학학사(B.Arch) 과정과 건축학석사(M.Arch) 과정 등이다.

(4)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대학(RISD,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대학은 1877년 예술가들의 활동으로 정평이 나있는 미국 동부 로드아일랜드의 프로빈스(Province) 지역에 설립된 역사 깊은 예술, 조형 및 디자인 전문교육기관으로써, 예술지향적 타 전공분야와 융합된 특성화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왔다. 대학 주변에 풍부하게 조성되어 있는 조형 및 미술 교육을 바탕으로 건축학위 교육은 학부과정에서 전문 건축학위 과정인 5년제 건축학학사(B.Arch)와 석사학위(M.Arch) 과정이 있다.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대학의 전공분야는 기초교양교육을 위한 교양학부를 비롯하여 건축, 도예, 영화, 유리세공, 시각디자인, 그래픽, 산업디자인, 공예, 사진, 조각, 텍스타일 디자인 등의 관련 학부와 석사학위 전공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그 이외 타 분야의 교육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학 교육에 있어서도 디자인 대학의 토양 아래 특성화되어 있으며, 기술 및 이론영역에 중점을 둔 건축학 교육보다는 예술과 조형성 및 실기능력에 중점을 둔 특성화된 전문 건축학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5.2.3 특성화 방법론

국내 최초로 시행된 건축학교육인증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극복하고 프로그램 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건축학교육인증은 각각의 프로그램이 건축학교육에 관한 창의적 사고에 바탕을 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다룬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특성화를 위한 효과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균형성을 갖춘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성화는 바로 건축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건축설계산업을 위한 핵심 사항으로 작용할 것이다.

프로그램은 주변의 여건에 따른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하는 교과과정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크게 네 가지 범주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 여건이다. 5년제로 변경한 각각의 프로그램은 고유한 자신의 역사를 바탕 위에서 성립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여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에서 특성화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이것은 건축학교육에 있어서 5년제 교과과정이 유일한 대안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학부 4년제와 대학원 2년제의 연계 방안(이때 대학원 2년제가 인증대상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은 특성화의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이다.

둘째는 지역 여건이다. 모든 대학들은 개별적으로 타 지역과 다른 환경에 처해 있으며, 그 지역에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연결망을 가지고 이바지하고 있다. 대학에 소속된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특성화를 모색해볼 수 있다.

셋째는 대학 여건이다. 프로그램은 해당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특성화를 모색해볼 수 있다. 대학마다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이 다른 만큼, 건축학교육을 위한 접근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양한 사고와 접근이 건축학교육 인증제도 확립의 토대이다.

넷째는 주제 여건이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배경과 학문적 태도를 가진 인적 자원을 지닌다. 프로그램의 구성원들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건축

학교육에 관한 차별화된 주제 의식은 특성화의 관건이다. 아울러 어떤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의 상호교류가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연합하여 교과과정을 운영(일부 혹은 전체 교과목)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VI.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제도 확립을 위한 정책제안

건축학교육인증제도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건축학교육인증제도가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또한 궁극적으로는 한국 건축사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전세계 어디에서고 자유로이 실무를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비단 건축학교육인증과 이를 주관하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공교육 이후의 실무수련 기간이나 건축사자격취득 시험 및 건축사 계속교육을 담당하게 될 (가칭)한국건축사등록원이 필요하며, 건축사법과 관계 법령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과 한국건축사등록원 두 기관의 존재와 기능을 명시하여야 하며, 건축사자격 요건에 교육인증과 실무수련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 장에서는 위에 언급된 사안에 대하여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관점을 설명한 후, 이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6.1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요건

현행 건축사법에 의하면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다음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교육요건 (2) 실무경력 요건 (3) 건축사예비시험 (4) 건축사자격시험.

이 중 교육요건 및 실무경력 요건은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15조), 실무경력 요건은 다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이 되어야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14조). 여기서 실무경력 5년은 건축사자격시험을 치루기 위해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요구조건이며, 그 이상의 실무경력 요구는 교육요건의 충족도에 따른 보완의 개념으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표 8 참조).

요약하자면, 현행법에 의하면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두 번의 시험을 제외하면 (1) 교육요건과 (2) 실무경력 요건으로 나뉜다. 이것은 외국에서도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며, ‘교육’과 ‘실무경험’을 건

축설계라는 전문업의 두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이며 또한 보편적 원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축사법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부여하고 있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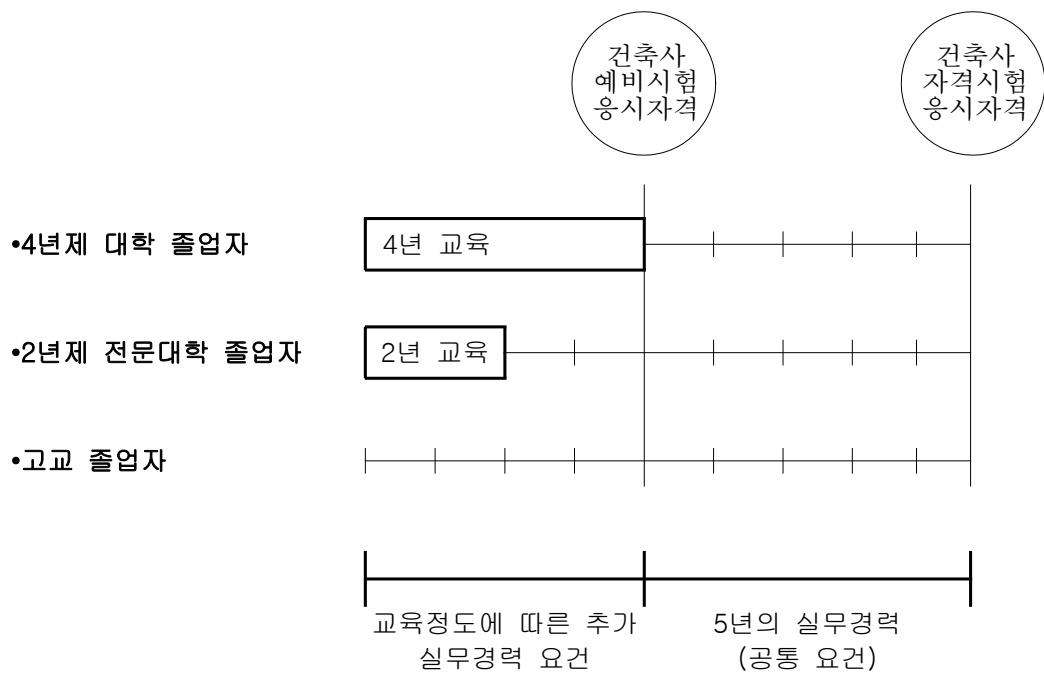


표 2 교육정도에 따른 실무경력요건의 차이

현행법에서는 교육요건을 단순히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정도로만 구분하고 있다. 이 규정의 근본 취지는 4년제 대학 건축 관련 교과과정을 졸업하는 것을 건축사자격취득의 1차적 기준으로 삼아 (물론 그 이후 기본 5년간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2년제 건축 관련 교과과정 졸업의 경우는 2년, 고교 졸업은 4년의 추가 실무경력을 보완하면 건축사자격취득의 1차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최소 5년간의 전일제 건축설계교육”을 건축사자격의 최소요건 중의 하나로 삼는 UIA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뿐더러 “인증”된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 과정을 졸업해야 한다는 UIA,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실무경력 요건 또한 국제적 기준과는 다르다. 국제적 기준은 교육 후 최소 2년간의 건축설계 실무수련기간을 요구하고 있음에 반해, 현행 건축사법에는 단순히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이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건축사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국제적 기준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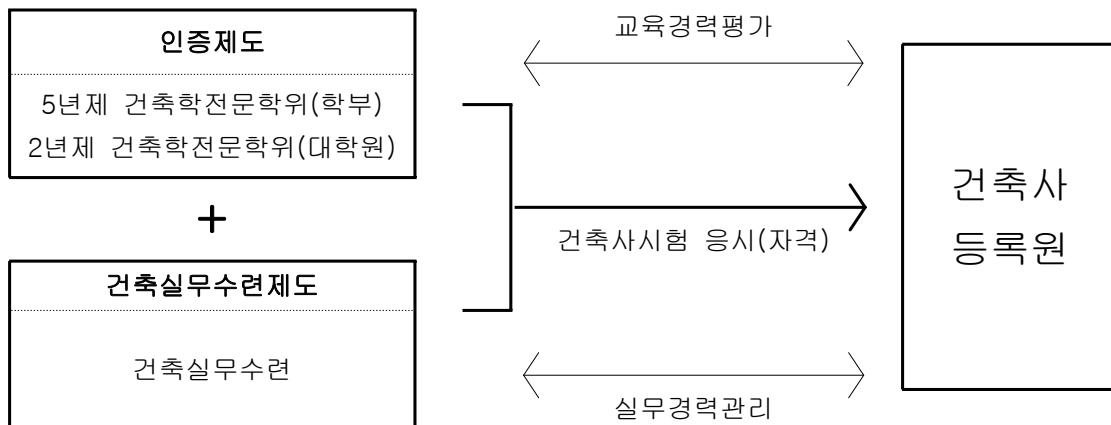


표 3 건축사 자격 취득 요건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건축사법이 개정될 때에는 이러한 구체적 기준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인증”된 건축학 전문학위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증된 전문학위과정 졸업은 필수조건이 되어야 하며,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다시 인증된 5년제 전문학위 학사과정에 편입을 해야 할 것이며, 고교 졸업자는 5년제 전문학위 학사과정에 입학해야 할 것이다. 한편, 4년제 학부과정(건축 관련 과정 또는 타전공 과정) 졸업생들은 2년 또는 그 이상의 인증된 전문학위 석사과정에 입학해야 하는 것이다. 이 방법 이외의 방법, 즉, 인증된 전문학위 과정 졸업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추가 실무경험만을 토대로 건축사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며, 따라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고려해서는 안 되는 방안이다. 참고로 미국의 사례를 보면 다음의 “6.1.1 미국 건축사등록원의 교육요구 조건”과 같다.

6.1.1 미국 건축사등록원(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의 교육요구조건

미국 건축사등록원(NCARB)은 해외 건축사제도의 대표적 건축사등록원 운영의 사례로써 국내 건축사제도 개선 및 건축사법 개정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 흔히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표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NCARB 운영의 맥락에 대해서 미국사회의 특수한 정치 및 사회제도적 상황에서 비롯된 특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부 내용이 단순화 되어 소개됨으로써 그 본질이 왜곡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NCARB 운영의 미국적 맥락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미국 건축사등록원(NCARB)의 이해와 설립목표

NCARB 설립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NCARB는 미국 50개 주의 법적 효력을 갖는 건축사등록업무 주관 기관이 참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써, 그 설립의 목표는 각 주관 기관의 설립목표와 공익의 실천을 위해 건축사 등록자격을 위한 교육기준과 건축사 업무내용의 기준을 세우고, 회원 단체를 위해 건축사등록 자격기준을 부여한다. 또한 사설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회원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¹²⁾

즉, NCARB의 업무내용과 설립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 문장에서 등장하는 ‘건축사등록업무 주관 기관’ 또는 ‘회원 단체’로 표현되는 어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NCARB를 구성하는 회원단체는 ‘건축사등록업무 주관 기관’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에게 흔히 인용되어 이해되고 있는 미국의 건축사등록원인 NCARB는 법적 효력을 자연적으로 갖는 건축사등록원이라고 보기보다는 ‘건축사등록업무 주관 기관’들의 모임이며, NCARB가 아닌 각 회원 기관들이 실질적 또는 주어진 주권영역 내에서의 법적 효력을 행사하는 기관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미국연방은 개별적 주권을 행사하는 50개주의 연합으로 이뤄지며, 각 주의 개별적 법령에 의해 해당 주권영역의 건축사등록과 관련 건축사법이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등록건축사로써 건축사업무를 수행

12) NCARB 2006-2007 Education Standard, www.ncarb.org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건축사법령에 의해야 하며, 해당 주의 건축사등록 업무 주관 기관이 정의내리는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건축사 업무가 해당 주의 지리적 영역 범위를 초월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개별 주 간에 상호 인정가능한 건축사 등록요구조건에의 기준이 필요해짐에 따라 각 주의 개별 건축사등록 주관기관들이 연합하여 사설단체인 NCARB를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개별 건축사등록 주관기관들은 건축사등록과 관련한 교육기준, 건축사 업무의 내용기준 적용 등에 있어서 NCARB에 의뢰하여 그 기준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NCARB는 태생적으로 법적효력을 갖으면서 미국 전체의 건축사등록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은 아니며, 회원 기관들의 합의에 의해 설립한 NCARB 교육기준과 건축사등록 기준을 제시하고 회원 기관들로부터 의뢰받은 건축사등록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을 뿐 그 법적 효력은 각 주 단위의 건축사등록 주관 기관에게 있고, NCARB의 기준과 등록업무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들이 자신들의 주권영역 내에 NCARB의 기준과 등록업무를 법적 효력으로 인정했을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NCARB의 정확한 역할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단편적 ‘건축사등록원’의 의미보다 복합적 맥락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50개 주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주 별 건축사등록에 관련된 법령이 각 주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존재해왔고, 그 기반 위에 NCARB 기준에 의한 건축사등록업무가 동시에 또는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예가 많아진 것에 불과한 것이다.

2) 미국 건축사등록원(NCARB)의 교육기준 3항에 대한 오해

NCARB가 설립한 NCARB 등록건축사가 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로써 잘 알려진 것이 NCARB 교육기준이다. 이 교육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로써 크게 세 가지가 있으며 그 첫 번째로 NCARB가 인정하는 인증전문학위과정들에 의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두 번째로 미국의 교육학위 평가원(EESA)에 의해 평가 및 인정된 외국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로써 NCARB가 요구하는 전공 및 실무영역의 일정기준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건축사’의 경우로서 BEA (Broadly Experienced Architect process)라고 알려져 있는데, NCARB가 정의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보면, BEA 자격은 건축사 등록을 원하는 지원자의 자질이 교육과 풍부한 건축실무의 경험을 통해 NCARB 교육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로써 세 단계인 NCARB 기록구비, 평가, 개별면접을 거쳐 부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중 첫 단계를 보면,

‘1. NCARB 기록 구비: 공식 NCARB 기록을 구비해야 하며, 이 기록은 고등학교 교육 수료증과 미국 내의 관할법령이 부여한 등록건축사로서 수행한 종합적 건축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 증빙자료들로 이뤄진다.’ 라고 전제하고 있다.¹³⁾ 즉, 흔히 우리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풍부한 경험을 갖춘 건축사 (BEA)’란 아무 건축업 수행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건축실무경험만을 풍부하게 쌓은 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적으로 등록건축사가 되기 위한 교육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NCARB가 정의내리고 있는 BEA는 미국 내 한 주의 법령에 따라 ‘등록건축사’자격으로 이미 관할구역에 등록된 건축사들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BEA의 조건으로써 지원자의 각기 다른 교육이수수준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실무경험의 최소 연한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NCARB 등록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NCARB 교육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건축사(BEA)’자격으로써 NCARB 교육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달리, 미국 내 한 주의 개별 법령 하에 이미 등록되어 풍부한 건축실무경험을 쌓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사등록 자격이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풍부한 실무경험만으로 NCARB 교육조건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6.2 건축실무수련기간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개정될 건축사법에서는 막연히 실무경력만을 언급하기 보다는 이를 건축실무수련기간(internship)으로 적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의

13) “Three Ways to Satisfy the NCARB Education Standard”, NCARB 2006-2007 Education Standard, www.ncarb.org

실무수련에 대해서는 새로이 설립될 건축사등록원에서 그 기준 및 인증 방법을 개발하고 그 운영을 담당하게 하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2006년 3월에 발표된 연구보고서 “건축사제도 중장기 개선방안연구”에 그 구체적인 제안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포함한 건축사등록원의 제안 설립준비 과정에 인증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인증과 실무수련의 연계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6.3 건축학교육인증원과 건축사등록원의 위상

이 두 기관은 국제적 건축사 양성 및 건축사의 국제적 상호인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두 기관의 위상에 대한 해외사례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의 경우인데, 우리나라의 체제와 동일하게 건축사자격취득의 최종관문은 자격시험이 된다. 인증받은 전문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련기간을 거친 뒤, 최종자격시험에 합격해야 건축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 나라들은 건축학교육인증원과 건축사등록원이 민간기구로서 각기 독립적으로 설립되어 긴밀한 상호협조를 전제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건축학교육인증원(NAAB)은 교육 인증평가기준의 제시 및 인증과정을 전담하며, 건축사등록원(NCARB)은 실무수련과 건축사자격시험을 담당한다. 이 두 기관은 공히 민간기구이며 이들의 협조관계는 건축사등록원이 인증원 이사의 지분을 가지고, 이에 따라 인증원의 일부 예산을 책임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영국 및 영연방 국가의 경우는, 인증받은 전문학위과정 졸업 후 일정기간의 실무수련기간을 거치면 자동적으로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영국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사등록원(ARB)은 따로 존재하지만, 교육인증기능은 영국왕립건축사협회(RIBA)에 속해 있다. 이는 교육과 실무수련만 마치면 자동으로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건축설계전문단체인 RIBA에 책임을 지고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체제가 동일한 바, 우리는 인증원과 등록원이 각기 독립된 기관으로서 존재해야 할 것이다. 최종관문으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건축학전문교육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증원이 독립된 기능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건축계 일각에서는 등록원 산하에 인증원을 두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발상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적하고자 한다.

건축설계 실무와 건축설계 교육은 교육이 실무로 이어진다는 상호연관성이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영역이다. 지난날 도제식 교육이 설계 분야에서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대학교라는 제도가 존재하며 대학교육은 전공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반 교양인의 육성과 건축설계업무 이외의 건축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문의 발전도 책임지고 있다. 그러므로 실무건축사의 자격과 건축교육의 수준 문제는 통합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인증원의 역할과 등록원의 역할은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건축학 교육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의 건축설계 실무의 한계를 뛰어 넘어 미래지향적 건축설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증원이 기존 건축사의 자격기준만을 담보하는 등록원의 하부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두 기관이 상호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며 때로는 상호견제의 역할을 지니게 될 때 두 기관이 사회, 국가적 소임을 다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교육 자율권의 훼손 문제는 건축계를 떠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현실적 문제를 예상해 본다면, 첫째, 인증원의 인증 대상이 되는 대학교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다. 현재 인증원은 교수와 실무건축사가 1/2씩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설계실무 분야의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교육분야의 요구사항도 인증원의 업무 수행이나 인증기준 설정에 반영되고 있다. 등록원이 인증원의 업무마저 담당하게 된다면 건축설계교육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현 상황에서 아무래도 현업 건축사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등록원이 인증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명백히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인증기준 및 인증의 수여 조건을 어렵게 하여 신규 건축사의 배출 또는 공급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대학교의 큰 반발이 예상되며 집단민원의 소지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 더욱 크다고 본다.

인증제도 및 건축사 등록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인증원은 건

축사 등록원의 하위조직이 아니라, 건축사등록원(NCARB), 건축사협회(AIA), 건축교육협회(ACSA) 세 기관이 각기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상호협조와 견제를 통하여 엄정하고도 객관적 인증기준과 절차를 유지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큰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증원과 등록원은 개인이 건축사자격취득의 2개 요건--교육과 실무수련--을 충족하는 지를 판단하는 2개의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하며, 이 2개 독립기관의 상호협조체제 하에 우리의 건축설계산업을 보호, 육성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축사가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6.4 경과조치

“인증된 건축전문학위과정을 졸업한 자라야 건축사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한 건축사법의 개정이 추진되어야 하나, 아직 그 개정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 한편으로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은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2004년 12월 공식 설립되었고, 그 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준비작업과 공청회 등을 거쳐 2005년 10월 인증기준 및 지침이 공표되었다.

국내 여러 대학교는 2002년 이미 5년제 학부 건축학 전문학위과정을 시작하였고, 2007년 2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다. 또한 이보다 앞서 다수의 건축전문대학원이 설립되어 이미 상당수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인증원은 설립 당시, 각 건축학 전문학위과정이 첫 인증을 받게 되면, 이 인증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인증원은 이미 계획된 일정에 따라 2006년 11월 최초로 3개 학부 건축전문학위과정에 대한 인증실사를 수행하였으며, 2007년 1월 말에 세 프로그램의 인증최종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이어 2007년 상반기에는 1개 건축학 전문학위과정이, 하반기에는 6개 건축학 전문학위과정이 인증실사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2007년 1월 인증최종결과가 발표되는 3개 건축학 전문학위과정은 2007년 2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므로 인증 직후 배출되는 졸업생부터 그 인증이 유효하다는 원칙을 상기해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소급적용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시적으로 운용하

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 조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증기준 및 지침이 공표된 2005년 10월 당시 이미 74개 대학교에서 5년제 건축전문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중 5개 대학교가 2005년에 개설하였고, 69개 대학은 이미 2004년 이전에 개설하였다. p 40 표 “건축학과(5년제) 및 전문대학원 개설(예정) 대학” 참조)

그 의미는 엄밀하게 볼 때 인증원기준 공표이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인증후보자격신청, 인증신청 등을 통하여 인증원의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심사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그 내용에 대한 사실상 충족여부는 실사를 통해 검증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인증후보자격심사 시점에서 거부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교과 운영상 5년제 기준에 불충족 된다고 판단되었다면 이를 나중에 무시하고 소급적용을 해주는 것의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무시하고 소급적용을 해줄 경우 인증의 신뢰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급적용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인증후보신청자격 획득이후 소급적용하고자 하는 당해연도까지 동일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왔음을 입증 할 수 있을 경우, 인증위원회의 인증신청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시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예컨대 2009년 인증실사를 받는 2002년에 시작한 프로그램은 인증신청서/APR /인증실사 동안 동일한 교과 과정이 운영되어 왔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소급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5 건축사법 개정 제안 - 인증원 관련 조문

아래의 내용은 앞 절에서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건축학교육인증원에 관한 관련 부분이 법제화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제안이다. 현재 건축유관기관 및 단체들을 중심으로 건축사등록원(가칭)이 준비 중이고 그와 연계하여 건축사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준비 중이다. 그와 관련하여 현행 건축사법 법조문을 기준으로 내용을 만든 것이며 법제화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사법의 개정시안>

제 3장 시험

제14조 (건축사자격시험)

① (응시자격)

건축사법의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요건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건축학 전문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한국건축사등록원(가칭)이 요구하는 소정의 실무수련을 700단위 이상 수련한 자”로 개정한다.

제15조 (건축사예비시험) 폐지

① (예비시험)

건축사 예비시험제도는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자에게 자격시험 응시요건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인증받은 전문학위과정 졸업자에게만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이상 예비시험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건축사법의 예비시험에 관한 조항 삭제 필요)

제 6장 건축사협회 (현행)

제 7장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신규 삽입)

제 39조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건축학 전문학위과정의 인증을 통하여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므로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건축사법 제6장(건축사협회) 다음에 제7장으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조직, 업무 등의 대강을 규정하도록 한다. 인증기준, 인증방법, 내용 및 절차 등과 이에 따른 개정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 *****호, *년 *월.*일>

① (시행일)

대학 등이 전문학위과정 인증을 위한 준비를 갖추는 데 7년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증기준 및 지침이 공표된 2005. 10.을 기준으로 7년이 경과한 2012. 10.부터 개정법을 시행하여, 그때부터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건축학 전문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② (인증에 관한 경과규정)

법 시행 이전에 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은 법에 의한 인증이 아니므로 법시행 전의 인증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한 인증은 이 법에 의한 인증으로 본다”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③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규정)

각 프로그램이 최초 인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증 이전에 입학하였으나 인증 후 졸업한자”와 “인증 이전에 졸업한 자 중 일정 범위 내의 자”에게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줄 필요가 있다. 경과규정으로 “사단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이 법 시행 전에 인증한 건축학전문학위과정에 인증 당시 재학 중이었던 자가 그 과정을 끝까지 이수하고 졸업한 때에는 ‘인증한 건축학 전문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본다.

사단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이 법 시행 전에 인증한 건축학전문학위과정을 인증 이전에 졸업한 자 중 당해 건축학 전문학위과정이 소급인증을 받은 시점 이전에 입학한 자가 그 과정을 끝까지 이수하고 졸업한 때에도 같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소급인증의 절차와 방법은 인증기준 및 지침으로 따로 정할 필요 있다. 소급인증은 인증받은 프로그램이 소급적용 받고자 하는 당해 연도부터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유지되어 왔음이 인증실사 또는 인증후보자격 심사 과정에서 엄격히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VII. 결 론

국제화의 범세계적 조류 속에서 건축설계 서비스의 국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근간이 되는 전문교육을 위해 많은 나라들에서 능력과 자질 있는 건축사를 양성하기 위한 건축교육의 인증제도가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건축학교육의 국제화와 건축설계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건축학교육 인증시스템 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번 첫 인증사업은 그 만큼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5년 터키 이스탄불의 UIA 총회에서 제안된 국가간 건축학교육 상호 인증협약이 2006년 5월에 시작됨에 따라 협의체 구성의 일환으로 개최된 Washington Round Table Conference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공식 구성원으로 참여한 뒤 실현된 국내 최초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실사가 협의체 해당 인증기관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어 한국 건축학교육 인증제도의 국가 간 상호 인정에 중요한 첫 걸음을 시작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간의 준비과정과 국내 최초의 인증실사가 시행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건축학교육 인증제도가 국제적인 수준의 내용과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평가를 통한 인증제도 개선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그간의 준비과정, 최초 인증실사의 경험, 인증제도가 정착된 국가의 인증제도 및 인증실사 참여를 통해 제기된 현행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하여 후속 인증사업을 위한 국내 인증제도의 정착 및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고찰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2005년 이스탄불 총회에서 제안되어 국가간 건축학교육 인증제도 상호 인정을 위한 Washington Round Table Conference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협의체 구성 및 인증제도 상호인정을 위한 양허안이 작성 되었다. 또한 추후 세부 협의를 위한 후속 Conference가 내년 초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국제화라는 범세계적인 조류 속에서 각국은 인증제도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양성을 위한 인증제도를 정착하고 있다.

- 2) 국제화라는 범세계적 조류 속에서 우리나라의 건축학 교육기관의 5년 전일제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개편되어 건축설계 중심의 교육을 시행 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수준의 내용과 질을 확보,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물리적 현황 개선과 인적 자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국내 현황으로 인해 고학년의 경우 휴학생의 비율이 높다.
- 3)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로서 5년 전일제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으로 개편하면서 기존의 구제도가 혼용되어 운영됨에 따른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인증실사를 준비하면서 나타나는 인증원과 프로그램간의 의사소통 부족 그리고 후속 인증실사의 연속성과 지속성 그리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증실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국제적 수준의 인증제도를 확립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 1) 인증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인증기준(2005.09)을 개정할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국내 최초 인증실사에 참여한 국외 인증기관의 전문가들을 통해 제기된 일관되고 공통된 의견은 현재 제시된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맥락은 현재 인증기준이 국제적 경쟁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으며 수정할 사유가 생길 때마다 부분적 수정을 가하다가 본래 취지가 왜곡될 수 있고, 타 프로그램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 5-6년간 인증대상프로그램들이 인증절차를 한 번씩 거친 뒤 누적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제기된 인증기준상의 문제점을 현 시점에서 개정하기 보다는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정립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2) 인증제도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인증제도의 홍보가 필요하다.
- 3) 또한 현행 기준에 의해 진행된 최초 인증실사에서의 기준이 후속 인증사업에서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인증실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지속적인 국외 인증실사 참관 그리고 국외의 인증전문가 초청 교육 등을 마련해야 한다.
- 4)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극복하고 프로그램 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학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의 고유한 역사를 바탕으로 대학별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방향 모색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구성원들은 특정 주제에 대해 의견의 상호 교류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연합하여 교과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 5) 끝으로, 한국의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건축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건축사법과 관계 법령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과 건축사등록원의 존재와 기능을 명시해야 하며, 건축사자격 요건에 교육인증과 실무수련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상기의 두 기관은 개인이 건축사자격취득의 2개 요건인 교육과 실무수련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2개의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인증된 건축학전문학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야 한다.

현재 운영되는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제도는 태생적으로 국제화를 표명하고 있다. 이를 국제적 수준으로 격상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국내에서 인증제도의 정착으로 볼 수 있다. 국내의 현실이 감안된 인증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현행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자구노력은 물론이며 특히 교육주체인 대학은 그간의 획일적 교육제도에서 탈피하여 각 대학의 전통과 현실에 비추어 건축교육의 목표를 확실하게 하고 차별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노력과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학생 개개인 및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질수 없으며 설계시장의 여건 개선 및 제도적 보완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하루 빨리 조성해야하는 전반적 문제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인증실사 과정은 프로그램 간의 상대비교가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들이 지닌 교과운영을 충실하게 해 온 내용을 고유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설득해 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평가는 구체적 사안 하나하나가 아니라 교육주체의 철학부터 콘텐츠, 외적 조건을 총량적으로 판단하는 총체적 평가(holistic assessment)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사가 실무건축사들이 학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거나 학교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갈등한다는 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인증사업이 전 과정을 왜곡하는 그릇된 시각이다.

인증의 본질은 전문실무분야에서 후속세대에 대한 가장 신성한 의무로써 교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영국 RIBA의 사례에서 보듯이 RIBA는 자신들이 담당해야 할 교육을 학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동책임을 헌신적이고 지속적 인증관련 업무에 대한 봉사로서 보답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가장 성공적인 우리 건축계의 국제화사업이 이제 첫 걸음마를 댔 건축교육 인증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 교육계와 실무계가 선진화되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문 헌>

1. 건축사제도 중·장기 개선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6.3
2. 2005 건축학교육현황, 한국건축학교육협의회 추진위원회, 기문당, 2005.6
3. 2005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기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2005.10
4. 이준석, 이상현, 건축교육과정(커리큘럼) 수요인식에 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 2004

<KAAB 인증후보자격 신청서>¹⁴⁾

1.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A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5.
2.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B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5.
3.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C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5.
4.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D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5.
5.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E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5.
6.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F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5.
7.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G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5.
8.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H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5.
9.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I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5.
10.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J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5.
11.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K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5.
12.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L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5.
13.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M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6.
14.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N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6.
15.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O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6.
16.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P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6.
17.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Q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6.
18.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R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6.
19.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S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6.
20.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T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6.
21.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U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6.

14) 인증관련 신청서의 프로그램 명은 무기명 처리하였음.

22.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V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6.
23.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W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6.

< 인증신청서 >

1. 인증신청서, A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6.
2. 인증신청서, B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6.
3. 인증신청서, C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6.
4. 인증신청서, D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6.

< 자체평가보고서 >

- 국내 -

1. 자체평가보고서(APR), A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6.
2. 자체평가보고서(APR), B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6.
3. 자체평가보고서(APR), C 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2006.

- 국외 -

4. 자체평가보고서(APR), 북경공업대학 건축학 프로그램. NBAA, 2002. 1
5. 자체평가보고서(APR), SOUTHWEST JIAOTONG UNIVERSITY. NBAA, 2002. 1
6. 자체평가보고서(APR), The University of Sydney, RAIA, 2003.
7. 자체평가보고서(APR),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COLLEGE OF ARCHITECTURE, NAAB, Volume 1 & 2, 1996. 6
8. 자체평가보고서(APR),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NAAB, 2002. 9
9. 자체평가보고서(APR), Department of Architectur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NAAB, 1992. 6
10. 자체평가보고서(APR),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Department of Architecture, Volume 1 & 2, NAAB, 1992. 6
11. 자체평가보고서(APR), Pratt Institute School of Architecture, NAAB, 2004. 9
12. 자체평가보고서(APR), University of Southwestern Louisiana, NAAB, 1991.
13. 자체평가보고서(APR), The University of Kansas, NAAB, 1998.
14. 자체평가보고서(APR), University of Notre Dame School of Architecture, Volume 1 & 2, NAAB, 2003.

15. 자체평가보고서(APR), University of Idaho Department of Architecture, Volume 1 & 2, NAAB, 2003.
16. 자체평가보고서(APR), Syracuse University School of Architecture, 2003.
17. 자체평가보고서(APR), University of Minnesota Department of Architecture, 2003.
18. 자체평가보고서(AP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Volume 1 & 2, NAAB, 2003.

< 실사팀 보고서 >

- 국외 - (2004년 NAAB 실사팀 보고서(Visiting Team Report))
 - Drury University
 -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 Parsons School of Design
 - Rensselaer Polytechnic University
 - Rice University
 - University of Kansas
 - University of Pennsylvania
 - The cooper Union
 - Cornell University
 - Illinois Insititute of Technology (focused evaluation)
 - Judson College
 - Louisiana State University
 - 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 Syracuse University
 - Texas Tech University
 - Tuskegee University
 -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nomenclature change)
 - University of Idaho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 University of Notre Dame
 - University of Oregon
 -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 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re-vote)

< Web-Site 관련 자료 >

1. 미국 건축교육인증원 (NAAB) <http://www.naab.org>
2. 공학교육인증원 (ABET) <http://www.abet.org>
3. 미국 건축사등록원 "Three Ways to Satisfy the NCARB Education Standard", NCARB 2006-2007 Education Standard, <http://www.ncarb.org>
4.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Conference
<http://collaboration.aia.org/iaav>

< 기 타 >

1. "국내 공대 졸업생들 국제 인증 받는다", 사이언스타임즈, 2006.09.18 일자 기사
2. Matthews, Executive Director of NAAB, Legitimacy through Transparency and Outcomes Assessment in Professional Architectural Accreditation, 국제건축교육심포지엄, 한국건축단체연합/명지대학교건축대학, 2003.11.18, Matthews, NAAB C&P Updates & The Future of Global Accreditation Agreement, 국제건축교육심포지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2005.05.31

부 록

i.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Conference

1. Statement of the 1st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Conference is to explore among the representatives of the invited countries and organizations the opportunities that mutual recognition among their accreditation/validation systems would create, to better understand the challenges and obstacles and, if it should appear desirable to create 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how such a program could or should be implemented.

To investigate the implications of mutual recognition, the 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the accreditation of architectural education for the United States, will chair the Invitational Accreditation / Validation Round Table Conference to identify the interest in creating 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and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related to the creation of such an organization among existing well established accreditation agencies. The Round Table will be jointly sponsored by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 the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Architecture (ACSA), the 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NAAB) and the 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 (NCARB).

In 1994 the UIA established its Professional Practice and Education Commissions to develop international advisory standards for architectural education and practice.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and the UIA signed a protocol in 2000 establishing the UNESCO–UIA Validation Council for Architectural Education. As a result of these commitments the 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the UNESCO–UIA Charter on Architectural Education, and UNESCO–UIA Validation System for Architectural Education were developed and adopted. These documents provide a coordinated set of advisory policies and procedures intended to enhance the transportability of academic and professional credentials across international borders.

The accreditation systems of Canada, the 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shared their documents and experience with the UNESCO–UIA Validation Council. The Validation Council developed the UNESCO–UIA Validation System covering both individual degree granting programs and accreditation/validation systems; however, as the work of the Validation Council progressed it became apparent that the cost of UIA recognition of existing, well established accreditation/validation systems was not being accepted by these systems. Canada, 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ll indicated that they are not interested in spending at the level suggested by the UIA program to achieve recognition by the UIA. In response to this impasse that threatened the credibility of efforts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advisory standard for accreditation/validation, the Validation Council prepared a draft protocol for mutual recognition. The UIA Council adopted the protocol in May, 2000 that calls for 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among like architectural education accreditation agencies throughout the world. A similar program is currently in place for the international engineering profession.

A mutual recognition system is an important step to consider at this time. The objective of a mutual recognition program among validation agencies is to assure that credits and degrees earned at schools of architecture that are accredited/validated by the agencies are recognized by all of the schools accredited/validated by these agencies.

The accreditation/validation agencies and representatives from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of Australia, Canada, China, Mexico, South Korea,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 and the UNESCO–UIA Validation Council a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is exchange. Each country and organization is requested to limit its delegations to three representatives, and will be responsible for the travel and hotel expenses of their delegations. English will be the working language of the conference.

Copyright 2006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ll Rights Reserved.

관련 웹 페이지: <http://collaboration.aia.org/iav>

2. Draft Provisional Agenda

Thursday, May 4

- 10:00 am · Introductions
 - Welcome from chair (Bevins), 5–10 min
 - Commentaries from attending countries, 5min each
- 11:30 am · Description and history of the Washington Accord (ABET, George Peterson and/or Kate Aberle)
- 12:30 pm <Lunch>
- 1:30 pm · Questions and answers, on Washington Accord (ABET rep)
- 2:00 pm · Draft Protocol for 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between Architectural Accreditation/Validation Agencies, context for this meeting
- 3:15 pm <break>
- 3:30 pm · Review of 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Professional (ASPA, www.aspa.org) “Good Practices” document with respect to existing systems
 - Introduction of issues for Friday discussions
- 5:00 pm <Adjourn>
Reception

Friday, May 5

- 9:00 am · Issues Session 1
- 10:30 am <break>
- 10:45 am · Issues Session 2
- 12:30 pm <Lunch>
- 1:30 pm · Issues Session 3
- 3:00 pm <break>
- 3:15 pm · Recap and seek consensus...consider, do we want to do this?
- 5:00 pm <Adjourn>

Saturday, May 6

- 9:00 am · Decision to (or not) proceed
- 10:30 am <break>
- 10:45 am · What to do next...
- 12:30 pm <Adjourn>

관련 웹페이지: <http://collaboration.aia.org/iav>

3. Designated Representatives

Australia	1. David Parken / Chief Executive Officer Royal Australian Institute of Architects 2. Gordon Holden / Past President, Association of Architecture Schools of Australasia, Head of School of Architecture, Deputy Dean/PVC Faculty of Architecture and Desig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CAA	1. Gordon Holden / CAA Senior Vice President 2. George Henderson / CAA Validation Panel Chair
Canada	1. Murray Gallant / President, CACB 2. Christopher Macdonald / CCUSA 3. Marina Lavrow / Executive Director, CACB
China	1. Zhou Tao / Head of General Section, Department of Personnel and Education, The China Ministry of Construction 2. Zhou Chang / Secretary General, The 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 3. Wang Xiaojing / Interprete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
Mexico	1. Héctor García Escorza / Directo Ejecutivo COMAEA, Consejo Mexicano De Acreditación de la Enseñanza de la Arquitectura – COMAEA 2. Fernando Mora Mora / Presidente, Consejo Nacional de Registro y Certificación – CONARC 3. Aarón Bernal Rodríguez / Presidente, Asociación de Instituciones de la Enseñanza de la Arquitectura – ASINEA
Korea	1. Jin Kyoong Kim / KAAB President 2. Sung Jung Chough / FIKA, KAAB Overseas Director 3. Jae Pil Choi / KAAB Secretary General

- UIA**
1. Louise Cox / UIA First Vice President (Region III), Member, UNESCO- UIA Validation Council
 2. Fernando Ramos Galino / Reporter, UNESCO-UIA Validation Council
 3. James A. Scheeler / FAIA, UIA Council Member (Region III), Member, UNESCO-UIA Validation Council
- UNESCO**
1. Wolfgang Tochtermann / UNESCO, Director, UIA International Competitions Commission
- United Kingdom**
1. Humphrey Lloyd QC / Chairman, ARB
 2. Jon Levett / Head of Education, ARB
 3. Simon Allford / RIBA Vice President, Education
- United States**
1. C. William Bevins / FAIA, NAAB President, Chairman of the Round Table Conference
 2. R. Wayne Drummond / FAIA, NAAB President-Elect
 3. Sharon Carter Matthews / AIA, NAAB Executive Director

관련 웹 페이지: <http://collaboration.aia.org/iav>

4. Questions for Comparative Digest –DRAFT

To all invitees: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that will assist in explaining the operations of your accreditation / validation agency. Questions are based on the 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Professional Accreditors (ASPA) Member Code of Good Practice (see www.aspa-usa.org for additional information):

1. What are the mission statement, goals, and objectives of your accreditation agency? Please share a short statement of how objectivity and integrity are assured in your accreditation system.
2. How do you achieve effectiveness in accreditation without unduly burdening the institution under review (issues of costs, time, and complexity)?
3. How do you respect diversity of culture and mission of institutions under review while maintaining minimum standards for the profession?
4. How does your agency inform itself about the needs of the profession, worldwide developments in the discipline of accreditation, and developments in education?
5. In addition to the assessment of institutional resources and how they are allocated with respect to the institutional mission, how does your agency assess student performance outcomes?
6. How are your governance and secretariat functions organized to assure integrity and professionalism in the conduct of their operations?
7. What are your mechanisms to insure that expertise and experience in the applications of standards, procedures, and values are present in members of visiting teams, commissions, and staff (please supply an organization chart)?

관련 웹페이지: <http://collaboration.aia.org/iav>

5. Minutes of the 1st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May 4, 5 and 6, 2006
Washington, DC

Draft, May 26, 2006

Thursday, May 04, 2006

Introductions and welcome – C. William Bevins, FAIA, NAAB President

Mr. Bevins opened the conference by welcoming all those present (see list of attendees) and thanking them for accepting the invitation to join in this historic beginning to the honorable goal of exploring opportunities for mutual recognition of accreditation/validation systems. He pointed out that successful MRAs are difficult to achieve, and that mutual understanding, concern and trust is crucial to this success. Whil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cultural identity, knowledge is the driver of the world economy, and distance is no longer the barrier to knowledge. He emphasized that any agreement must be respectful of differences between cultures. This is a meeting of a group of equals who have come together to investigate opportunities that improve the quality of architectural education.

Following his introductory remarks, Mr. Bevins asked representatives of each country or group to comment briefly on how accreditation of architectural courses/programs is structured in their jurisdictions.

Australia

David Parken, Executive Director of the Royal Australian Institute of Architects (RAIA)

In Australia schools are accredited individually by the states. The umbrella organization for the states is the Architects Accreditation Council of Australia (AACA). AACA regrets it was unable to have a representative at this conference. Each school is visited every five years by teams comprising representatives of the profession (RAIA), the states (AACA), the schools and one student representative per team, or about 10 persons. School must be recognized by the RAIA in order for architects who graduate from those schools to become members of the RAIA. Further information and documents can be found on the RAIA website, www.raia.com.au. There is full

mutual recognition with New Zealand. The RAIA has rejoined CAA and is a member of the UIA.

Canada

Murray Gallant, CACB President.

The CACB accredits ten courses/programs in Canada according to the same system as the one used by the NAAB, e.g. the thirteen conditions for accreditation.

China

Zhou Chang, Secretary General of the Architects Society of China (ASC)

The system for accrediting architecture courses/programs was established in 1992. 28 courses/programs have been accredited so far, which account for 86 % of the First Class architects in China. In 1999 the ASC signed an MRA with Hong Kong Institute of Architects (HKIA).

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 (CAA)

George Henderson – Current chair of CAA’s validation panel. Former Vice President for education at the RIBA.

CAA is an unusual organization in that it comprises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s of 36 Commonwealth countries. Its mission is to promote the profession of architecture in the Commonwealth. The RIBA validation service does the validation for CAA.

Korea

Jin Kim, President of the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KAAB).

There are 77 schools with a five-year program in Korea. The KAAB is prepared to accredit three programs. This is KAAB’s first accrediting experience, and it plans to invite representatives of foreign organizations, including NAAB, RIBA and UIA/Unesco, to observe the process. There are 89,000 Korean students in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Mexico

Héctor García, COMAEA.

There 180 schools of architecture in Mexico. Need to establish a model for architecture education in Mexico. All orgs are independent of each other but work together. Mexico is interested in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foreign countries, at the same time making sure to respect cultural differences. COMAEA has so far accredited 32 schools, with ten more schools in the pipeline. These schools cover

80% of the architecture students in Mexico. The goal is to visit and accredit 100% of ASINEA member schools.

Aarón Bernal, Director of School in Baja CA. President of ASINEA – ASINEA comprises 85 schools which are the best of the 180 schools of architecture in Mexico.

Fernando Mora – Past President of FCARM. He is now President of CONARC (Consejo Nacional de Registro y Certificación)

UNESCO

Wolfgang Tochtermann, Co-President of UNESCO–UIA Validation Council.

Wolfgang Tochtermann spent 27 years at UNESCO building up the program for architectural education. In light of this program he was appointed as Co-President of UNESCO–UIA Validation Council, and these two organizations have been working together to formulate the basis for the charter for architectural education as well as for the program validation committee. We are here to present this program to you and to see what the possibilities are for cooperation with other validation systems. He does not know if he will continue as UNESCO representative because UNESCO has abandoned the architecture education program, and he is here because of the signed agreement between UIA and UNESCO.

UIA

Louise Cox, UIA First Vice President.

Ms. Cox has been involved with the UNESCO–UIA committee since its founding in 2000. UIA is here to listen and take part in this conference. UIA thinks it is important that all architects in the world have an equal accreditation system. Ms. Cox had high praise for Jim Scheeler efforts and she introduced Fernando Ramos, the general reporter for the UIA–UNESCO validation system.

United Kingdom

Simon Allford, Vice President for Education at the RIBA. He is also Vice President of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RIBA validates almost 100 programs around the world. The RIBA supports the development of an agreement between Accreditation/Validation Systems along the lines of the Washington Accord that performs that function for the engineering profession. Several issues were stressed. The RIBA sees the issue as portability of credentials and convergence of national approaches. They are concerned about the danger is lowering the common denominator as homogenization of education increases. The RIBA is interested in the idea of equivalency of systems. The RIBA

system is based on outcomes, which is the better method. It recognized what students learn rather than the structure of a course/program. Need to think about those who are not here, such as the Irish and South Africans. Substantial equivalence is the goal. The RIBA is very supportive of this concept and looks forward to going forward.

Humphrey Lloyd, Chair of the Architects Registration Board (ARB), accompanied by Dr. Jon Levett, Director of Education at the ARB. ARB established by Parliament with the responsibility to establish criteria for entry to the profession and maintain competence. Like the RIBA, the ARB is primarily concerned with an architect's fitness to practice in the community as determined through the outcomes. ARB interested in the vocational aspects, not the academic aspects of education. Humphrey Lloyd described the requirements of the EU Architects Directive. The UK is the only EU country represented here. All recognition agreements must include all EU states.

United States

Wayne Drummond – Dean at the University of Nebraska, president-elect of NAAB

Mr. Drummond stated that he had extensive experience with most of the delegates around the table. He also noted that there is much greater commonality than difference in the way we validate and accredit architectural education. He described the NAAB system and asserted that student performance criteria should be fundamental to any recognition agreement. Mr. Drummond also mentioned his relationship with many around the table.

Following these short presentations by the attendees, Bill Bevins stated that we must focus on commonality of the systems represented at this meeting. He reminded the audience that we are here to determine portability of education credentials only, not licensure.

Washington Accord – Recognition of Equivalency of Accredited Engineering Education Programs Leading to the Engineering degree

Presenter: Kathryn Aberle, Associate Executive Director, Operations,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ABET)

Ms. Aberle described the Washington Accord as a document that recognized substantial equivalencies among accreditation systems in the signatory countries: Australia, Canada, Hong Kong, Ireland, Japan, New Zealand, South Afric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he website is www.washingtonaccord.org. The Washington Accord had its start with a bilateral agreement between ABET and Canadian Engineering Accrediting Board (CAEB) in 1986. Originally it was just agreement on substantial equivalency of accreditation systems. Over the years the

number of signatories has increased to the present nine. Some communication issues arose early on and it was discovered that there were different implications of taking things of and putting them on the table.

The signatories meet every two years, each time in a different country on a rotating basis. The Secretariat also rotated in the early stages, but now that the Accord has grown it is a little less manageable and a permanent Secretariat needs to be established.

It soon became clear that there needed to be some sort of a monitoring and verification system. Every accreditation system is visited every six year. A visiting team looks at how things are done as opposed to how the system says they are done. There were also questions regarding the resolution of conflicts and training of team members. Engineering programs are recognized under the Accord only if accredited by the programs home country accrediting body. For example, ABET accredits some programs at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but since these are outside the United States, they are not recognized by the Washington Accord. Technology programs are also not part of the Accord.

“Daisy-chaining,” recognizing bilateral agreements between signatories and non-signatories, is not possible under the Accord.

In order to join the Accord, accrediting bodies must submit a request, and full signatory status requires the unanimous approval of all other signatories to the Accord.

Accord members assist emerging accrediting bodies in developing best practices in accreditation. Teams must have representatives from the profession as well as educators. (See paper on the website on this topic that was developed at the last meeting.)

Programs are not recognized until full signatory status is reached. During the provisional period, the Accord members will assist the provisional organization by matching up full signatories with them to work out their systems so that they become acceptable. Currently, there are five provisional members: Germany, Korea, Malaysia, Singapore and Taiwan.

Since the Washington Accord was originally conceived as an English-speaking organization, all business is conducted in English. Japan (JABEE) is the first non-Anglophone signatory. ABET is the model for JABEE, and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Issues faced by the Accord signatories:

- How to assist the development of new systems.
- Costs, etc.
- Need for full-time secretariat. How to pay for that.
- Distance education.
- Branch campuses across national boundaries.
- How to manage changing standards and degree levels.

Is the Washington Accord successful? Answer is yes.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joining and developing accreditation systems.

LUNCH

Following lunch Kate Aberle answered question about the Washington Accord.

Q. What is substantial equivalency?

A. A good description can be found on the ABET website, www.abet.org/subequi.shtml, and also on the Washington Accord website.

Q. Is it possible to have the same outcomes using a different format or method of delivery?

A. Format and method of delivery do not need to be identical. The focus is on outcomes, and there are many possible solutions for the same outcome.

Q. What is the governmental involvement?

A. Under the Accord it is important that the accrediting organizations are not governmental bodies. No government involvement makes things a lot easier.

Q. Are there different criteria for different disciplines in engineering?

A. ABET is a federation of engineering organizations. General criteria have to be met by all disciplines. All signatories of the accord only accredit programs.

Q. What does the monitoring visiting team look for?

A. Members of the teams are mostly past presidents of their accrediting bodies. They are most familiar with the way accreditation works.

Q. How long is provisional status?

A. There has only one example, Japan, which was in provisional status for four years. In order to become a full member an organization must have gone through two accreditation visits. Every provisional member is expected to become a signatory eventually. Sometimes this may take a long time.

Q. Do all new applicants go through provisional status?

A. Yes, because the opportunity needs to be there for every signatory to take a long, hard look at the applicant. This cannot be a hasty decision. This period is used for a lot of exchange of information. There is a mentoring process. If an organization's full status is not approved, then the mentor will advise the applicant to wait another two years. Decisions are made every two years at the meeting of the Accord signatories.

Q. How long did it take to develop the language of the accord?

A. Once consensus was reached, the agreement was drafted, which went back to the governing boards, and then it took another year of two to get everyone to agree to the language. It took a total of three to four years for the agreement to come together, and another two years to develop the Rules of Procedure. Also, it was felt that the agreement should be general in order to not to make it too restrictive. This is a living document.

Q. Why no daisy-chaining?

A. To keep the process transparent such that any signatory status is decided upon by all signatories. There is no other way to get in the door. It is hard enough to determine that the process in one country is sufficient. There is also the danger of having two signatories come to different decisions on the same program.

Kate Aberle encouraged the Round Table participants to write something simple. It is easy to get bogged down in the details. Conversations are necessary. Vision must be there, but you do not have to have the perfect document at the beginning.

For further details on Ms. Aberle's presentation, see her attached PowerPoint, "An International Partnership: The Washington Accord."

Draft Protocol for 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between Architectural Accreditation/Validation Agencies, context for this meeting
James Scheeler, Presenter

Please see the attached power point used by Mr. Scheeler in his presentation. In addition, the relevant documents on the conference website, <http://collaboration.aia.org/iav>.

Mr. Scheeler described the UIA/UNESCO Accreditation/Validation system. Following the refusal of Canada, the 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o join the system, they then developed a protocol for mutual

recognition of accreditation systems.

In a question and answer period following the presentation, David Parken raised concern about the term MRA.

The UIA Member Sections comprise 1.5 million architects.

Ramos Ramos (UIA) stated that we should focus on portability of the accrediting systems, not persons, and that we should take this step by step. UIA foresees a network of validation systems. What is important to UIA is to start developing one single validation system. That is why we are here.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is kind of meeting has been held for architects. Engineers system is very useful as a first draft for our agreement.

Louise Cox – We must concentrate on the study program with the licensing separately considered.

Kate Aberle said the engineers talked a lot about this, and therefore they came to the term “Accord.”

BREAK

Review of ASPA – 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Professional Accreditors
Sharon Matthews, Presenter

Sharon Matthews explained that the NAAB belongs to the ASPA, as does ABET. There is a link to the ASPA website on this conference’s website. See <http://www.aspa-usa.org/>.

When you belong to ASPA you are expected to follow their Code of Ethics.

The questions on this conference’s website were derived from this Code of Ethics.

The three topics for Friday are based on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OPEN DISCUSSION ON OTHER ISSUES

The issue of nomenclature and vocabulary was brought up. Even though there was some confusion as to the difference in meaning between “accreditation” and “validation,” it was decided that the following definitions should be used:

Accreditation – input related

Validation – output related

Program – In Australia a curriculum is called a “course”

NAAB expects all schools to have a unique sense of who they are and looks for how the student performance criteria inform the sense of who you are.

In the United Kingdom, foreign applicants apply to the ARB individually. A portfolio satisfies Part I and Part II examinations. They must take the examination at Part III.

An architect from within the EU who comes to the UK and whose qualifications are listed in the Architects Directive and who meets the two year training standard must be accepted for the ARB register.

Hector Garcia Escorza (Mexico) – In the Trinational MRA the US or Canadian Architect must have the NCARB Certificate in order to be able to practice in Mexico.

Simon Allford (UK-RIBA) pointed out that there are anomalies in the European Union.

Jon Levett (UK-ARB) stated that the EU Architects Directive sets minimum standards. The Directive only kicks in when the architect moves. Listed schools are those that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state.

Fernando Ramos remarked that in the EU new schools are able to be challenged by other countries. The accreditation is by default. Each state has three months to inspect the documentation of the new program and if they find that the program does not meet the minimum standards, a member state can raise an objection. The advisory committee will review that and if the doubt is well founded it will be forwarded to the EU Commission for final action.

Korea – If you have a license from a foreign country you must pass the examination in Korea.

In the United States, the need for Education Evaluation Services for Architects (EESA) evaluations would diminish if a method of mutual recognition of accreditation systems were achieved.

China – If students from other countries want to practice in China, they must first take the exam and demonstrate knowledge of codes and regulations. Most foreign education is recognized. If you pass the examination, educational background does not matter. First the exam must be passed and then a candidate must take part in local training on codes and regulations. The local authorities set the requirements.

Persons from non-accredited programs must work for at least five years before they are qualified.

Canada – For US and Canadian degrees it is a very simple process. For foreign degreed persons the process is much more rigorous and complicated.

Australia – The eight jurisdictions, including New Zealand, have given the Federal government the authority to negotiate on its behalf. Thus the Trans-Tasman Agreement between Australia and New Zealand allows all professionals, except doctors, to move freely back and forth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regulations consist of title laws, not practice laws. Some states require registered architects to design buildings of a certain size.

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 – Any qualification that meets the requirements is recommended to be accepted. Gordon Holden stated that panels that visit schools should include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 institute, registration authority, another school and a student representative.

Michiel Bourdrez described the Education Evaluation Services for Architects (EESA) that is used in the United States to compare an applicant's foreign education to the NCARB Education Standard. The EESA looks at seat time, not outcomes. EESA evaluations are for individuals only, not institutions.

Friday, May 05, 2006

SESSIONS – Special Topics

The topics for these sessions were derived from the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on the Conference website.

Facilitator: Joseph Giattina, FAIA, NAAB Past President

Mr. Giattina admonished attendees to keep the focus of the discussions on education and avoid drifting into areas related to education requirements for licensure.

SESSION 1 – Student Performance

Dr. Jon Levett, ARB Head of Education, Presenter

Dr. Levett described the Architect Registration Board (ARB)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legal context under which it is established. He explained that the ARB is not a validation/accreditation body, but that its main concern with regard to education is the issue of student outcomes and an individual's fitness to practice.

The ARB Board, comprising 15 members, seven architects and eight representatives of the public, must decide on the qualifications that a student must meet. These qualifications are agreed to by the RIBA and embody the minimum standards set out in the EU Architects' Directive.

How the ARB can be confident that competence is assured .

1. Institution must ensure that all students meet ARB's criteria. Institutions must have systems in place to ensure these.
2. ARB does not visit, but receives documentation every four years. ARB's confidence is based on the institution's demonstrated ability.
3. Material in documentation is not prescribed. Only guidelines exist for documentation.
4. Mapping documents – set out learning outcomes, mapped against ARB's vocational criteria.
5. External examiner's reports – external examiners are appointed by the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nd report on fairness and consistency and standards achieved by students. External benchmarks such as ARB criteria which derive from practice. ARB requires that external examiners be drawn also from practice, not only from academia.
6. Report based on one or more visits by a body which includes professionals from architectural education, practice and lay persons, e.g. a Visiting Board report of RIBA. Insistence on a RIBA report is not possible, but in practice that is the one received.
7. Quality Assurance Documentation (internal and external, e.g. UK QAA reports)
8. Institutional and departmental business plans. Can we be confident that criteria will be met in the future?
9. See Good Practice Handbook – Go to www.arb.org.uk

Board Confidence

- All student awarded the qualifications
- The systems used by the institution to ensure that all students have met the criteria
- Institution's plans will maintain ability to ensure students will meet the criteria in the future.

This documentary system has been running for three years. The ARB is confident they are getting a good picture of what is going on in schools of architecture.

Q. Bill Bevins: What prompted the shift away from visiting teams?

A. Used to be done together with the RIBA which has a broader agenda. It was difficult to manage.

Q. Sharon Matthews: Are there any architects on the ARB

A. 15 members, seven architect and eight public members.

Q. Is there any plan to look at non-accredited programs?

A. ARB will consider any application from an institution. The primary concern is student outcomes, not different categories of programs. The EU Directive is the basic threshold that must be met.

Q. Gordon Holden: What if ARB's conclusions differ from those of the RIBA?

A: It has happened. ARB's decision is independent of the RIBA's. Humphrey Lloyd said that it is rare that the reports are the same. In consultation with the RIBA, ARB's reservations are often overcome. It is also not unusual for the academic institution to say that the points have been brought up so that they can be dealt with, such as funding.

Q. David Parken: How many programs are there?

A. Over 100 qualifications.

Q. Is there a dialogue?

A. The ARB expresses concerns that threaten qualification, after which the institutions will often come up with new material that will solve the problem.

Q. How is research handled?

A. Also a problem in the UK. There is not an agreed method of recognizing research in design, for instance. Simon Allford stated that RIBA has done extensive lobbying to reform the research panel so that it includes architects when architecture is the subject of scrutiny. The problem is that money is dependent on research, and this is being addressed.

Q. Murray Gallant: What is the RIBA visiting team composition?

A. Simon Allford: five or six persons, including architects, academics, a public member and a student representative. RIBA has a candidate course status.

Q. Wayne Drummond: What is the length of the visit? Is there student work?

A. Simon Allford: Three to four days. There is a demonstration of student work.

Q. Bill Bevins: Are ARB's criteria the same as the EU's?

A. Jon: No, there is more to the ARB's criteria.

Q. Fernando Ramos Galino: how do different applicants get registered?

A. UK – self evident. EU applicants must qualify in their home countries. Applicants from outside the EU must present a project that shows compliance

with criteria. Any RIBA validation is not taken into account. RIBA has a system of exams that can validate someone's experience in architecture as meeting the criteria. The person is not required to have gone to school.

See also Jon Levett's attached Power Point, "ARB Prescription of Qualifications."

Vocabulary clarification

Courses = programs

Prescribed = recognized

Hector Garcia (Mexico) stated that we can control what we teach, bu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at students learn. The first school in Mexico was independent from the University, from 1790 to 1900. This system worked well because all courses were taught by practicing architects. In 1980 that changed and schools multiplied from 12 in the 60s to about 180 now. There are new pedagogical approaches, and there is no way to guarantee that all teachers must be practicing architects. It became necessary to establish new system that requires adjunct professors that are practicing architects.

David Parken asked if the ARB would recognize any accord reached by this group. Humphrey Lloyd responded that if the qualifications were established that were equal to the ARB criteria, the first assessment would not be necessary. However, the two-year practice is still there, unless it can be merged into the accord. Ambitiously, this could be included in the Directive. In the UK legislation could be amended, but there would not be any need to do that if the first scenario worked well. It could be dealt with administratively.

Jim Scheeler inquired if there is an impediment to judging equivalency between the two models.

Matthews: In the US system both outcomes and inputs are looked at simultaneously.

Simon Allford: RIBA feels there is no validation possible without looking at student outcomes.

Humphrey Lloyd: In the ARB system, the Act does not mention student outcomes. ARB must form a judgment that it has confidence in the outcomes.

Jim Scheeler asked if there was consensus that the evaluation of an academic program should involve both outcomes and inputs – the institution is evaluated as well as student outcomes.

David Parken: from the Australia/New Zealand point of view there is consensus.

Hector Garcia: What is the level of the outcomes? Some might be requiring more than others.

Zhou Chang (China): MRA should be based on three levels: Education, examination, registration. We are here to talk about the equivalency of education only. We should focus on the equivalency of criteria.

We should focus on education because there are many different requirements in the various countries.

Wind-up

Joe Giattina: Do we have a basis for moving forward? We should not get bogged-down in the detail of individual systems. We should look at the issue globally and try to come to substantial equivalency.

SESSION 2 – Funding and Governance

Sharon Matthews, presenter

Sharon Matthews raised the question as to how an accreditation/validation organization is funded and what influence do the funders have on the organization.

The issue is transparenc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unding and practices must be clear.

NAAB, as an example, receives all its funding from the profession. No money comes from the government or the public, and NAAB cannot run on a deficit budget.

See the PowerPoint for this session.

Architectural Education in Academic Context, Students, Registration, Profession and Society.

The relationship of NAAB to the organizations that fund it clearly links it to the profession.

Q. David Parken: What is NAAB's workload and are there interim visits?

A. There are between 20 and 30 accreditation visits per year. Schools must submit a written report every year. There are focused interim visits when the need for them arises.

After the visit the Visiting Team Report (VTR) comes to the NAAB office where it is

edited by a consultant. Then the VTR goes back to the school for its addenda, if any, which becomes part of the report. The complete, edited VTR goes to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ir consideration at their July meeting where the accreditation decisions are made.

Q. Gordon Holden: Is there team member training, and how are team members selected

A. Each organization has a different way of selecting team members, and each has its own training sessions. NAAB conducts a two-day team chair training session. The teams hold conference calls prior to their visits.

The issue of degree nomenclature in the United States was raised, and Sharon Matthews explained that there was a heated debate around this subject, primarily with respect to the Doctor of Architecture (D.Arch). The NAAB board of directors agreed to a moratorium on new Bachelor of Architecture (B.Arch.) degrees. This has been a concern to the schools, because those with B.Arch degrees are concerned that the emphasis on M.Arch degrees will diminish their degrees. NAAB fully supports B.Arch degrees. There is only one accredited D.Arch program which is offered at the University of Hawaii. It is not a research-based degree but rather meant to be similar to an MD or EDD.

With regard to interim visits, Ad hoc visits are sometimes scheduled if there is a reason for concern arises between visits.

Q. George Henderson: Are criteria investigated through student work?

A. Sharon Matthews: The student work must demonstrate that the 34 criteria are met while at the same time demonstrating the school's uniqueness. There are high pass and low pass examples of student work.

George Henderson (CAA) commented that the U.S. system is the same as any validation system.

The self-evaluation in the Academic Program Report (APR) that is prepared by the school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process.

Bill Bevins brought the discussion back to funding. He said that NAAB is not free to do whatever it wants. Everything must meet with the approval of the funding organizations.

David Parken observed that in Australia accreditation is a partnership between the state institutes and the RAIA. The RAIA fills the NAAB role. For the first time they are asking the schools to fund one third of the cost.

Bill Bevins said that three or four years ago there was an attempt to pass some of the costs on to the schools, but funding is easier if the funding orgs come up with the money rather than the schools.

Sharon Matthews mentioned that accreditation is very important to the school. If a school does not achieve accreditation or loses accreditation, it will most likely go out of business.

Hector Garcia explained that in Mexico this year the first time there was a meeting of the accredited programs. No school complained about the structure of our board, whose governance comprises representatives of schools, colegios, and the public. No funds come from the government, and all funding comes from what the school pays for the service. The advantage of this is that the board is totally independent and is not being told what to do.

Wayne Drummond noted that all schools everywhere are driven by money, faculty time, and student time. There are huge indirect costs that may result in cutting courses from the curriculum. It can cost up to \$25000 just to set up the exhibit.

Gordon Holden pointed out that architectural education should entail the discipline of architecture, not the practice of architecture. Accreditation is for the profession, i.e. the practice of architecture. When the schools in Australia were asked to fund as well, there was serious discussion among them to withdraw from the system and not seek accreditation.

Sharon Matthews: There is an administrators' conference where NAAB runs workshops on visits. At the ACSA annual meeting there are workshops on how to write an APR. Prior consultation between the school and NAAB is key, and NAAB will tell the school beforehand what is to be expected to be included in the APR.

.

Marina Lavrow (CACB): Accreditation is a marketing tool for the schools. CACB gets funding from the schools, the profession and the regulators in different amounts. There are mutual synergies between schools, the profession and the regulators. Schools spend differing amounts of money in preparing reports. Some hire consultants. CACB encourages educators to go the training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The CACB C&P is virtually identical to NAAB's. Prior to a visit CACB contacts the head of the school. The school approves the team composition. There is a lot of back and forth with CACB always involved in the process.

Louise Cox: How do RIBA and CAA fund visits?

George Henderson: CAA outsources the visits to the RIBA. The system is funded very

economically, and the direct costs on location are borne by the schools.

Simon Allford: RIBA – The internal costs are borne by the RIBA. The visiting team member costs are borne by the schools. The board comprises two overseas members and two local members. The RIBA system is very similar to the CAA system.

Murray Gallant (CACB): In Canada there is a shortage of architects. Only 1/3 of graduates go on to licensure, which is a big problem because the system does not produce enough architects to meet the demand.

Simon Allford expressed the opinion that architectural education should not assume that the graduate becomes a qualified architect. Murray Gallant disagreed, saying that accredited schools should concentrate on producing registered architects and that architectural programs should lead to licensure. Simon Allford felt that those who decide not to go on to professional qualification should not be penalized.

George Henderson noted that at the beginning of the program all students say that they want to be architects, but only 30% of graduates actually do.

Sharon Matthews said that in the U.S., the criteria do not drive what happens in the schools. Curriculum decisions, etc. are not made with the criteria in mind. The performance criteria are used to check what the schools are doing.

David Parken: In Australia most schools grant two degrees, a three-year BA and then a second two-year degree. There is now a debate on what to call that degree. The issue is one of government funding.

Hector Garcia: There needs to b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as to what should be accredited, discipline or profession.

Wayne Drummond felt that both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LUNCH

SESSION 3 – The Quality of Architectural Education within the Global Context
George Henderson, CAA Validation Panel Chair, and Gordon Holden, presenters

See the Power Point for this presentation elsewhere on this website.

Questions and Answers:

David Parken was not clear on what criteria were used by the CAA.

George Henderson: The CAA is keen to keep the criteria as general as possible and minimal in their description. The document is silent on standard because the RIBA system is well understood.

Christopher MacDonald (CACB) commented that there is an underlying theme that globalization is a good thing, but he had misgivings about the colonial look of this, and that it is implicit in the CAA system that people in London know better.

Gordon Holden answered that he has pushed for a change in CAA away from the colonial system and it has evolved to a much greater inclusion of people from other Commonwealth countries. The CAA is now digging deeper into member countries to diversify the expertise, but the history of CAA's founding by the RIBA president in the 1960s cannot be changed. The CAA subsequently became a separate organization with the RIBA as a member professional organization. The CAA was founded so that the RIBA did not have to go around the world to validate programs.

Louise Cox: Coordination between UNESCO/UIA and the CAA ongoing and important.

Wolfgang Tochtermann pointed to the dilemma of how to control academic requirement and to promote diversity in the spirit of the UNESCO Charter that emphasizes respect for tradition and culture in architecture. He gave the example of his involvement with the founding of a program in architecture at a school in Dakar, Senegal, which was the first school of architecture in francophone Africa. It was important to found a program that was relevant to Africa with an emphasis on how people in Africa build traditionally. Students are not interested in that, however, asserting that they wanted to learn about steel and concrete so they could be on a par with those in the developed world.

Following the last session, Wayne Drummond, Bill Bevins and conference scribe Mike Bourdrez drafted a Memorandum of Intent and Understanding that was projected so that it could be discussed and edited by all present. The following Memorandum was agreed to and will be disseminated as a separate document:

관련 웹 페이지: <http://collaboration.aia.org/iav>

6. MEMORANDUM OF INTENT AND UNDERSTANDING

among the Participants of the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Conference

Whereas, the participants to the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Conference held in Washington, DC, USA on 4-5 May 2006 are representatives of various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or interested in, the accreditation/validation of architectural education; and

Whereas, the participants share the goal of developing an accord for the recognition of accreditation/validation systems allowing graduates from a study programme/course of architectural education accredited by one of the represented systems to be accepted as substantially equivalent by another, subject to additional requirements imposed by local law; and

Whereas, it was agreed that such a goal could be achieved by an international protocol that w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quality of architectural education; and

Whereas, all parties recognize that substantial similarities exist among the systems, including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d processes for accreditation/validation of study programmes/courses in architecture.

Therefore, the participants express their commitment to continue the dialogue started at this Conference with the intent of establishing such a protocol.

Adopted unanimously by those listed below:

Austria

David Parken
Gordon Holden

Commonwealth Assoc. of Architects(CAA)

Gordon Holden
George Henderson

UIA

Louise Cox
Fernando Ramos Galino
James A. Scheeler

Canada

Murray Gallant
Christopher Macdonald
Marina Lavrow

Korea

Jin Kyoong Kim
Sung Jung Chough
Jae Pil Choi

United Kingdom

Humphrey Lloyd
Jon Levett
Simon Allford

China

Zhou Chang
Zhou Tao
Qang Xiaojing

Mexico

Héctor García Escorza
Fernando Mora Mora
Aarón Bernal Rodríguez

United States

C. William Bevins
R. Wayne Drummond
Sharon Carter Matthews

Unesco

Wolfgang Tochtermann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Conference

참석자들의 양해 각서(번역문)

2006년 5월 4-5일, Washington DC에서 개최된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Conference의 참가자들은 건축학 교육의 인증(Accreditation/Validation)을 책임지거나 관심을 지니고 있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 그리고 세계적인 기구들의 대표자이다.

참가자들은 여기 참여한 한 시스템에 의해 인증을 받은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이, 해당 지역(국가)의 법에 의해 부가되는 추가 요구사항을 만족할 때,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인증제도 인정에 대한 협정 개발에 대한 목표에 의식을 같이하였다.

건축학 교육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국제 의정서가 상기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점에도 합의를 보았다.

모든 관계자들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 인증과정들을 포함하여, 여러 시스템들에 실질적인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상기 의정서 제정 취지로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 시작된 대화를 계속할 것임을 표명한다.

아래 수록된 사람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됨:

Australia

David Parken
Gordon Holden

Commonwealth Assoc. of Architects(CAA)

Gordon Holden
George Henderson

UIA

Louise Cox
Fernando Ramos Galino
James A. Scheeler

Canada

Murray Gallant
Christopher Macdonald
Marina Lavrow

Korea

Jin Kyoong Kim
Sung Jung Chough
Jae Pil Choi

United Kingdom

Humphrey Lloyd
Jon Levett
Simon Allford

China

Zhou Chang
Zhou Tao
Qang Xiaojing

Mexico

Héctor García Escorza
Fernando Mora Mora
Aarón Bernal Rodríguez

United States

C. William Bevins
R. Wayne Drummond
Sharon Carter Matthews

Unesco

Wolfgang Tochtermann

7. Next steps.

Canada offered to host the next meeting, to be held in about one year. If it were to be held in Toronto, it could be concurrent with the RAIC 100th annual meeting.

It was agreed that a steering group would be formed, with each group or country designating one representative to that committee within one month. Mexico agreed to chair the steering committee. All communications will be through the blog. George Henderson felt that the group should remain as it currently constituted.

Closing comments:

Humphrey Lloyd expressed his thanks to the organizers of the conference.

Bill Bevins recognized Sharon Matthews and Jim Scheeler for their hard work, and he also thanked the NCARB and the AIA for supporting this meeting financially.

David Parken pointed out that action only follows when there is a face to face meeting, which builds a foundation of trust. Electronic communication is also effective, but there is nothing like meeting in person.

Hector Garcia stated that this conference is a significant and historic event. We are beginning to bring order to what is going on in architectural education.

Louise Cox expressed thanks on behalf of UNESCO and UIA to the many people in the room for their work, especially to Jim Scheeler, and to NAAB for hosting the conference.

Sharon Matthews said that this had been personally gratifying. NAAB learns something every time there is a meeting like this, which helps it become a better citizen of the world.

George Henderson stated that he was grateful that the CAA was included in this round table.

Mr. Kim noted that the KAAB was only a little over year old, and he was so honored to be invited and learned a great deal from the experts at the conference.

Mr. Zhou also said that he was honored to have been invited, and that he felt that meeting was very successful because it has concluded with a Memorandum of Intent and Understanding. He is committed to asking the Chinese government to support this MIU. He also thanked the AIA and NCARB for their financial support.

Murray Gallant also thanked the organizers for inviting CACB and Canada to join in this conference, and he said that they looked forward to hosting the next meeting.

Mr. Bevins adjourned the conference at 5 PM.

Copyright 2006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ll Rights Reserved.

관련 웹페이지: <http://collaboration.aia.org/iav>

ii.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Conference

In preparation for the 2nd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table
Conference
May 7–9, 2007
Ottawa, Ontario, Canada

1. Statement of the 2nd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Objectives

The participants to the First Invitation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 Table held in Washington, DC, USA on 4–5 May 2006 were the representatives of various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or interested in, the accreditation/validation of architectural education. The participants agreed that they shared the goal of developing an accord for the recognition of accreditation/validation systems allowing graduates from a study program/course of architectural education accredited by one of the represented systems to be accepted as substantially equivalent by another, subject to additional requirements imposed by local law. It was further agreed that such a goal could be achieved by an international protocol that w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quality of architectural education. The parties recognized that substantial similarities exist among the systems, including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d processes for accreditation/validation of study program/courses in architecture. The participants expressed their commitment to continue the dialogue started at this Conference with the intent of establishing such a protocol.

It was agreed that Canada would host the next Round Table, to be held 7–9 May, 2007 in Ottawa, Ontario, Canada. It was agreed that a steering group would be formed, with each group or country designating one representative to that committee within one month. Mexico agreed to chair the steering committee. Interactive communications will be facilitated through the Web site.

관련 웹페이지: <http://collaboration.aia.org/iav>

2. Schedule of Activities

February –March 2007

1. Participants are asked to review the draft agenda attached and provide input as to any changes/additions/amendments they would like to suggest. Please forward all initial feedback – **by March 1.**
2. The CACB will forward Draft Findings from the Gap analysis to the participants by **mid-to-late February.**
2. Participants will be asked to complete a survey in response to the Gap Analysis – **early March**
3. Participants are asked to review the Washington Accord (<http://www.washingtonaccord.org/>). Signed in 1989, the **Washington Accord** is an agreement between the bodies responsible for accrediting professional **engineering** degree programs in each of the signatory countries. It recognizes the substantial equivalency of programs accredited by those bodies, and recommends that graduates of accredited programs in any of the signatory countries be recognized by the other countries as having met the academic requirements for entry to the practice of engineering. It is envisioned that the Washington Accord could be used as a template for an architectural agreement.
5. Based upon input from the participants the organizers will prepare a draft statement of the conference objectives and desired outcomes. – **late March**

April 2007

6. Develop the final agenda based on responses and recommend participants and presenters for each item on the agenda.

May 2007

7. Conduct Conference at Rideau Club in Ottawa, Ontario on 5–7 May 2007.
8. Circulate minute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nference to the participants – **late May–early June**

The CACB will undertake to post information updates on the conference web site (www.collaboration.aia.org), graciously donated by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for this purpose in 2006.

관련 웹 페이지: <http://collaboration.aia.org/iav>

3. Draft Agenda

Location: Rideau Club: 99 Bank Street, 15th Floor, Ottawa, Ontario, www.rideauclub.ca

Sunday, May 6, 2007

Participants arrive

Monday, May 7, 2007

09: a.m.	Breakfast on site	
09:45 a.m.	Welcoming Remarks	Claudio Brun del Re
09:55 a.m.	Welcome by a Special Guest	TBC
10:00 a.m.	Introductions	
10:40 a.m.	Adoption of the Agenda	
10:50 a.m.	Coffee Break	
11:10 a.m.	Countries' Update (10 minutes each)	
12:30	LUNCH	
1:30 p.m.	Summary of the Washington Round	A US Representative – TBC
1:40 p.m.	Presentation of the Gap Analysis	Murray Gallant
2:10 p.m.	Discussion of the Gap Analysis	
3:00 p.m.	Coffee Break	
3:15 p.m.	Discussion of the Gap Analysis (continued)	
4:00 p.m.	Summary of the Day and Update of the Agenda for Day 2 (if needed)	
4:15 p.m.	Adjournment of the meeting	

Tuesday, May 8, 2007

09 a.m.	Breakfast on site	
10:00 a.m.	Agenda for the day and logistics	Claudio Brun del Re
10:15 a.m.	Delegations' Interventions: ways to address the gaps (30 min per delegation)	
10:45 a.m.	Coffee Break	
11:00 a.m.	Delegations' Interventions: ways to resolve the gaps (cont.)	
12:00	LUNCH	
1:00 p.m.	Delegations' Interventions: ways to resolve the gaps (cont.)	
3:00 p.m.	Coffee Break	
3:30 p.m.	Delegations' Interventions: ways to resolve the gaps (cont.)	
4:00 p.m.	Summary of May 7 and 8 discussions: could we sign an agreement?	
4:30 p.m.	Adjournment for the day	
5:00 p.m.	Reception at the CACB Office Suite 710, 1 Nicholas Street, Ottawa	
7 p.m.	Reception terminates	

7:30 p.m.	Dinner	TBC
-----------	--------	-----

Wednesday, May 9, 2007

9 a.m.	Breakfast on site	
10:00 a.m.	Agenda for the day and logistics	Claudio Brun del Re
10:05 a.m.	Working on the Agreement	
11:00 a.m.	Coffee break	
11:10 a.m.	Working on the Agreement (continued)	
12:00	Working Lunch	
1:00 p.m.	Working on the Agreement (continued)	
2:30 p.m.	Wrap-Up at Rideau Club and walk to the Centre Block of the Parliament of Canada	
3:00 p.m.	Signing Ceremony and Photo Opportunities	–Centre Block, Parliament of Canada
3:30 p.m.	Tour of the Centre Block, Parliament of Canada	
4:30 p.m.	Return to Rideau Club and adjournment of the conference	

Evening Free; Departures

Thursday, May 10, 2007

Departures

iii. 국외 인증실사팀 위원 의견서 전문

Letter 1, Joseph P. Giattina, Jr., FAIA

Sungjung Chough, KIA, AIA, PhD.
Principal Architect
Ilkun Architects & Engineers Ltd.
Ilkun Building
800-4 Bangbae-Dong
Seocho-Ku, Seoul 137-060, Korea

November 20, 2006

Dear Sungjung,

As requested by the Korean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KAAB) in our exit meeting, I am pleased to offer the following comments about the visit and my thoughts since the visit. Please understand that while I have served in a variety of positions regarding registration and accreditation, the following is my opinion, and not necessarily that of NCARB, the NAAB, or anybody else for that matter.

1. The Myongji University Accreditation Team was as good or better than any team I have worked with. Each member was thoughtful, articulate, courteous and hard working. While the process was new to everyone, I believe that the diligence members showed in learning the process will serve the KAAB well on their next accreditation visits.
2. Likewise, Myongji University's APR, team room arrangement, exhibits, and the faculty response to our questions were well done and equally thoughtful. It was obvious that every senior member of the Myongji faculty had carefully studied the KAAB criteria and had done their best to see that the criteria were met.
3. To repeat a point made in our exit meeting, it is important that accreditation and its outcomes not become a "numbers game" based on a comparison of "mets" or "not mets". There will be much temptation to do so, but absolutely avoid it.
4. Without question the universities that participated in the first accreditation visit met high standards at every level. As more visits take place, it is important that

programs not be evaluated in comparison with each other, but rather on how well each program prepares its students for a role in the profession.

5. Following on the last point, if the accreditation system is to succeed and help to give Korean architects their pla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important that each accredited program become a mentor to those following. It seems unlikely that most other programs seeking accreditation will have the resources that were available to the first three, and will need the counsel and advice of their colleagues.
6. I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to encourage each accredited program to develop its individual strengths. Otherwise, accreditation could have the unintended consequence of creating a stasis wherein programs only strive to be like each other.
7. As KAAB moves forward, keep in mind that the accreditation system is in a formative stage. Encourage patience and understanding at every level, as it is almost impossible to get everything right the first time.
8. The KAAB adopted an accreditation system based on the NAAB system that has evolved over the past sixty years in response to conditions in the U.S. In a few years, while I expect the NAAB principles will still apply, I believe their application will come to reflect the differences between a system that works in the U.S. and one that is best for Korea. That transition may take a few years, but expect and encourage it.
9. The KAAB should not change the *Conditions of Accreditation* for at least five years, so that one school cycle can be completed. As requested, I spoke with Sharon Matthews and she said NAAB had no record of how long the original criteria were in place before they were first changed. However, in the last decade the NAAB Board of Directors has modified the *Conditions* about every three years, but have now moved to a five-year cycle. Changes to the *NAAB Conditions* are based, at least in part, on input received during an Accreditation Review Conference held every five years with representatives of the academy and the profession to help determine what should change and why.
10. If you decide to keep the current KAAB criteria for the foreseeable future, it is inevitable that concerns, some legitimate and others less so, will arise. It will be important that the KAAB develop a system for recording those concerns and at the same time develop some form of systematic review as the basis for making orderly change to the *Conditions*.

11. On a more mundane level, while it is an honor to serve on an accreditation team, it is not an honorary position. The work required of every member of the team is hard and intense because the results affect the students, the university and ultimately every member of the profession of architecture.

I appreciate being included in the historic first visit and, if I can help in any other way, please let me know.

And finally, I cannot adequately express my thanks to you and Mrs. Chough for your warm welcome and gracious hospitality. A special thanks is due Young Woo for spending her Saturday with us, especially for the shopping trip and my first Korean meal. Sungjung you were an absolute joy to work with; you were incredibly patient and helpful and equally kind and thoughtful. I can only hope that what I delivered was half as good as what I received. Please extend my thanks to our team members, Myongji University, and every other person that I was privileged to meet and spend time with. There was nothing about my visit that could have been any better.

Sincerely,

Joseph P. Giattina, Jr., FAIA

c: Myongji Team Members
William C. Bevins, FAIA
Wayne Drummond, FAIA
Jaepil Choi, M.A., PHD – KAAB
Sharon Matthews

Letter 2, C. William Bevins, FAIA

November 28, 2006

Mr. Jaiwon Cho, KIRA
THE-JE Architects, Inc.
8-13, Nonhyun-Dong, Kangnam-Gu
Seoul 135-010, Korea

Dear Jaiwon

As requested by the KAAB at our final group exit meeting held on the evening of November 15, 2006, I will attempt to provide comments, some general, some specific, regarding the accreditation visit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Let me preface my comments by stating that I have conferred with my US colleagues regarding their visit experiences and, not surprisingly, find that the three of us have much the same observations. Also as a background, please understand that I have just completed a three year term on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serving this last year as its President, and prior to that I was the 2002 President of the 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 While not of particular significance, it does reflect that I have had considerable experience in the licensing and accreditation processes for US architects over the past few years and feel confident that my observations are based upon my experiences, and not necessarily my personal opinions. My association, and leadership position, with both organizations has ended, therefore my suggestions and/or recommendations are purely my own and do not reflect the positions of either NCARB or the NAAB.

With regard to our Seoul National University visit, several thoughts come to mind:

- ◆ SNU faculty and staff: The faculty and staff were as prepared as any program I have visited in the US, perhaps in some instances over prepared. It is my understanding that none of the faculty had been through the laborious preparations for an accreditation visit. That being the case I applaud their efforts and also applaud whoever provided the team room preparation seminars; it was obvious the SNU faculty and staff had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team room objectives.
- ◆ SNU team room: The team room was assembled in a manner that I would compare to the better programs in the US. It was obvious that clarity of the accreditation investigation process by the visiting team was the primary

consideration. Also obvious the careful attention SNU paid to the visiting team's comfort. There was nothing left undone. While certainly appreciated, I'm not sure if the accommodations we experienced can, or should, be established as the norm for future visits.

- ◆ SNU accreditation team: While initially very nervous and perhaps a little skeptical, I was very impressed with the quickness in which the individual team members grasped their role in the accreditation process. With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the team clearly understood the concept of reviewing the program in a "holistic" manner. I think the KAAB did a superb job in assembling the appropriate mix of academicians and practicing architects, with each showing the respect for the other that is necessary to get an unbiased determination of any program.

I would offer a suggestion that the team not take business calls randomly during the visit. I have found that the mobile phone can provide a great distraction to the team members if left unchecked. While this may appear as a criticism, it is not intended to be one. The responsibility of each team member requires an exceptional amount of concentration, and just plain hard work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Any distractions are simply that, distractions, and should be avoided if at all possible. As a team chair I try and allow team members at least 15-20 minutes during the morning and also during the afternoon to attend to personal/business issues. I have found that a short break twice a day to attend to such matters keeps the team members focused on their accreditation responsibilities, but also allows the opportunity to keep the family and business happy as well.

Now for some general comments:

- ◆ In an earlier communication with Mr. Jin Kyoong Kim I suggested, in the kindest manner possible, the KAAB start to view this accreditation process as belonging to the KAAB. I imagine the NAAB would certainly be willing to assist in any manner necessary to insure the KAAB's ongoing success; however, the process itself needs to reflect, over time, a Korean heritage. Any long term effort to mirror the NAAB could have negative repercussions, even if the process on the whole were successful.
- ◆ The KAAB should be extremely proud of their efforts to put in place a process of accreditation that is fair and impartial, allowing each school the opportunity, and challenge, to individually meet the KAAB Conditions. The KAAB should encourage such individuality, and not view accreditation as process to bring about a sense of sameness among your various schools of architecture. I'm sure there may exist some doubt that accreditation can in

fact result in variety within the education system. I would encourage the KAAB to be steadfast in it's commitment to the process, and simply watch as the schools creatively develop methods to maintain their individuality and showcase their strengths within the *Conditions* framework.

- ◆ As the KAAB deliberates the program's "term of accreditation" based upon the VTR, a few important points come to mind: 1) avoid the temptation to establish a base line number for "mets" and "not mets", 2) avoid the temptation to establish a ranking system for the *Conditions*, especially the Student Performance Criteria where some criteria will be viewed as more important than others – all are important, 3) avoid the temptation to compare one program to another – programs are evaluated based upon the *Conditions of Accreditation*, and 4) be consistent in the accreditation decisions.

My last point may appear as a contradiction to the other two; however,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the success of the accreditation process to establish consistency in the "term" decisions. By way of example, if one program is given a 5 year term with a total of 8 "not mets", I think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give another program a 2 year term should they have 6 "not mets." I will admit this tendency is very difficult to deal with, especially if there is also a tendency to "weight" certain criteria, however, not being consistent opens the door to criticisms of bias, partiality, etc.

My best suggestion is the process developed by the NAAB Board. We would review each program and agree on its accreditation term individually. We would then write the name of the program, along with its term and a list of the "not mets" on a pin-up sheet, putting the sheet on the wall side-by-side for each program reviewed. Once completed the Board would then collectively review the entire list of programs, looking for any apparent inconsistencies. If inconsistencies were found the Board would take such actions as necessary to remedy the situation.

- ◆ As discussed in the exit meeting, I suggest the *Conditions for Accreditation* not be changed for at least 5 years. There always exists the desire to correct discrepancies as soon as they become known; however the process needs time to settle out. Additionally, you can be assured that the next round of visits will produce its own set of issues they will most likely be different from this first visit endeavor. The KAAB should maintain a list of the issues, but go through several cycles of visits before attempting correction. There may be some criticism for delaying action; however, if all the schools reviewed within the 5 year window utilize the same *Conditions*, fairness exists.
- ◆ Without question these first visits were to three of Korea's finest programs, perhaps it's finest. Other programs most likely will not have the wherewithal,

financially or otherwise, to meet such high expectations. That being said I would encourage the three programs that have now been through the accreditation process to share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s with their fellow academic colleagues.

In conclusion let me say again how honored I am to have ha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you and each of our team members on this very historic event in the life of the Korean architecture education system. Such rare events in one's life afford the opportunity to truly make a positive impact on our profession, for this opportunity I am grateful, and also humbled. Jaiwon you were a very kind host, a true gentleman and a man of much patience. Please extend my kindest regards to our team members, and to all representatives of the KAAB. You have much to be proud of, and I am privileged to have been a small part.

Best Regards

C. William Bevins, FAIA

Cc: KAAB

R. Wayne Drummond, FAIA
Joseph P. Giattina, Jr., FAIA
James Scheeler, FAIA
Sharon Matthews, AIA

Letter 3, James A. Scheeler, FAIA

Memorandum

Date: November 30, 2006

To: Kate Schwennsen, FAIA, President
R.K. Stewart, FAIA, First Vice President
Marshall E. Prunell, FAIA, First Vice President Elect
John C. Senhauser, FAIA, Secretary
Michael Lischer, AIA, RIBA, International Director
Christine McEntee, Executive Vice President/CEO

From: James A. Scheeler, FAIA

Subject: Report on the following meetings:

UIA Professional Practice Commission Meeting, Melbourne, Australia
Accreditation Team Visit to Myongji School of Architecture, Korea
UNESCO–UIA Validation Council, Paris
UIA Education Commission Meeting, Paris

Copies: Donald J. Hackl, FAIA
Eugene C. Hopkins, FAIA
Russell V. Keune, FAIA
Elizabeth Stewart, Esq.
Ellen Delage, Associate AIA

Accreditation Team Visit to Myongji School of Architecture

Yongin, Korea

November 9–16, 2006

The purpose of the Seoul/Yongin visit was to participate in one of the visiting teams conducting the first accreditation visits for the Korean Architectural Accreditation Board to three of the top Korean architecture schools. The Korean architects have been working with the US 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toward this goal for a number of years so this was a very special event for them and for the schools and there was understandably a good deal of tension and concern that they would meet the test. It was a real treat to see the team work that produced the superb demonstration of the curricula and student work of the schools.

The three teams were made up of three Korean architects, one former or current president of NAAB, and one international architect representing the UIA. Louise Cox, UIA First Vice President from Australia, George Henderson, RIBA, from the United Kingdom, and I were the UIA representatives. The NAAB representatives were Current NAAB President Wayne Drummond, FAIA, and former NAAB Presidents William Bevins, FAIA, and Joseph Giattina, FAIA.

The actual team visit was patterned after the familiar NAAB procedures and conducted over a period of four full days beginning on Sunday, November 11. The day began with a team breakfast and orientation at the Hyatt Hotel in Seoul where all team members were staying. We were then bussed to the Yongin campus of Myongji University some 50 kilometers south of central Seoul – about a one and one-half hour drive. Once there we were greeted by the chair of the school and her fellow senior faculty members and escorted to the ‘team room’ – the school’s exhibition hall – that would be our work venue for the next four days. We toured the school’s facilities and were introduced to the extensive and superbly organized exhibit demonstrating the curriculum with examples of student work from all courses offered by the school in its five year curriculum leading to the bachelor of architecture

degree. The objectives of the school and its curriculum were expressed in the KAAB Architecture Program Report produced by the school and sent to each member of the visiting team prior to our visit. It was refreshing to hear Myongji University President Kunmo Chung voice his support for the school of architecture and its Dean, Kim Seok Chul, and demonstrate a real understanding of the unique goals of the school during our visit to his office on Monday morning. Tuesday evening the team completed its review and report and took the official vote on its recommendations to the KAAB. Our report was presented on Wednesday to the President and Dean of the school and on Wednesday evening to the KAAB members. All three teams praised the quality of the presentations made by the schools visited and expressed support for the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accreditation objectives and procedures demonstrated by the faculty.

During the exit meeting with the KAAB it was suggested by the UIA team representatives that KAAB should apply to the UNESCO–UIA Validation Council for recognition that the KAAB Accreditation system meets the UNESCO–UIA Validation System standards.

For me, one of the highlights of the visit to Seoul occurred on Monday evening, November 13. Following the signing ceremony of the first renewal of the AIA–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Accord on Professionalism in which Kate Schwennsen, FAIA, and Byun Yong, Hon. FAIA, signed the accord that intensifies the pace and range of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professional societies, both Kate and I were inducted into the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as Honorary Fellows. Sungjung Chough, Hon. FAIA and member of the UIA Council, kept the proceeding a secret from both of us so we were both genuinely surprised!

총괄 책임연구원 : 박용환 (KAAB 교육연구지원단장)

세부 책임연구원 : 최재필 (KAAB 사무총장)
: 정진국 (KAAB 인증사업단 간사)
: 류전희 (KAAB 인증위원회 간사)
: 이정수 (KAAB 교육연구지원단 간사)
: 이준석 (KAAB 국내담당이사보)
: 이진혁 (KAAB 사무국장)

자 문 위 원 : 박한규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 이재훈 (단국대학교 교수)
: 여영호 (고려대학교 교수)
: 강 신 (아키편 건축사사무소)
: 정익현 (예전 건축사사무소)
: 최동규 (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 이근창 (엄앤드이 건축사사무소)
: 홍원화 (경북대학교 교수)
: 최광식 (우성 종합건축사사무소)
: 최명철 (단우 건축사사무소)

연구보조원 : 박종량 (KAAB 사무국)
: 정한진 (한양대학교)
: 이가경 (명지대학교)
: 임초룡 (충남대학교)
: 김영준 (경기대학교)
: 황용하 (서울대학교)

※ 본 보고서는 건설교통부 연구용역과제에 의한 연구보고서로 발행되었습니다.



사
단
법
인 한국건축학 교육인증원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158-8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44-34 건축회관 B/D 5층
www.kaab.or.kr / admin@kaab.or.kr / 02-521-1930, 40